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우리이웃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7월 21일(음력6월 5일) 수요일 (주간) 제483호

절에서 스님처럼 살아볼까?

월정사, 한달코스 행자생활 '단기출가학교' 열어

9월 13일부터 40세 이하 남녀 대상
삭발염의 · 예불 · 울력 등 '출가사전체험'

모든 세속적 욕망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나를 찾고 싶을 때, 삶의 신산함이 가슴 한 곳을 저리게 할 때 종교와 관계없이 한번씩 꿈꿔보는 '출가'.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몸으로 부딪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출가자의 '삶', 그리고 내 안의 '불성'.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단기출가학교'가 개설됐다. 강원도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 달간 경내에서 '단기출가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단기출가학교 참가자들은 스님과 똑같이 삭발염의를 하고 스님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입교하고 이틀째부터 예불문 및 식당작법을 습의하고, 사흘째부터는 1080배와 삭발식, 수계식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행일정에 들어간다. 초발심자경문과 부처님 생애 및 기초교리, 산중대덕스님 수행담 특강, 포살법문, 청규암송 등을 통해 치닫는 마음을 다스리고 환계의식 전 자자회, 철야 3000배 · 용맹정진도 해야 한다.

교육생들은 매일 새벽 4시 아침예불을 드린 뒤 좌선과 <원각경> 독송, 백팔대참회를 해야 아침 발우공양을 할 수 있다.

이후 전나무 숲길 자연관찰, 좌선, 포행, 소임별 울력 등을 하다 보면 어느덧 저녁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저녁예불 뒤에는 소림무술이나 태극권, 요가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일과를 통해 인생과 세계의 이치를 깨달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깨달은 이치를 중생들에게 전해 해탈과 구원을 얻도록 하는 출가 본연의 정신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된다.

교육기간 동안에는 담배를 필 수 없다. 사중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외에는 일절 먹을 수 없으며 신문, 잡지 등의 반입도 금지된다. 도량을 다닐 때는 항상 차수(두손을 앞으로 모아 단전에 붙이는 것)해야 하며, 남의 허물을 봐서도 안 된다. 이런 청규를 지키지 않으면 세 번의 경고 뒤 대중공사를 통해 퇴방될 수도 있다.

교육수료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정식행자로 인정되며, 조계종 교육원에 행자 등록도 가능하다. 단 만 40세 이하이어야 하며, 남녀 제한은 없고, 여성 참가자의 경우는 삭발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월정사 종무소(033-332-6664~5)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불교의 정신과 수행가풍을 배우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이번 단기출가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가를 삶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 남방불교국가의 불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승가와 자국의 승가를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실제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 남방불교국가에서는 출가가 평생에 한번은 해야 하는 제도로 정착돼 있고, 이를 통해 불교를 제대로 인식하는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다.

월정사의 이번 단기출가학교는 출가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나 환상을 바로잡아 줄뿐만 아니라 승가교육제도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 스님은 "행자생활을 시작한 뒤 정식 계를 받기까지 80% 이상이 탈락하는 현실에서 단기출가학교는 사전 체험이라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며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이라크에 연꽃 피우세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7월 13일 자이툰 부대와 함께 이라크로 파병되는 강의중 군법사(소령 · 왼쪽)의 파견 신고를 받았다. 법장 스님은 "이라크 현지민을 돕는 지원군으로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강의중 법사는 12월까지 자이툰부대 장병들의 신행활동을 지도한다. 관련 인터뷰 14면 사진=박봉영 기자

사형제도 폐지안 국회 제출된다

유인태 의원 발의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7월 15일 사형제 폐지와 종신형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교계와 법무부간 사형제 존폐 찬반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사형은 인간의 기본권이자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빼앗는 반인간적인 제도"라며 "사형제 대신 종신형을 도입하면 폐지 반대여론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불교 등 7개 교단이 결성한 범종교인 연합은 사형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사형폐지 특별법안은 지난 15, 16대 국회 때 발의됐다 법사위에 상정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철우 기자**

2004 summer 휴가·방학
독서삼매에 풍덩!
타블로이드 16면
부록 발행

이명박 시장 '봉헌' 사과

개인 홈페이지 통해 … 불교계, 공식사과 요구

2주일 넘게 끌어왔던 '서울시 봉헌' 발언 파문과 관련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7월 12일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했다.

그러나 불교계 단체들은 이 시장의 사과가 미흡하고 적절치 않다며 14일 언론을 통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9일 조계사에서 '범종교시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16일 현재).

이 서울시장은 7월 12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긴급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수장들에게 "봉헌서를 낭독하게 돼 일반 시민이나 이웃종교인에게 공직자로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며 종교계에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 서울시장은 7월 14일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종교적 편향이나 정치적인 목적 등 다른 의미는 없으며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며 다시 한번 종교인들의 양해를 구했다.

한편 종교지도자협의회는 7월 15일 "종교계 수장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늦게나마 이명박 시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시장의 사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신 기자**

소승 · 대승불교 화합 첫 국제세미나

태국 마하출라롱컨大, 45개국 1천여명 참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화합을 목적으로 45개국 1000명의 불자가 참가한 대규모 국제 학술대회가 태국에서 열렸다. 태국 왕립 마하출라롱컨대학(총장 프라 텝소훈)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일체된 수행:불자들의 연대와 협동'을 주제로 7월 16~20일까지 진행됐다.

한국대표로는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 스님 8명이 참가해 한국 비구니의 우수한 교육과 수행체계를 소개했다.

학술대회에서 해주 스님은 불교교육 분야에서 '한국 불교승가의 비구니 및 사미니 교육'을, 서울 아산병원 법사 지홍 스님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국 비구니의 병원봉사 현황', 불교방송 진행자 진명 스님은 '한국 여성불자들의 대중매체 포교 현황' 등을 각각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비구니를 인정하지 않는 태국에서 한국 비구니 스님들을 초청한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로, 이는 최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참가자들을 통해 한국 비구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진 결과로 보인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평가 좌담 4면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관계로 신문발송이 하루 늦어집니다

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할'



그림 · 조태호

능가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동해 실버타운
총 354세대 중 선착순 100세대에 한하여 혜택을 드립니다. 지금 서두르세요!
千古의 신비를 간직한 해오름의 고장, 양양에 위치한 동해실버타운에서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자손들에게 짐이아닌 당당하고 명예로운 삶!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 평화가 있는 여유!
식생활 등 품격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풍요! 바다와 숲이있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 노인들의 소망이 묻어있는 독립된 생활!
동해실버타운으로 초대합니다. 부모가 편하면 자식들도 편합니다.
첨단 시설과 좋은 입지만이 자랑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비용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이 숨쉬는 곳!
동해실버타운입니다
가족과 함께 호흡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 동해실버타운
서울에서 2시간대, 편리한 교통권, 바다와 수림이 어우러진 자연휴양지 강원도 양양!
남애항과 남애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 설악산 등을 지척에둔 학마을에 동해실버타운이 위치합니다.
언제라도 찾아 오고, 돌아 가기 쉬운 지리적인 조건에 27평형 아파트 스타일의 동해실버타운은
가족들의 별장으로서도 가치를 더합니다.
1회 입주금으로 평생을 보장 받으십시요
• 식사는 물론 사우나, 헬스클럽, 당구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도자기 실습장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화상채팅장, 가족 주말농장 등 입주자를 위한 동해실버타운의 모든 시설은 이용 및 사용이 무료입니다.
• 120평 규모의 대형 연회장, 전망좋은 카페 등 각종 편의 시설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 동해실버타운은 설계에서 건설, 직접관리까지 원스텝 시스템으로 되어있어 공신력을 더 합니다.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대자연의 여유가 함께 합니다.
바람 한줄기, 태양의 눈부심, 초록의 나무들, 시원한 파도소리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든것을 바로 곁에 두고 시작하는 하루 동해실버타운에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 타회사와는 비교될 수 없는 편리한 27평형의 아파트형 구조!
편히 휴식할 수 있는 넓고 안락한 실내공간!
동해실버타운입니다.
동해실버타운 건물개요
구분 내역
연면적 16,288평
세대수 총 354세대
세대당평형 27평형(348세대)
50평형(6세대)
문의전화 : 1588-0586
서울 사무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7-1 신영빌딩 7층
양양 사무소: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점포매리 47-4
http://www.dhsilver.co.kr



농촌포교 호기 놓치지 말자

농촌지역 불교가 죽고 있다. 농촌은 인구의 약 35%가 노인이다. 소수의 젊은 귀농인들이 미래를 꿈꿔 보지만 심각해진 주민노령화로 농촌은 현재 활기를 잃어 가고 있다.

깊은 산중에 위치한 사찰은 아침, 저녁으로 생활의 여유가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마음을 내서 찾아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은 가까운 교회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농촌의 정서는 불교와 가장 가까우므로 스님들의 적극적인 포교는, 그들에게 불법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

대부분의 사찰이 산중에 위치한 관계로 노인들이 절에 올라와 법회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대다수의 노인들이 절에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모습보다는 마을로 내려가는 '출장법회'가 효율적인 포교가 될 것이다. 또 노인들의 적적한 마음을 달래주는 집안의 손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불교의 친근함을 더해주는 일이다. 도란도란 노인정에 앉아 부처님의 일대기를 옛날이야기처럼 풀어주는 것도 근기에 따른 포교의 방법이 될 것이며,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의 귀농 젊은이들을 위해서 영화 관람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농촌포교의 한 방법이다.

귀농한 일부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전문불교를 만들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농촌의 폐교를 이용하여 지역사찰들이 서로 연계하여 농어민을 위한 문화의 장을 만들어 준다면 생활 속에 불교를 접하게 되는 최고의 포교가 될 것이다.

앞으로 사회의 화두가 될 '5도 2촌' 문제를 겨냥해 볼 때, 이러한 지역 문화의 공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일은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2일은 경치 좋고, 공기 맑은 농촌에서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각 지역의 사찰은 보다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 최근 불고 있는 웰빙 바람을 농촌지역 정서와 연결해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을 개방할 수도 있다.



주5일 근무·웰빙바람 등 변화
포교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야

이와 같은 일들은 스님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와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이루어지기 힘들다. 농촌 포교를 위해서는 깊은 산중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지역민의 고충을 함께 해야 한다. 지역민과 더불어 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포교의 대들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농촌 포교뿐 아니라 교도소, 군 포교 등 소외된 여러 지역의 포교도 마찬가지이다.

소외된 지역을 위한 바람직한 포교를 위해서는 각 지역 스님들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소외된 주변을 돌아보는 자세는 종교의 참 모습이다. 농촌 노인들이 소외된 삶을 살지 않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불교가 앞장서야할 때이다.

■ 지현 스님(봉화 청량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전문' 옷 입고 출범

조계종, 템플스테이·정보화 등 통합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시너지 기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현고 스님(사진 왼쪽)에게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임명장을 주고 있다.

조계종이 불교문화사업 및 자원을 개발 · 육성하며, 불교문화 체험기회를 널리 제공하고, 불교문화 대중화와 생활화의 실용적 기반을 확대 구축하기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을 출범시켰다.

문화사업단은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와 한국불교정보화사업단, 템플스테이사업단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불교문화사업에 대한 신사고 창출, 정부나 기타 사업체와의 교섭력 강화, 유사사업 중복투자방지, 재정적 독립을 위한 수익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7월 15일 문화사업단 단장에 현고 스님, 사무국장에 주경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이에 앞서 13일 개최된 종무회의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설치 및운영에관한령'을 통과시킴에 따라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설치된 문화사업단은 불교문화시설 건립과 프로그램 및 문화상품의 개발과 보급, 사찰체험사업, 불교문화 정보화사업,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했다.

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한국불교간화선체험센터 건립, 간화선 수련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찰체험 및 수련프로그램 계획과 개발, 전통사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불교문화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은 심의 및 의결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단장, 총무원 각원부서 부 · 실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기획실, 재무부, 문화부, 교육원, 포교원의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총무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단장은 총무원장이 직접 임명하며 사업단의 경영전반을 관리감독한다.

문화사업단 단장 현고 스님은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한 불교문화사업들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구성됨으로써 재원확보의 다양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됐다"며 "한국불교문화사업 유 · 무형 자원들을 시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내적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교비 환수 조치에 이의신청

14일 동국대 이사회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현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부의 교비환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7월 1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동국대는 이날 오전 동국대 교무원실에서 제201차 이사회를 열고 교육부 조치에 대한 재단 측의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 · 의결했다.

법무법인 '지성'과 '길상'에 법률자문을 얻어 작성된 이의신청서는 '의 · 한의대부속 일산불교병원'이 사립학교법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교비사용이 가능한 의과대 학생들의 교육시설이라는 점과 교육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던 2002년 이전에 발생한 '입법 미비'의 결과라는 사실을 들어 교육부의 교비 회수 조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동국대에 8월 15일까지 환수를 요구한 교비전용 금액은 교비회계 418억 5800만원, 사학진흥재단차입 68억 4000만원 등 총 486억 9800만원이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행자교육원 9월 송광사서

행자 206명 입교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7월 12일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제 27기 행자교육원을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순천 송광사에 개설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원은 행자교육원 유나에 지현 스님(송광율원장), 습의도감에 정원 스님과 윤운 스님을 각각 위촉했다. 또 행자습의에 앞서 8월 30~31일 양일간 송광사에서 습의예행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이번 행자교육에는 남행자 119명, 여행자 87명 등 총 206명의 행자가 참가한다.

조용수 기자

2기 조계종 환경위원회 '시동'

위원장에 지원 스님

사찰 수행환경 보전과 불사에 대한 연구 조사 사업과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한 제2기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7월 13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환경위원회는 위원장에 총무원 사회부장 지원 스님, 위원에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 해인사 원당암 진각 스님, 밀양대 이병인 교수 등 20여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또 생태, 문화 · 조경, 도시계획, 환경법, 시민단체 등 환경관련 7개 분야에 걸쳐 18명의 전문위원도 위촉했다.

환경위원회는 앞으로 불교환경 의제 21 선정, 환경 종책 5개년 계획 마련, 불교환경워크숍 개최, 사찰 생태조사 등의 활동을 한다. 이와 더불어 본말사 환경교육과 사찰환경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협의, 민간환경 단체와 연대 활동도 하게 된다.

강유신 기자

조계종 종회의원 연수 8월24일부터 3차례

2004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주제별 연수회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열린다.

중앙종회 고유기능인 입법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종책감시 기능,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열리는 주제별 연수회는 13대 중앙종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4일에는 '종법 입법 및 심사', 25일에는 '예산 · 결산 심사', 26일에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각각 열린다.

남동우 기자

고침 본지 482호 5면 파라미타청소년협 대구지부 교직원 명상 관련 기사 가운데 '통도사서 2일간 템플스테이'의 '통도사'를 '동화사'로, 14면 '제주 법주사'를 '제주 법화사'로 고칩니다. 또 480호 4면 '봉녕사 강원' 기사에서 일운 스님의 절을 '울진 불영사'로 바로 잡습니다.

이달의 문화인물후보 문광부서 추천받아

문화관광부가 2005년도 '이달의 문화인물'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 각 시 · 군 · 구를 통해 7월 23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이달의 문화인물'은 우리나라 역사상 위대한 문화적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해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199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다.

'이달의 문화인물' 추천대상은 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국민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로서 선양(기념)사업 추진이 가능해야 한다.

문광부는 "특히 여성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조명을 위해 '여성' 문화인물을 집중 발굴, 추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승적 정정 재요청 98년사태 관련 스님들

조계종 1998년 종단사태 관련자인 정우 · 원학 · 현소 · 성문 스님 등이 승적 정정(복적)을 다시 요청했다.

스님들은 7월 13일 총무원으로 발송한 '승적 정정(복적) 재요청서'에서 "지난 5월 12일자로 초 · 재심 합동심사 속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승적정정 요청서를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어 재촉구 요청서를 보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승적 정정 조치가 이행될 수 있기를 재차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스님들은 2003년 7월 '특별법에 의해 심사를 속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규위원회 판결을 근거로 지난 5월 승적정정을 총무원에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본사사령

오윤희
위촉 편집국 편집위원

2004년 7월 12일

성 명 서

서울시장 이명박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 한다」는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서울 시민과 전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한국불교승가회 중앙회는 7월 14일 남가섭사에서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 한다」는 망언을 한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1. 서울시장 이명박은 교통난과 각종 물가 인상 등으로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서울 시민들을 무시한 채 본분을 망각하고 시장이란 직권을 남용하여 개인적으로 믿는 종교를 승화 시키시 위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 한다」는 망발을 한데 대해 서울시민과 전 국민 앞에 즉각 참회하고 공개 사과하라.
2. 서울시장 이명박은 다 종교 사회임을 망각한 채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종교간의 갈등과 국민 분열을 선동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참회하고 공개 사과하라.
3. 서울시장 이명박은 본분을 망각한 채 직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초 헌법적인 종교행위를 한데 대해 전 국민에게 즉각 참회하고 공개 사과하라.

만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초 헌법적인 사상으로 편향적 종교행위를 하고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것에 대하여 서울시민과 전 국민에게 참회하고 공개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불교승가회 전 대중들은 범불교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명박 서울시장의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경고한다.

한국불교승가회 중앙회 회장 백설운

대체복무 입법등 논란확산 조짐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판결' 의미와 불교계 반응

"유죄 당연" - "감옥외 대안 마련하라" 반응 제각각
소송단체 다음달 헌재 판결에 희망…UN 인권위에 제소계획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7월 15일 유죄를 확정, 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이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문제와 관련해 다음달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이 아직 남아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과 2심에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은 최 모씨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 또는 양심에 따른 입영 불응이 병역법에서 예외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 의미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심 · 종교적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이런 한계 속에서 보장 돼야 한다는 대법관들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판결 이후 관련 종교 · 시민사회단체는 7월 16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즉각 병역법 개정과 대체복무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인사들도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 및 사상의 자유에 관한 국민기본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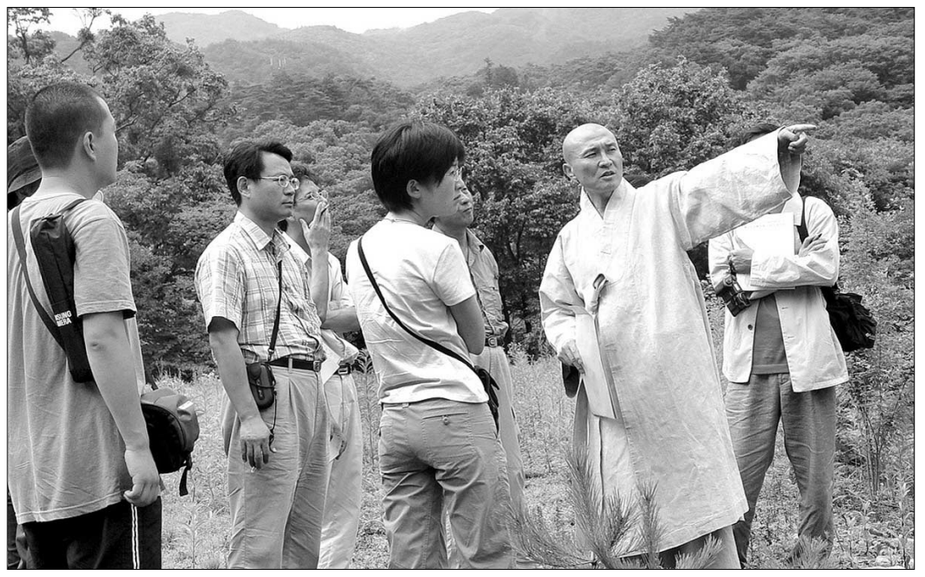
한편,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관련 단체들은 다음달 최종 결론이 나올 헌재의 판결을 기다린 후 헌재에서도 합헌 결정이 나면 유엔인권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불교계 반응

2001년 12월 오태양(정토회 활동가 · 29) 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선언을 한 뒤 자신의 종교와 이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끊이지 않고 확산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오태양 씨는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났지만 대법관 가운데 6명이 제도적으로는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주장 했다. 이는 병역거부자가 감옥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현실적 모순을 인정한 결과"라며 국회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불협 의장 법타 스님도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병역거부자의 실체를 인정하고 처벌위주의 대응이 아니라 이들이 인간으로서 사상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사무국장 전창응 법사는 "현실적으로 남북이 분단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권 이전에 사회공동체의 근간으로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현역 8군단 군종 김종봉 법사도 "한국불교에 사명대사와 같은 의병승이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반드시 불교적 이념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이번 판결에 대한 불교계의 다양한 반응을 엿볼 수 있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해인사대책위' 위원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들은 7월15일 신행문화도량 건립 예정지인 구 해인초등학교 등을 둘러보고 해인사로부터 불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사진=배지선 기자

해인사 내원암 불사 '없던일'로

방장 법전스님 전면 중단 지시

해인사가 내원암 불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해인 총림 방장 법전 스님은 7월 16일 주지 세민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에게 "내원암 불사를 단순히 舊 삼선암 복원불사로 생각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불사를) 전면 중지하고 두 번 다시 내원암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와 환경파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내원암 불사는 완전히 중단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법전 스님은 그러나 "동판 팔만대장경 조성불사에 대해서는 국민적 힘을 모을 수 있는 불사가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16개 불교 환경 · 신행단체들이 7월 7일 구성한 '해인사 관광도량화 중단과 바른 불사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등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7월 15일 해인사를 방문해 불사 예정지에서 재무국장 현종 스님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었다.

현장 조사에 참여한 김동필(밀양대 조경학과) 교수는 "해인사 불사 문제는 다른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해인사 불사가 철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불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안, 불사 후 관리방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추진돼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7개 시민 · 환경단체 대표자들은 7월 14일 대구여성회 강당에서 △해인사의 대형도량 건립계획 백지화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부결 △환경부 공원위원회의 공원 내 행위 허가 및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반려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배지선 기자

'예배 거부 제적' 인권위에 진정

강제적인 예배를 거부하다 제적된 강의석(18) 군이 7월 13일 학교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강 군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배움의 공간인 학교에서 특정한 종교의식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제적인 종교행위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강 군과 대광고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는지의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강 군을 비롯해 인터넷 카페 종교사랑(cafe.daum.net/whdrytkfkd)은 1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청소년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위한 '로이(Rights Of Youth)와 함께하는 청소년문화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인권선언문'을 통해 "교내에서의 특정한 종교의식 강요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았고, 일부 학생들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가 되고 있다"며 "강제적인 종교의식을 거부할 권리와 신앙 불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박봉영 기자

달마마라톤대회 열린다

서울광역신도회(www.dharmamarathon.com)가 9월 12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제1회 달마마라톤대회 및 행복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마라톤대회와 걷기 명상, 법고 공연 및 선무도 시연 등 가족이 함께 즐기고 웃을 수 있는 다양한 행복문화축제로 꾸며진다.

마라톤행사는 하프코스와 10km, 5km 로 나눠 진행된다. 완주자에게는 완주메달과 함께 기록증과 기념품 등이 제공되며 10km 마라톤 완주자 중 대회 평균기록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참가자에게는 특별상이 지급된다. 참가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7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02)733-0272 김은경 기자

비키니 수영복에 부처님이?

주한 스리랑카 대사 조계종 방문
불상 등 상업화 반대 협력 요청

금발 머리를 한 백인 여자가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터질 듯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 수영복 가슴께에는 부처님이 합장을 하고 앉아 있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 수영복 하의에도 부처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여성 속옷 업체인 빅토리아즈 시크리트의 또 다른 브랜드인 '탱키니'가 선보인 수영복이다.

주한 스리랑카 비제야시리 대사는 7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 부처님 상호를 상업화하는 문제에 대해 범불교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비제야시리 대사는 "상업용 상품에 부처님의 상호를 묘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수영복 브랜드 판촉을 위해 영국, 미국, 유럽국가의 상점과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제야시리 대사는 스리랑카 외무부에서 해외 공관을 통해 △관련당국에 공식적인 건의 △상품 출처 지적 △당해 국가 불교기구 등과 연대하기 등을 이행하도록 지시했다며 한국 불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측은 "국가 차원에서 한국, 태국, 일본, 미얀마 등 주로 불교국가를 대상으로 공동대처를 요청하고 있다"며 "뜻이 모아지는 대로 전 세계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인권 복지단체 '작은손길' 창립 발기인 총회 열어

우리사회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듯한 자비의 손길을 전할 인권 복지단체 '작은손길'이 7월 16일 서울 만해교육원에서 창립 발기인 대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작은손길'은 그동안 독자적인 활동을 했던 김포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홈리스의 친구들, 아시아인권문화센터가 연대해 가난한 이웃들의 인권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작은손길'은 앞으로 노숙자, 탈북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무의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재활 및 자활 지원, 외국인 노동자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친다. 강유신 기자

前 성원토건 회장 부인 불교계에 선처 호소

공적자금 유용혐의로 구속된 前 성원토건 김성필 회장 부인 하혜자(법명 혜광월) 씨가 불교계의 도움을 호소했다.

하 씨는 최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前 회장이 기업을 잘못 운영해 공적자금을 잘못 관리한 책임은 있지만 각종 불사에 도움을 준 행위까지 함께 매도돼서는 안 된다"며 문경 봉암사, 양산 통도사, 부산 범어사 불사 등을 지원해왔다고 소개했다.

호화주택으로 보도된 서울 성북동 저택과 관련 "불사 목적으로 94년경에 구입해 성원토건이 부도나기 훨씬 전 통도사에 기증한 사찰"이라며 "홈바나 해외 명품 구입, 차량 4대 소유 등은 보도된 것과 사실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 씨는 김 前 회장과 함께 구속된 원행 스님에 대해서도 "자기 욕심은 전혀 챙기지 않고 남을 돕고 종단을 위해서 일해 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동우 기자

오대산 월정사 불교대학 제 1기생 모집

선남자야, 누가 가장 높고 착한 이인가? 먼저 부처님과 법을 믿어야 하며,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배운 대로 행하여야 하며, 자기안의 해탈을 구하지 말고 대승에 회향하여 일체중생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는 자이다.《대반열반경》

월정사 불교대학은 '찾아가는 포교, 지역사회로의 회향'이라는 불교의 시대적 요청을 실현할 신도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계 대덕 스님과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강좌를 개설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선근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1. 개 강 일 : 2004. 9. 4. 오후 2시(음력 7. 20. 토요일) 2. 교육과정 : 1년과정(2004. 9. 4 ~ 2005. 8. 31)
3. 교육시간 : 주 1회(매주 토요일 14:00 ~ 18:00 총 4시간)
4. 교 과 목

번 호	분 류	교 과 목 명	학 기	총강의시간	주당수업시간
1	선 택	불교입문	1	16	2
2	필 수	불교교리(근본불교)	1	16	2
3	필 수	불교문화	1	16	2
4	선 택	자원봉사론	1	16	2
5	필 수	불교사(조계종사 포함)	1	16	2
6	선 택	리더쉽과 지도자론	2	16	2
7	선 택	계율론	2	16	2
8	필 수	포교방법 및 상담론	2	16	2
9	선 택	불교사상사	2	16	2
10	필 수	선의 이해와 실참	2	16	2
11	선 택	경전의 이해	2	16	2

※특강 : 청소년 포교론, 불교사회복지 등

5. 수 강 료 : 연 240,000원(월 2만원, 입학금 포함, 교재대 별도) ※매학기 장학금(성적우수자) 지급
6. 모집인원 : 70명(선착순) 7.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매, 사진(3×4㎝) 3매
8. 원서접수 : 2004. 8. 1 ~ 8. 31
9. 문 의 처 : 오대산 월정사 종무소 (☎ 033)332-6664 ~ 5 / fax 033)332-6915, 담당 : 박재현)
10.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sa.org)**를 참조하십시오.

※불교대학 입학생의 경우 원하신다면 '산사의 하루'라는 사찰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말에 가족과 함께 월정사, 상원사에서 산사의 하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불기 2548(2004)년 7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불교대학학장 원행

오대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제 1기생 모집

"이 세상에서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는 불법 만나기 더욱 어렵다."고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의 숲길로 아름다운 민족의 성지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한 달 동안의 단기 출가자를 모집합니다. 삭발염의 하고,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인 초심자(행자)생활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불법에 대한 신심고취는 물론, 밖으로만 치닫는 이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삶을 돌이켜 점검해보는 일생에 있어 단 한번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일반인에게 삭발염의하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출가수행자로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수행의 도량인 단기출가학교를 열고자 하니 수희 동참하시어 겹겹이 쌓여 있는 무명 업장을 벗겨내시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삼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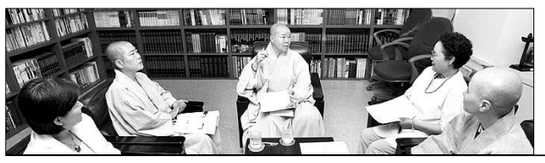
1. 모집대상 : 출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체험하고자 하는 심신이 건강한 만 40세 이하의 일반 남녀
2. 모집인원 : 30명 이상 3. 수행기간 : 불기2548(2004). 9. 13. ~ 10. 12.(1개월)
4. 수행과정 ※수료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정식행자로서 등록 및 인정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시	기상 및 예불						
5시	좌선, 원각경 독송, 백팔대참회						
6시 30분	아침 발우공양						
7시	운력 및 전나무 숲길 자연관찰						
8시	좌 선						
9시	교 육						
10시	소임 및 사시예불						
11시 30분	법 공 양						
12시~14시	포 행			보궁참배 산 행		포 행	
14시	좌 선					좌 선	
15시	교 육		특 강			교 육	
16시	소임별 운력						
17시 30분	저녁 발우공양						
18시 30분	저녁예불 및 기도(초발심자경문 독송)						
19시	교 육(소림무술 · 태극권 · 요가)						
20시	청규암송	소림무술 · 태극권 · 요가					
21시	취 침						

5. 수행경비 : 10만원 6. 신청기간 : 8월 1일 ~ 9월 4일
7. 문 의 처 : 오대산 월정사 종무소 (☎ 033)332-6664 ~ 5 / fax 033)332-6915, 담당 : 박재현)
8. 기 타 : 수행프로그램 및 자세한 내용은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sa.org)**를 참조하십시오.

불기 2548(2004)년 7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학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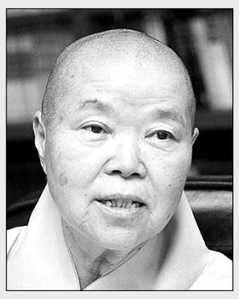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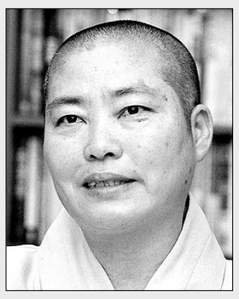
좌담 :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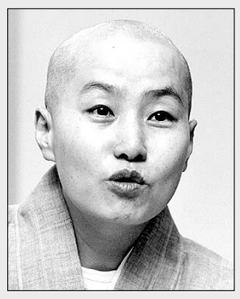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가 성황리에 폐막됐다. 6월 27일~7월 2일까지 중앙승가대에는 매일 1500명의 인원이 운집했으며 60여 편의 학술논문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대회로는 가장 많은 30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여성불자들의 수행과 교육의 문제 해결, 세계 여성불자들의 네크워크 구축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회를 주도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와 불교여성개발원 관계자들이 모여 이번 대회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언어 장벽 넘어 한국 불교 세계화를

●**참가자** : 명성 스님(대회장)
본각 스님(대회 추진위원장)
이인자 원장(불교여성개발원)
이향순 교수(미국 조지아 대학)
●**사 회** : 혜원 스님(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일 시** : 2004년 7월 12일 오전 10시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접견실


명성 스님


본각 스님


혜원 스님


이인자 원장


이향순 교수

혜원: 우리는 전 세계 불교인이 주목하는 가운데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를 여법하게 치렀습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 한 본각 스님의 2년여에 걸친 준비와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의 지도,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회장 명성 스님과 대회 추진위원장 본각 스님,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 이향숙 미국 조지아대 교수를 모시고 대회에 대한 평가와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명성: 이번 대회는 여성불교 행사로서는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대회가 원만하게 회향하게 된 것은 부처님의 가피와 사부대중이 전력을 다해 노력해준 덕분입니다. 다소 미비했던 점이 있긴 했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많았다고 봅니다. 대회가 무난히 치러질 수 있게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각: 지난 제7차 대만대회의 공식 참가인원은 약 37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막식에만 30개국 15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명성 스님을 비롯해 전국의 비구니회 임원들이 자신의 일처럼 여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추진위에서도 홍보나 섭외를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무엇보다 여성불자 모두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인자: 사실 비구니 스님들의 노력에 비해 재가여성들은 어떻게 대회를 참여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성 회장스님께서 "비구니와 재가여성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앞으로 끄는 건 부처님이 해 주시니까 믿고 마음을 모읍시다!"라고 말씀하신 덕분에 부족하지만 재가자들의 힘을 모아 참여하게 됐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재가자들이 대회를 더욱 빛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혜원: 세계여성불자대회는 일반적인 학술대회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향순 교수님이 보시기에 주요 행사였던 학술토론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보십니까?

이향순: 제가 알기로는 이번 대회가 학술대회 중심이라기보다는 여성 불자 전반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으로만 대하던 석학들과 불교지도자들을 한자리에서 직접 뵈었던 것도 큰 경험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비구니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학술대회 내용전체를 살펴보면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성 불교 '운동가'와 '학자'들이 한곳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 대회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인자: 이제는 비구니 스님들이 자신의 수행을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측면에서 재가불자들을 지도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명성: 하화중생은 부처님의 뜻입니다. 하화중생을 하기 위해선 출가자와 재가자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서로 동떨어져선 안 됩니다. 재가 여성불자들은 관세음보살 같은 대 자비심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하화중생은 스님들에게 기댈 게 아니라 여성 자신들이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같이 부처님의 뜻을 내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게 참된 하화중생입니다.

혜원: 그동안 한국불교가 세계화되지 못한 데는 언어가 중요한 걸림돌이었습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언어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향순: 저의 경우에는 불교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왜 한국 비구니가 오랜 전통과 우수한 승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밖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고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게 언어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의 비구니 승가도 체계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국불교가 어떻게 하면 서양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는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년 어학연수 같은 비현실적 대응보다는 좀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각: 중요한 건 불광산사가 왜 미국에 서래대학을 가지고 있고 자제공덕회가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대만불교를 국제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그만큼 좁았다는 말도 됩니다. 이제는 언어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더 넓은 시야로 세계 불교를 바라 봐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명성: 저는 이번 대회기간 동안 세계인들이 부처님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교화의 수단인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달라이 라마, 틱 낫한 스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외국어에 능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일선에 있는 저로서는 언어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근본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승가 교육은 내전에 치우치지 않고 외전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 포교에 필요한 피아노를 가르치거나 현 시대에 필요한 포교과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덕분에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여성 불자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구니, 재가불자가 부처님의 교법을 널리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선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역군이 되어야 합니다.

이인자: 여성개발원은 대회를 끝내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재가불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재가불자 스스로 일어서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님들에게 하화중생 해 달라 부탁드린 건 아직 재가여성 불자들이 조직적, 개념적으로 스스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앞으로 여성 불자를 교육할 수 있는 아카데미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만경>을 통해 재가 여성불자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혜원: 이번에 쏘모 스님이 발표한 논문이 '미국에서의 불교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쏘모 스님의 근무처가 가톨릭 대학이라고 합니다. 타종교인들이 불교를 알기위해 노력하는데 비해 우리는 그런 면이 부족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맞는 불교 교육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향순: 다른 타종교 성직자들은 불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스님들은 수행에 바빠서 그런지 타종교의 기본 신앙이론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당장 실행에 옮기기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스님들이 서양 종교와 철학을 제도적으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서양종교와 철학을 이해하면 불교가 왜 우수한가를 금방 알 수 있죠. 아직도 불교가 비현실적이고 전통만을 중시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학생들과 함께 체험을 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명성: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닫혀 있었다는 느낌입니다. 종교학 공부도 비교종교학을 많이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는 불교를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종교를 연구해야 우리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각국 여성불자들이 눈을 번쩍 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의의 경쟁을 시작한 겁니다. 한국불교와 비구니 승단을 부러워하고 우리를 배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이제부터 한국 여성불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인자: 스님 교육도 중요한지만 재가자 교육도 중요합니다. 한국 총림이 5군데죠. 거기서 일년에 한 사람씩만 재가자를 교육시켜도 불교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소국의 여성 불자들은 스님조차도 못된다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위원회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향순: 제 발언을 마무리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세계인들이 한국불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새겨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족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자칫 밖에서 온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다 퍼주고 우리에겐 아무것도 안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질 때 우리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비구니 종주국이라고 말하면서도 한국 비구니에 대한 제대로 된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자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챙겨야합니다.

명성: 늘 강조하지만 이제는 종교의 전환기가 왔습니다. 기독교는 최고봉에 이르러서 이제 점점 내리막길을 걷지만 지금은 우리 불교가 점차 성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지 않았던 것을 세계 사람들이 연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세계 여성불자대회는 한국불교를 다시 되돌아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좌담내용 전문은 www.buddhanews.com에)

정리=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여성 '운동가'와 '학자' 결집 의미 깊어
타종교 연구해 우리 위치 바로 봐야
한국 비구니 연구자료 꼼꼼히 챙겨야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필요성 재확인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지장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특별기도

[1]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 기도비 50,000원이상
2004년 7월 11일-8월 30일(만 50일간)

[2] 사랑의 명절 칠석기도 : 기도비 30,000원이상
2004년 8월 15일-8월 22일(만 7일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댁과 친정으로 나누어 위패를 모시며 영가님 수에 관계없이 한 쪽이 50,000원씩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별히 큰법당에 영가등을 기도기간 내내 달아 드립니다.

금주의 발원

[재가자의 마음가짐]

재가자로 보살로서 있을때에는
모름지기 발원하되 모든중생이
가정이란 그성품이 공함을알고
핍박됨을 면하도록 하여지이다

부모님을 효성으로 섬길때에는
모름지기 발원하되 모든중생이
그와같이 부처님을 시봉잘하고
온갖것을 보호하게 하여지이다

아내자식 한자리에 모일때에는
모름지기 발원하되 모든중생이
원수거나 친한이나 아주고르게
탐욕집착 영원토록 떠나지이다

행여만일 오욕락을 얻을때에는
모름지기 발원하되 모든중생이
깊이박힌 욕심화살 뽑아버리고
구경에는 안은하게 하여지이다

[華嚴經淨行品] 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도원 스님의 불교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있는 청각장애아들.

"절에 오니 잘 들리네요"

청각 장애아 · 학부모 70여명 불교체험

1박2일 통도사 옥련암서 명상 · 수화 노래 부르기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만끽

"불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어요. 처음 접해본 수화노래도 재미있었어요."

통도사 옥련암에서 열린 청각장애아와 학부모를 위한 불교체험캠프에 온 유정(경남정보대1)이는 절에서 보낸 시간이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7월 10~11일 청각장애아 통합학부모회(회장 전점순)에서 연 불교체험캠프에는 유정이처럼 청각 장애를 가진 유치부, 초 · 중 · 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구화(口話)로 의사소통을 하는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산사의 적막을 깨뜨렸다. 분명치 않는 발음이었지만 아이들의 의사 표현은 분명했고 절에서 보낸 하룻밤에 대한 느낌은 한결같이 "좋다!"는 것이었다. 청각장애를 가진 동생과 함께 참석한 한설(울산 효정중 2)이는 "장애를 가진 동생을 보살피기 위해 매년 열리는 캠프에 따라가곤 했지만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산사에서의 시간은 처음"이라고 했다. 또한 엄마, 누나와 함께 참석한 창현(성천초 2)이도 절에서의 생활이 새롭기만 하다.

아이들과 함께 사찰을 찾은 학부모들의 마음도 흡족하다. 청각 장애아를 위한 법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절에 가본 아이들이 극히 드문 상황. 따라서 절에서 보낸 시간 자체가 아이들에겐 공부이고 새로운 체험이 되었다.

이은영 통합학부모회 총무는 "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이들에겐 신선한 경험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겐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이번 캠프의 의의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 극복을 위한 언어, 발음 등에 관련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들었던 강의와는 차별화 되는 도원 스님의 특강과 명상, 수화노래 배우기, 산행, 통도사성보박물관 관람 등 프로그램도 풍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수화 노래 배우기와 명상. 평소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구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아이들로선 손가락 모양으로 의사전달을 하는 수화가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사랑으로' 라는 노래를 수화로 부르며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또한 산행 후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전시된 탱화, 불상, 불화들을 둘러보는 시간에는 불교미술에 관심이 많은 아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이번 캠프의 장소 섭외와 강의 등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친 도원 스님은 "청각 장애아 통합학부모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갖고 법회, 수화배우기, 명상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임휴사 대웅전 전소



화재로 소실된 임휴사 대웅전 잔해.

12일, 삼성각도 … 방화 추정 CCTV 녹화 화면 정밀판독 의뢰

7월 12일 새벽 1시 38분경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앞산 임휴사에서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대웅전과 삼성각이 모두 불타고 1시간만에 진화됐다.

대구 달서구 소방서는 1시 53분 경 화재 발생신고를 받고 2시경 소방차 19대 70명의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웅전 전체가 불길에 완전히 휩싸여 삼존불과 탱화 등이 소실됐으며, 삼성각으로 불이 옮겨 붙은 상태였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할 당시 대웅전에서 촬영된 CC(폐쇄회로)TV 녹화 화면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CCTV 녹화 화면에는 화재 직전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대웅전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과 법당에서 불길이 솟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14일 대구 달서경찰서 이형식 반장은 "CCTV 녹화화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판독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휴사(臨休師)는 신라 경명왕 5년(921년) 영조대사(靈照大師)가 창건하고 1811년(순조11년)에 무주선사가 중창한 전통사찰이다. 화재로 전소된 임휴사 대웅전은 45평 1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2001년 준공한 신축건물이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초청으로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지도자 22명이 7월 9일 범어사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22명 종교지도자들 한자리에

부산 범어사 초청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 초청으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종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7월 9일 범어사에서 열린 모임에는 범어사 기획국장 정만 스님, 천주교 부산교구장 정명조 주교,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종태 목사 등 모두 22명의 종교인들이 참석했다.

대성 스님은 이날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흐름속에서 종교인이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종교인들이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경봉 스님 열반 22주기 영정 봉안



경봉 스님 영정.

원광대 김범수 교수 제작 장학회 · 3곳 선원에 장학금

양산 통도사 극락암(감원 명정)은 7월 14일 경봉 스님 열반 22주기 기념법회 및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열반 22주기 추모법회는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 스님, 원로의원 천운 스님, 원로의원 원명 스님, 원로의원이자 경봉문도회 대표인 성수 스님을 비롯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는 경봉 스님이 주석하셨던 삼소굴에 경봉 스님의 영정을 봉안하는 봉안식을 함께 가져 관심을 모았다.

이번에 제작된 영정은 전통 석채와 기법에 의한 인물화 제작에 뛰어난 김범수 원광대 교수에 의뢰, 7개월에 걸쳐 완성됐다. 경봉 스님의 영정은 가로 115cm 세로 150cm로 천연석채와 금니 먹을 써서 제작됐다.

명정 스님은 영정 봉안 경과보고에서 "법제자나 재가 신도들이 스승의 모습을 통해 수행의 경계를 삼고 위안을 얻으며 결속을 다지기 위해 스승에 대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수행정진하는 마음으로 영정을 모시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법회에서는 경봉 스님의 육성법문, 종산 스님의 경봉 스님 회고 등에 이어 경봉 스님이 직접 설립한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박사1명, 석사 5명, 학사 22명과 3곳의 선원 등에 3천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천미희 기자

삼성 SDI 한마음봉사회 통도사 자비원서 자원봉사

통도사자비원(원장 오심)에 반가운 손님이 왔다. 삼성SDI 한마음봉사회 31명의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외출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

통도사자비원 요양시설, 양로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33명과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의 7명 어르신들은 통도사자비원 직원, 삼성SDI 한마음봉사회 봉사자들의 손을 잡고 오랜만의 외출에 나섰다.

온천을 찾아 뜨거운 온천물에 온 몸을 담그고 묶은 때를 말끔히 씻은 뒤 점심공양까지 마치고 나자 어르신들의 얼굴엔 웃음이 피어올랐다.

"아휴, 너무 개운해. 샤워만 하다가 온천에 와서 몸도 담그고 또 봉사자들이 목욕도 시켜주니까 너무 좋아." 아들처럼 딸처럼 어르신들과의 외출에서 잔심부름을 도맡았던 봉사자들은 피곤을 잊은 채 다음 외출을 약속하며, 봉사를 마무리했다.

천미희 기자

"재판기간중 공사중지" 촉구

도롱뇽 소송 항고심 2차 심리가 7월 12일 부산고법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 주재로 열린 이날 심리에는 KBS환경스페셜 '다시 쓰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작했던 최용수 부산 KBS PD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드러난 천성산 구간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원고 당사자인 지율 스님이 참고인 진술에 나서 재판 진행 기간동안 공사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조계종 충청지역 본 · 말사 주지스님들은 15일 결의문을 통해 "천성산 공사구간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천미희 기자

대구교도소 재소자 수계식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삼보전에 귀의합니다."

대구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불자들이 오계를 받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9교구 본사 동화사는 13일 부주지 진담 스님을 계사로 교무, 포교, 재무, 사회 국장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0명의 불자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수계법회를 대구교도소내 광명사에서 봉행했다.

진담 스님은 이 자리에서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계는 등불과 같고 배와 같다"면서 "5계를 수지해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으면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설했다.

배지선 기자

봉 제 1차 구오사미수계(驅烏沙彌受戒)봉행 축

구오사미(驅烏沙彌)란 절의 음식을 나르거나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을 보고 날아드는 까마귀를 쫓던 어린 행자가 사미십계를 받아 비로서 사미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종헌종법에 의하면 수계득도 연령이 18세~45세이고 수계산림도 늦가을에 4주간 받게되어 있어 일반학생행자나 사찰에서 보육하는 학생행자들은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계식에만 참석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보완코자 용화사에서는 각 사찰에서 보육하는 어린행자나 일반학생행자를 위해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 수계산림을 가져 어릴적때부터 불심인연을 심코자 구오사미 수계식을 처음으로 봉행코자하오니 종단 산하 대덕스님들께서 양지하시어 많은 동참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목 적 : 첫째, 어려서부터 승려상의 인연을 심기 위함이요
둘째, 우리 종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며
셋째, 불교발전을 위함입니다.
나. 교육내용 : 일상 사찰생활 익히고, 조석 예불하기
한글천수경 및 예불 · 정근 · 발원문 · 축원익히기
레크레이션 · 찬불가 · 찬불동요 · 물놀이
인터넷에 까페 만들어 정보교환 주고받기
다. 수계기간 : 2004년 8월 1일 ~ 8월 7일(1주일)
라. 접 수 처 : 총무원 및 각 교구본사 및 담양 용화사
마. 대 상 : 7세 ~ 17세의 각사암 학생 행자
바. 제출서류 : 총무원지정 행자등록서류 및 증명사진 3장
사. 준 비 물 : 장삼, 발우, 작은 목탁, 작은 108염주, 필기구 및 세면 도구, 가사
(가사는 용화사에서 행자의 신장 크기에 맞추어 제작 수여)
아. 참가비용 : 교육비 30만원(교재 및 가사 비용 포함)
자. 일 정 표 : 8월 1일 오후 2시까지 집결, 오후 5시 서류접수완료,
오후 6시 처음 발우공양 배우기
※ 8월 5일 오전10시 사미수계식
(수계를 미리 시키는 이유는 수련기간 동안 가사 장삼 수하는 법을 익혀주기 위함임)
차. 미래의 계획 : 매 방학마다 일정기간동안 수련회를 통해 자질향상 프로그램 진행 예정
카. 특 전 : 종헌종법의 묘용을 살리어 18세가 되었을 때 본종에서 실시하는 구족계 수계와 동시에 사미수계 연도 입적과 승적취득
타. 수계장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용화사 아일다 율원
(담양 터미널옆 신축 금강아파트 쪽으로 들어옴)
전화 (061)381-2683, 2724 팩스 (061)381-2747
홈페이지 : 담양용화사 또는 www.yonghwasa.org

담양 용화사 아일다 율원장 수진 합장

"동식물 孤魂 극락왕생하소서"



강릉 현덕사 동 · 식물천도재에서 춤사랑예술단 박태숙 단장이 동 · 식물의 영혼을 위로하는 살풀이 춤을 추고 있다.

강릉 현덕사 천도재 … 공연 · 그림그리기로 위령

"사람들의 이기심과 편리함을 충족하기 위해 죽어간 동식물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7월 10일 동식물 수륙고혼 천도재가 열린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천도재에서 율곡초등학교 6학년 신지윤 양의 발원문이 낭독되자 대중은 모두 고개를 떨군다.

이어 봉행된 천도재에서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동물, 애완용 동물, 환경파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식물, 실험용 동물, 조류독감으로 폐사된 조류 등이 천도됐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동식물 영혼 천도법문을 통해 "동물과 식물, 우리 사람들과 귀천을 따지는 것은 인간의 만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지구에서 동물과 식물은 함께 공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지 현종 스님도 추모사를 통해 "한 해 동안 갖가지 사연으로 숨을 거두는 동식물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무척 많다"며 "불쌍한 동식물의 영혼을 천도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존중사상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동식물 수륙고혼 천도재를 봉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춤사랑예술단(단장 박태숙)의 살풀이, 승무 등 동식물 수륙고혼 천도를 위한 추모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강릉시 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크레파스로 그린 동식물 앞에 참배하며, 우리 인간들로 인해 죽어간 영혼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동참대중들은 천도재가 끝난 후 자유와 생명존중을 상징하는 조류 10여수를 방생했다.

강릉=김원우 기자

'아시아태평양잼버리' 불교관 운영

8월5~11일 고성…50개국 1500여명 참가

한국스카우트연맹 소속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회장 최종규)가 '제24회 아시아태평양잼버리' 및 '제11회 한국잼버리' 기간 동안 불교관을 운영한다.

8월 5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잼버리'는 50여개국의 1천 5백명 가량이 참가하는 대규모행사로서, 각 나라를 알리는 다양한 문화 · 행사들이 펼쳐진다.

지난 2002년부터 '한국잼버리' 기간동안 불교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는 다양한 문화 · 체험행사들로 한국 전통의 불교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또한 단주, 연꽃등 만들기, 예불, 108배하기 등 신행활동 체험장을 별도 운영,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상담코너는 청소년들의 이성문제, 진로문제 상담 등을 진행, 보다 쉽고 가까운 생활불교의 모습을 각인시킬 계획.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 지도법사 청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불교관 운영은 물론 7일에는 지도자들은 위한 '불교인의 밤' 행사를 통해 청소년 포교 활성화 방안들도 모색하고, 8일에는 연합대법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011-9768-9551

김은경 기자

'미르치과' 나눔의집 4호점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들의 투병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나눔의 집' 이어가기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 스님)는 7월 10일 광주 상무지구에 자리한 미르치과에서 나눔의 집 4호점 개설 기념식을 개최했다.

소아암 환우가족과 미르치과 직원 등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미르치과 류경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눔의 집 운동을 통해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이 모두 완치되는 날까지 병원 식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 미르치과 직원들은 그동안 모아온 헌혈증서 600매와, 정성껏 접은 종이학 유리병을 소아암 백혈병 환우들의 모임인 빛고을 동우회에 전달했다.

광주=이준엽 기자

광주동구불교련 창립

광주 동구지역 사암들의 연합모임인 광주동구불교연합회(가칭)가 창립된다.

진화(증심사), 석장(문빈정사), 정선(대광사), 행법(선덕사), 일광(자비정사), 지각 스님(동원사) 등 무등산 동부지역 20여 사암 주지스님들은 7월 23일 모임을 열고 연합회 사업안, 회칙 등을 확정한다. 광주 동구불교연합회는 종단을 초월한 범 불교승가단체로 △동구불교 활성화 △무등산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문화축제 운영 △불교대사회활동 전개 등을 펼쳐 나간다.

이준엽 기자

생명살림불사 추진위 발족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이하 인드라망) 생명살림불사 추진위원단(공동위원장 원행 · 정덕 스님, 백남석) 발족식이 8월 7일 오후 4시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1부 도법 스님의 즉문즉설 법회, 2부 발족식으로 진행된다.

100명으로 구성될 추진위원단은 생명살림불사 기금 마련 및 홍보, 친환경 쌀 공양미 올리기 운동 등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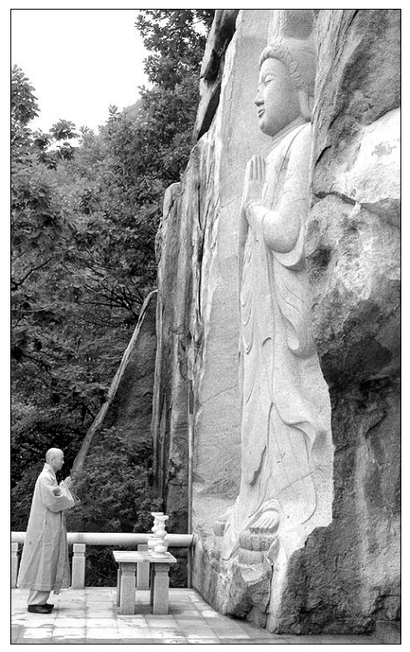
강유신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양주 백화암

문화 · 교육 · 봉사 3박자 척척

4년 불사로 마애불 조성 국제 가면무축제 열기도



백화암 마애부처님 앞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주지 보은 스님.

경기도 양주 불곡산은 마애삼존불의 호위를 받고 있다. 높이가 10여 미터에 이르는 거대 마애불은 4년간의 불사 끝에 조성된 양각형태의 아미타 삼존불. 암벽을 깎아 고부조 형태로 제작한 불곡산 마애불은 바라보기조차 송구할 정도다. 웅장함에 저절로 외경심이 들 정도다.

이 같은 마애불 불사에 뛰어든 도량은 불곡산 백화암(주지 보은). 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한 백화암은 최근 문화도량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보은스님은 1997년 백화암 주지로 부임한 이래 다양한 불사를 추진하면서 '살아있는 도량, 거듭나는 도량' 건설에 매진해 왔다. 천년고찰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지켜나갈 것, '지금-여기' 사부대중들의 불심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하며 백화암을 이끌었다.

백화암의 마애불 조성불사는 그 같은 스님의 원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스님은 우연히 불곡산 중턱의 바위를 발견하고 마애불을 조성하겠다는 꿈을 키웠다. 이후 국내는 물론 중국 등지를 오가며 불상을 연구했다. 탐방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는 이를 조각할 불모(불모)를 찾아 수개월간 전국을 누볐다. 마애불 불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열정은 식지 않았다. 조성비(조성비)를 새길 바위를 물색하며 4년 더 고민했다. 삼존불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제대로 품을 수 있는 바위여야 했기 때문이다.

백화암에서 '국제 민속 가면무 축제'가 열린 것도 보은 스님 원력 때문이다. 산사음악회 등의 축제를 넘어서 특색 있는 문화의 장을 펼치고 싶었다. 그래서 아시아 6개국 20여명의 예술인들을 초청해 지난 6월 12일 가면무 축제를 열었다. 대진대학교 무용예술학부 교수 및 학생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어우러지는 대동의 무대는 각계각층의 주목을 받았다.

백화암은 이밖에도 교양대학을 통한 모범적인 신도 교육으로 정평이 나 있다. 5기까지 배출한 교양대학에서는 기본적인 불교 교리 지도는 물론이고,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결성해 양주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철저한 교육과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 '1당백' 하는 신도들이 되었으며 백화암의 불자양성 교육과정은 다른 지역 사찰들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

더 나은 문화도량을 꿈꾸는 백화암 사부대중의 발원은 끝이 없다. 5월 4일 점안된 마애삼존불이 전국 각지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귀의처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백화암에서 시작한 민속 가면무 축제가 국민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들이다. (031) 840-1582

강신재 기자

"파도 소리와 함께 번뇌 씻어내자"

고흥 거금선원 여름수련회 '섬사찰' 특징살린 내용 풍부

산의 '멋'과 바다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산사수련회가 개최된다.

전남 고흥 거금도에 위치한 거금선원(선원장 일선)은 7월 29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한다. 청소년 이상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회당 3박 4일간 열리며, 참가비는 일반인 9만원, 청소년 5만원.

이번 수련회는 '좌선', '발우공양', '묵언수행', '선 체조' 등 일반 사찰에서 진행하는 수련 프로그램은 물론 바닷가에 위치한 특징을 살린 '파도소리 관하기', '몽돌 해수욕장 행선'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파도소리 관하기'는 바닷가에서 직접 좌선에 들어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사찰수련 프로그램과는 다른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일선 스님은 "기존의 산사 수련회와는 다른 바다와 산이 어우러지는 수련회를 준비했다"며 "참가자들이 자연 속에서 '참 나'를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061)842-8488

박봉영 기자

제주불교신도회 24일 출범

회장에 김계홍 씨

제주도내 각 사암 신도회를 비롯해 직장 직능 불자회가 참여하는 '제주불교신도회'가 7월 24일 출범한다.

이날 제주불교신도회는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에서 도내 각 사암 스님과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제주불교신도회는 종파를 초월한 범 불교재가신도회로 산하에 포교교육, 생활경제, 사회문화, 환경, 사회복지, 여성, 호법, 청년지도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두고 포교와 재가불자들의 수행 공동체를 이끈다.

한편 제주불교신도회 지도법사단은 창립법회에 앞서 초대회장으로 김계홍 前 북제주군수를 선출하고 상임부회장에 문인종 전 분다클럽 총회장을 위촉했다. 이밖에 홍영선 제주불교사회봉사회 회장, 김성수 한라병원 원장, 김인희 전 제주불교관음클럽 회장, 최영범 정우식품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위촉했다.

이준엽 기자

평창 월정사 불교대학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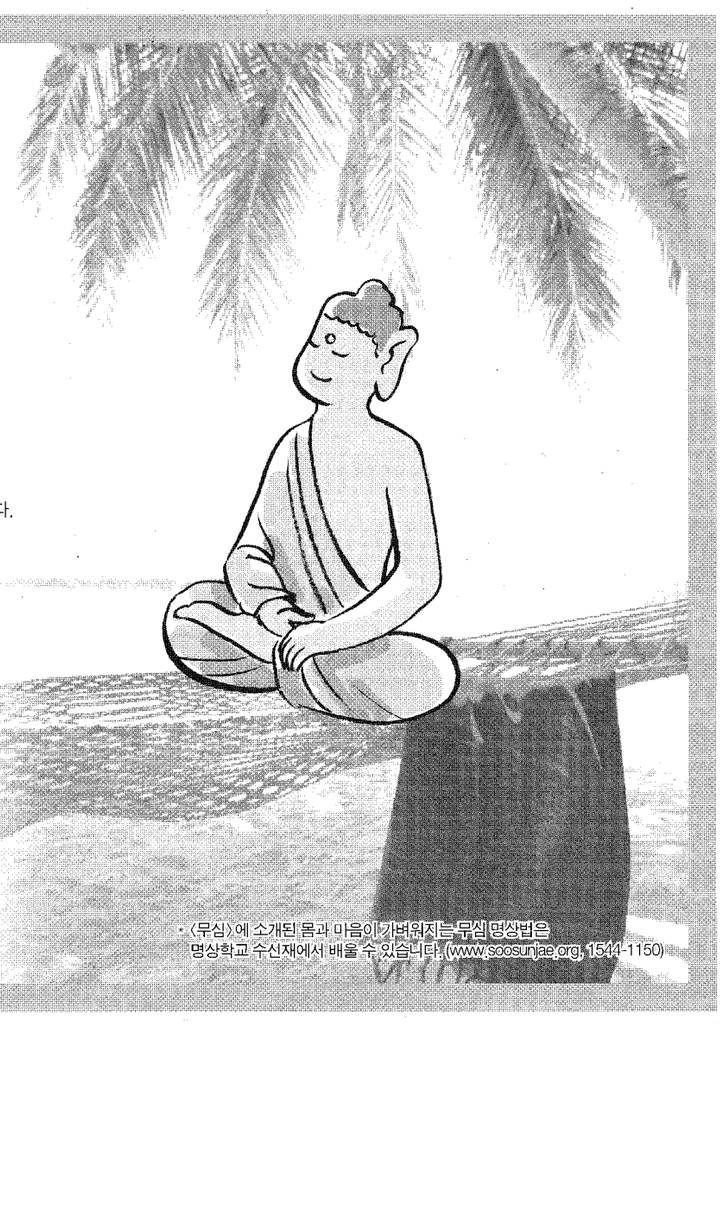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신도 지도자 육성을 위해 9월 4일 불교대학(학장 원행)을 개설한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불교대학은 불교교리, 불교사, 선의 이해와 실참 등 필수 과목과 자원봉사론, 원각경 강의 등의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성적우수자에게는 장학금도 지급. (033)332-6664~5

남동우 기자

부처는 웰빙족이었다?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 ! 〈SBS-TV〉 "오픈스튜디오", 〈MBC-TV〉"즐거운 문화읽기" 등 20여 언론에 보도된 화제의 베스트셀러 !



선방에서 화두잡고 앉아 무념무상에 빠지는 것만이 무심?
유기농과 스파 갖춰놓고 잘 먹고 잘사는 게 웰빙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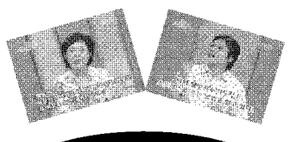
소프라노 조수미의 긴 손톱에 담긴 자유로움!
아름다운 죄, 사랑을 혼내주는 방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광해군이 18년 동안 유유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망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치지 않고 쌩쌩하게 일하기!
수치심을 벗으면서 얻는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 가듯 죽는 방법!

부처님처럼 웰빙하는 통쾌하고 시원시원한 마음 명상법,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이 알려드립니다!

명상마을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루이 명상 지도자이다.
충북 진천의 명상마을 '멍상아루이 수선대'에서
별과 바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상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MBC-TV & SBS-TV "오픈 스튜디오" 교재!

책 이 름 : 무심(無心) · 사람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나
저 자 : 문 화 영
가 격 : 9,000원

도서출판 수선재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74-1, 2층
TEL 02)391-9315 FAX 02)391-9314
WWW.SOOSUNJAE.COM

* 〈무심〉에 소개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무심 명상법은 명상학교 수신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www.soosunjae.org, 1544-1150)

새싹 기르며 공부·봉사 "희망 합창"

충남 천안·당진

천안 절마다 공부모임 개설…30대 학구열 후끈

당진 강한 기독교세 옛말…특성화된 포교 정착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는 천안 부루나 어린이집 원장 광현스님. 부루나 어린이집은 천안에서 가장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인정받고 있다.



풍물연습을 하고있는 당진 흥국사 수미어린이집 아이들. 수미어린이집 풍물패는 지역행사에 빠지지 않고 초청될 정도로 탄탄한 실력을 자랑한다.

젊은불교, 공부하는 불자

"불교대학 때문에 천안불교가 많이 달라졌다고들 합니다. 특히 우리 불교대학 학생들의 40%가 30~40대 입니다. 젊은층이 많이 늘었지요."(각원사 부주지 대원 스님)

"확실히 젊어졌어요. 우리 절 신도들도 30~40대가 절반을 넘어요. 제대로 배우고 신행하겠다는 자세도 대단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사찰 일에도 적극적이고요."(성불사 주지 원경 스님)

"서로 뜻이 맞아요. 여름과 겨울 불교학교도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엽니다.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스님들께 감사할 따름이죠."(천불사 주지 · 사암련 기획실장 부불 스님)

젊어진 신도들, 흥에 겨운 스님들. 마치 한바탕 축제를 벌이고 있는 느낌이다. 천안불교가 그렇다. '손발이 맞는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듯 하다. 스님과 스님들, 스님과 신도들, 신도와 신도들의 호흡이 척척 맞는다. 자연히 활동도 활발할 수밖에. 이렇게 천안불교가 달라진 것은 최근 4~5년 전부터. 그렇다면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스님이 잘 생겨서 그렇지요." "법문을 잘해서 그런가?" "우리 스님들 복이지 뭐."

웃으며 건네는 농담. 천안 스님들은 여유가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악착같은 노력과 고집이 있다. 천안의 스님들은 자기 자신과 신도들을 믿는다. "그래, 어디 한 번 해(천안불교를 일으켜)보자."

3년 전 각원사에 천안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대학이 개설되자 젊은 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스님들 사이에서 내 신도 네 신도 할 것 없이 제대로 가르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3기생 130여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불교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40%가 30~40대. 50~60대가 신도층을 형성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신행도 적극적이다. 아예 동문들 간에 자원봉사회(정진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활동한다.

성불사의 참선 모임인 '선우회' 구성원은 30~40대가 절반을 넘는다. 2년 전 만들어진 선우회는 참선공부는 물론 자원봉사도 열심이다. 합창단과 풍물패에서도 50대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30~4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천불사 거사회와 합창단 역시 신행과 지역 활동 모두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광덕사는 올해부터 3개월 과정의 '기초교리 불교대학'을 개설했는데 수강자가 몰려 비좁은 강의장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낸 신도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물론 수강자의 70%가 30~40대다. 매월 한차례씩 모임을 갖는 '참선법회' 신도들 가운데에서 아예 50대 이상은 없다.

법수사, 약천사, 도광사, 쌍용선원, 안양암 등 많은 사찰들에서도 젊은 신도들이 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어느 사찰엘 가든 '젊은 불교, 공부하는 불자' 분위기가 확연하다.

사암련 활동이 왕성한 것도 천안불교의 자랑. 2003년 시내에 부루나 어린이집이 개원하자 사암련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을 정도로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있다. 천안 사암련은 최근 기획, 총무, 재무 등 7개 부서에 문화, 환경, 인권, 복지 등 8개 부서를 신설, 모두 15개 부서로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활동폭을 대폭 넓혔다.

사암련 결성 움직임 '솔솔'

"당진에도 불교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앞으로 두고 보라."

그동안 압도적인 기독교세에 눌려 숨쉬기조차 쉽지 않았던 당진의 사찰들. 하지만 일부 사찰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흥국사, 보덕사, 영랑사 포교원, 정토사, 영탑사 등 당진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들은 어린이, 복지, 신행단체 포교 등 사찰별로 분야를 특성화해 활동하면서 차근차근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사암연합회가 없다는 점. 그러나 이들 사찰들을 중심으로 사암연합회 결성의 필요성과 이를 기반으로 지역불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당진불교의 발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천안 · 당진=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돋보기

각원사



각원사의 통일기원 청동대불

천안의 진산으로 불리는 태조산에 위치한 대사찰.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한 청동대불로도 유명하다. 국내 목조 대웅보전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대법당을 비롯해 천불전, 설법전 등의 전각들이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움을 뽐낸다. (041)556-1425

성불사

고려시대에 창건된 천안의 고찰. 절 모퉁이에 흐르는 계곡의 잔잔한 물소리와 독경소리가 어우러질 때면 불국정토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옛 고찰의 면모를 되살리기 위해 아라한전 건립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041)565-4567

광덕사

천안에서는 주변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과 울창한 숲, 그리고 사찰이 어우러진 모습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신라 때 창건된 사찰로 철원 심원사, 고창 선운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지장도량이다. (041)567-0050

천불사

매월 음력 5일이면 '큰 스님 초청법회'가 열리는데, 이 때에는 전국에서 불자들이 모여든다. 주변에 독립기념관과 3 · 1운동 역사의 현장인 아우내 장터가 있어 자녀교육은 물론 휴식을 겸해 가족끼리 찾기에 좋은 사찰이다. (041)557-3223

흥국사



흥국사 전경.

700여 평의 넓은 마당을 지나면 잘 조각된 듯한 예쁜 전각들이 방문객을 맞는다. 뒷산은 편안하면서도 포근함을 준다. 이런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는 수미 어린이집은 당진 불교의 자랑거리다. (041)362-6008

보덕사

절벽에 세워진 절로 층별로 조성돼 있는 것이 특이하다. 1층에서 보면 3층 요사채와 그 위의 법당과 종각이 보이지 않는다. 절이 자연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당진군 석문면에 위치. (041)353-9306



법인 스님



대원 스님



부불 스님



원경 스님



법수 스님

천안·당진 불교를 이끄는 주역들



원율 스님



광현 스님



법공 스님



정안 스님



선오 스님

천안불교 '새바람' 초석

법인 스님 (천안 각원사 주지)

천안불교의 정신적 지주. 남북통일을 기원하고 불법을 세상에 널리 펴겠다는 뜻에서 1977년 각원사를 창건하고 지역 포교에 나서면서 천안불교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앞서 2년 전에는 일본 동경에서 명월사를 창건하고 재일교포 포교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며, 지금도 주로 명월사에서 주석하면서 해외포교에 주력하고 있다.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정도로 선과 교를 두루 겸비한 스님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암련·경승 등 전방위 활동

대원 스님 (천안사암연합회 회장)

천안불교를 이끌고 있는 리더. 천안사암연합회를 조직하고 4대 회장에 이어 현재 6대 회장을 맡으면서 천안불교 발전을 위해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사찰들의 단합을 위해 애쓰면서 사암련 차원의 지역 축제 개최와 불교회관 건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천안경찰서와 천안시청 불자회를 창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천안경찰서 경승과 천안 개방교도소와 소년교도소 교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달 큰스님 초청법회

부불 스님 (천안 천불사 주지)

천안불교의 '엔진'이다. 9년간 사암련 기획실장을 맡아 오늘의 천안불교와 사암연합회를 일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1년 전 천불사를 창건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큰 스님 초청법회'를 열어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했다. 충남 청소년 쉼터 원장, 천안사회복지협의회 자문위원장, 천안개방교도소 종교교화위원 등 지역에서 맡고 있는 직함만도 10여 개. 병천면에 불교종합타운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안경 보시 3천개, 인기 '짱'

원경 스님 (천안 성불사 주지)

활발한 포교활동으로 천안불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다가가는 불교, 봉사하는 불교'가 가장 좋은 포교라는 신념 아래 천안시 26개 읍 · 면 · 동을 찾아다니며 6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3천개의 안경을 보시하고, 해마다 경로잔치를 여는가 하면 독거노인돕기 행사를 통해 지역 노인복지에 기여했다. 작년부터는 산사음악회를 열고 문화포교에도 나서고 있다. 소탈한 성격에 법문을 재미있게 해서 신도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담없는 절의 '아저씨'

법수 스님 (천안 법수사 회주)

법수사가 위치한 목천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아저씨. 법수사에는 담이 없다. 누구나 자유롭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이들 놀이터도 되고, 마을 주민의 모임터도 됐다. 6년 전 법수사를 창건하고, 매년 11월 동학혁명군 전몰지역인 세성산에서 위령제를 지내면서 지역민들과 가까워졌다.

시민위해 참선법회

원율 스님 (천안 광덕사 주지)

작년 이맘때 광덕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침체에 빠져있던 광덕사를 활기찬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시민들을 위한 참선법회를 열고 있고, 또 스님들을 위한 선원을 개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수행처로 명성이 높았던 옛 광덕사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돕기와 결식아동을 위한 후원에도 적극적이다.

어린이 포교의 선두주자

광현 스님 (천안 부루나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 포교야말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가꾸는 일입니다" 2003년 6월 천안에서는 처음으로 불교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그것도 정년퇴직한 아버지의 퇴직금을 털어서. 아버지에게는 미안하지만 열심히 어린이 포교하는 것이 부처님과 아버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천안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천안 지역 어린이 포교 중흥의 중책을 맡고 있다.

지게지고 돌 나르며 불사

법공 스님 (당진 흥국사 주지)

지금까지 21년간 여름불교학교를 열어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세월. 8년 전 당진에서 처음으로 불교 어린이집(수미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지금 당진에서 가장 훌륭한 어린이집이라는 평판을 얻는데 성공했다.

25년 전 직접 지게를 지고 돌을 나르며 폐사지나 다름없었던 흥국사를 어엿한 사찰로 일궈냈다. 학생회 · 청년회 등의 법회를 알차게 운영하고 있으며, 결손가정과 자매결연을 맺고 불우 노인들을 후원하는 등 지역 복지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렇게 살다보니 어느덧 지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스님이 됐다.

당진 불심의 중심 역할

정안 스님 (당진 보덕사 주지)

절벽 한복판에 다 쓰러져가는 요사채 한 채만 남아있던 절.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했다. 23년 전, 보덕사에 온 첫날부터 목탁을 치며 3년간 정근을 했다. 그러면서 법당이 지어지고, 법회장(심검당)도 생기고 종각도 만들어졌다. 보덕사는 그렇게 아름다운 절로 다시 태어났다.

당진경찰서 경승실장과 경찰 불자회 지도법사를 맡으면서 지역불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당진의 불자들은 정안 스님을 훌륭한 스님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연꽃기르듯 수행·포교

선오 스님 (당진 정토사 주지)

4년째 지역민들을 위한 '효도잔치 및 군민발전기원법회'를 열어 기독교세가 강한 당진 지역에서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97년 아미산에 정토사를 창건하고 사찰 신도들로 자원봉사팀(좋은 인연)을 구성해 지역 복지에도 나서고 있다. 연꽃에도 관심이 많아 3천여평 규모의 연꽃 재배지를 조성해 놓았다.

'불교인성교육원'을 세워 사회를 맑고 밝게 하는데 일조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무늬’ 만 종단…불교위상 떨군다

현재 불교 종단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소속된 25개 종단이 활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새 군소종단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 2백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실을 갖추지 못한채 난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체성이 모호한 종단이 많다는 것이다. 사찰간판을 건 ‘점집’이 있는가 하면 스님이 역술행위를 포교의 방편으로 삼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지적을 받는다. 이에따라 무분별한 종단난립을 방지하고 종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종단 난립의 실태와 개선해야 할 점,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우후죽순 종단 이대로 좋은가?

① 정체성 모호한 종단 많다
② 승려양성 · 수계체계 강화 시급하다
③ 내실 있는 종단으로 거듭나자

사찰간판 건 ‘점집’ 역술행위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순례 씨(39)는 최근 집 근처의 ‘대한불교○○종 ○○사’라고 쓰인 포교당을 찾아갔다가 10여 분만에 나와 버렸다. 삭발염의한 스님이 “사주에 마가 끼었다”며 수백만원을 들여 제사를 지낼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평소 들어본 바 있는 종단의 사찰이어서 믿음을 갖고 갔는데 ‘역술’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분개했다.

‘△△사’에 다녔던 김진희 씨(56 · 서울 용산구 이촌동)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주지 스님은 잘 알려져 있는 ‘△△종’이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그 종단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신도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종’에서 멸빈당한 상태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에는 이 같은 사례가 한 달에 2~3건씩 접수된다. 각 종단으로 연락하거나 아예 연락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런 경우는 더 많다는 얘기다.

실제로 종단협에 가입돼 있는 25개 종단들은 일명 ‘점집’이 소속 종단의 사찰간판을 내걸고 정법과는 거리가 먼 역술행위 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다. 사찰등록과 승려분한신고, 각종 증명 발급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이 종단 재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종단에서 징계를 당하거나 ‘비위승려’로 지목돼 탈종한 이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몸집’을 불리는 경우도 있다.

유력종단과 유사한 이름 걸기도

유력종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과 종지(宗旨)를 뚜렷이 내세우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는 종단이 최근 몇년새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단설립 신고가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1990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인 조계종과 유사한 ‘○○불교 조계종’ 또는 ‘조계○○종’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20여 곳에 달할 정도다. 종단 명의를 특허 출원하는 등 유력종단들이 자구책을 마련한 이유도 종단을 참칭해 불자들을 현혹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신생종단의 경우 형식적인 조직체계만 갖췄을 뿐 종단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소속 사찰수나 종도가 극소수고 운영 · 수계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1사찰 1종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명목상의 종단 뿐인 곳도 있고, 10여 사찰로 종단을 설립해 소속 승려 모두가 종무기관 직책을 나누어 맡기도 한다. 교학 · 교상의 차이보다는 사찰과 승려 개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종단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종단 난립 불교계 공동 대응해야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불교 전체와 전통있는 종단에까지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되는 사찰과 종단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종단으로 옮기거나 아예 개종을 고려하는 불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종단의 정체성 확립과 승려자질 향상, 무분별한 종단난립 방지 등 종단의 건전성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선 정체불명의 신생종단 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범종단적 연대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단협과 같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탈법적으로 이뤄지는 반불교적인 행태를 감찰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각 종단에서도 승려양성 및 수계체계 강화, 사찰 또는 스님의 가입심사제 마련, 역술행위 등에 대한 감찰 강화, 종단별 피해접수처 운영 및 피해사례집 발간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앞서 이를 시정하려는 각 종단 집행부의 의지와 종단내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용 우리는선우 이사장(건국대 교수)은 “종단의 정체성이 의심받는다는 것은 종단은 물론 불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이는 결국 불교와 종단이 우리 사회에서 도태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각 종단 스스로 자기정화를 통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종단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등을 통해 신뢰받는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대승종 총무원장 혜심스님 취임

대승종은 7월 14일 성남 분당 뉴타운웨딩홀 5층에서 제9대 총무원장 혜심스님(홍천 실상사)의 취임법회를 열었다. 3백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혜심스님은 종단 화합과 종지종풍 진작을 골자로 한 쇄신책을 제시했다. 취임사에서도 “종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종책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종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작고 알찬 종단’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법화종 창종 58주년 법회 봉행

법화종은 창종 제58주년을 맞아 7월 15일 서울 총무원 3층 대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운명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의장 수봉 스님, 중앙종회 의장 법륜 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직무대행 혜륜 스님은 봉행사에서 “그동안 종단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참회와 개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종단 화합과 도약, 나아가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하여 종도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종단소식

총화종 “홈페이지 오세요”

총화종 인터넷 홈페이지가 기존의 도메인 네임인 www.chonghwajong.org와 http://chonghwajong.org 외에도 ‘총화종’ 또는 ‘대한불교총화종’ 등 한글로 접속이 가능해졌다. 또 www.chonghwajong.net으로도 접속할 수 있다.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최근 한달여간 홈페이지 접속이 안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종단의 주요 행사를 비롯해 소식, 소속 사찰 안내 및 행사 등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나가겠다”고 말했다.

종도연수 일정 확정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7월 8일 서울 총무원에서 중앙간부회의를 열고 종도 연수교육 및 기타 종단 현안을 논의했다. 종도 연수교육은 10월 17~20일 언양 중앙교육원에서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중 사미 · 사미니 수계법회를 열기로 했다. 또 10월 22~27일 중국 성지를 찾아 순례행사를 갖기로 결의했다.

총지종 49일 불공 회향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5월 28일부터 전국 사원에서 진행해온 하반기 49일 불공을 7월 16일 회향했다. 이날 부산경남교구와 대구경북교구는 하반기 49일 불공의 공덕을 뭍중생에게 회향하기 위한 방생법회를 합천댐 용문정과 함양 농월정에서 각각 봉행했다.

울릉도에 문화체험 무대 선다

진각종, 8월 9~12일 회당문화축제

진각종이 주최하는 제4회 회당문화축제가 8월 9~12일 울릉도 일대와 도동항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진각종 통리원 문화사회부가 주관해 울릉도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및 지역 문화복지증진 일환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9일 영화상영을 시작으로 각종 공연과 체험 마당이 3박 4일 동안 펼쳐진다.

10일에는 도동항에서 울릉도 지역발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풍등날리기 행사와 트로트 한마당, 국악공연 등 개막을 알리는 무대가 마련된다. 본행사가 열리는 11일에는 ‘무진서원, 새 생명의 희망’을 주제로 타악 퍼포먼스 공연, 불꽃놀이, 영상레이저쇼, 가수 정태춘씨 공연을 비롯해 풍등 및 단주 제작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행사가 열린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는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주관의 청소년 국토순례대행진과 진각종 신교도 대상으로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 탄생지 금강원 순례법회도 함께 진행된다. 또 축제 기간 중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과 (사)열린의사회 주관으로 울릉도 도동, 저동, 남양, 북면 등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진각종은 전야제와 본행사 등 회당문화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진각종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할 계획이다.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회성 정사는 “종단에서 지향하는 문화종단으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종단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천태종 중앙청년회 새 집행부 구성

천태종 중앙청년회 제16대 남정락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7월 16일 구인사에서 취임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신임 집행부는 앞으로 조직 활성화와 천태종 산하단체간 연대 강화, 청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환경운동 참여, 청년회보 발간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남정락 신임 회장은 “침체기에 있는 청년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회의 활동을 신행활동 중심에서 사회참여 확대 등 참여 중심으로 다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남정락(부산 삼광사) △부회장 김철진(마산 삼학사), 장필욱(춘천 삼운사), 박병렬(삼광사), 임미진(울산 정광사) △총무부장 김형근(충주 삼충사) △교무부장 김상덕(대전 광수사) △재무부장 이정미(서울 관문사) △사업부장 정성돈(삼광사) △기획부장 강태영(포항 항해사) △동원부장 배기남(진주 월강사) △조직부장 제인호(고성 보성사) △홍보부장 김세훈(서울 삼룡사) △섭외부장 오세창(대구 대성사) △문화부장 김승태(삼운사) **박봉영 기자**

古新堂 활성生황토

사찰 실내 황토페인트 · 바닥재의 대혁신!

환경친화성 결착제 개발로 갈라짐 현상이 없는 완전 무공해 **활성생황토** 페인트 및 바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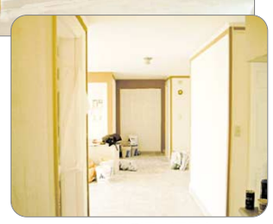


활성생황토의 효능

■ 원적외선 방출
·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항곰팡이 효과 · 항균 방충 및 냄새 제거 효과
· 원적외선에 의한 혈액순환 촉진(바닥재) · 습도조절 및 단열보온 기능 · 유해 전자기파 차단

■ 천연소재를 이용한 활성생황토는 탈취능력이 탁월하다.
·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각종 건축자제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포름알데히드(HCHO) 각종 오염 물질들이 발생하며, 활성생황토는 이러한 물질들을 흡착하여 아토피성 피부염, 두통 등 각종 질환을 예방.

■ 습도 조절능력이 탁월하다. (동절기 습도조절능력 탁월)
· 황토는 외부가 습하면 수분을 흡수하였다가 외부가 건조해지면 수분을 방출하는 특성이 있다.
· 본 활성생황토 제품을 상대습도 80%의 실내에서 36시간 후 수분 흡수량이 192g㎡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습도는 20%의 실내에서 흡수한 수분을 약 71%를 대기중으로 방출하였다.



활성생황토 시공모습

이런 분들에게 활성생황토 제품을...
시간에 쫓기는 바쁜 현대인, 노약자, 산모, 알레르기 환자, 수험생의 수면부족 및 체력유지, 숙취감 해소

활성생황토를 이용하여 이제는 쉽게 바르세요!!
엄선된 생(生)황토에 나무에서 얻어진 자연섬유질과 순수한 물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천연 건축용 내장 페인트입니다. 갈라지고 쉽게 떨어져 시공이 불가능 하였던 황토, 이제는 도배보다 쉽고 빠르게 특별한 기술 없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석고보드, 합판 등 구조재 종류에 관계없이 바닥 벽체 천정에 미장 혹은 도장(칠)가능 합니다.

칠칠工營 合資會社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냄새제거 시스템시공
세계최초 “通風 되며 防水”시공 ·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5-2 한비B/D 4층 대표전화 042)2427-007 / 011-9413-6000 / 팩 스 042)2427-009
http://www.ks7700.co.kr E-mail:ceo@ks7700.co.kr

敎宗本刹奉先寺
http://www.bongsunsa.net

2004 봉선사
광릉수목원 연꽃축제

연꽃 그 물들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불교의 상징인 자비희사의 정신을 표현하는 연꽃을 통해 함께하며 나누는 아름다움을 이웃에게 전하는 행사가 될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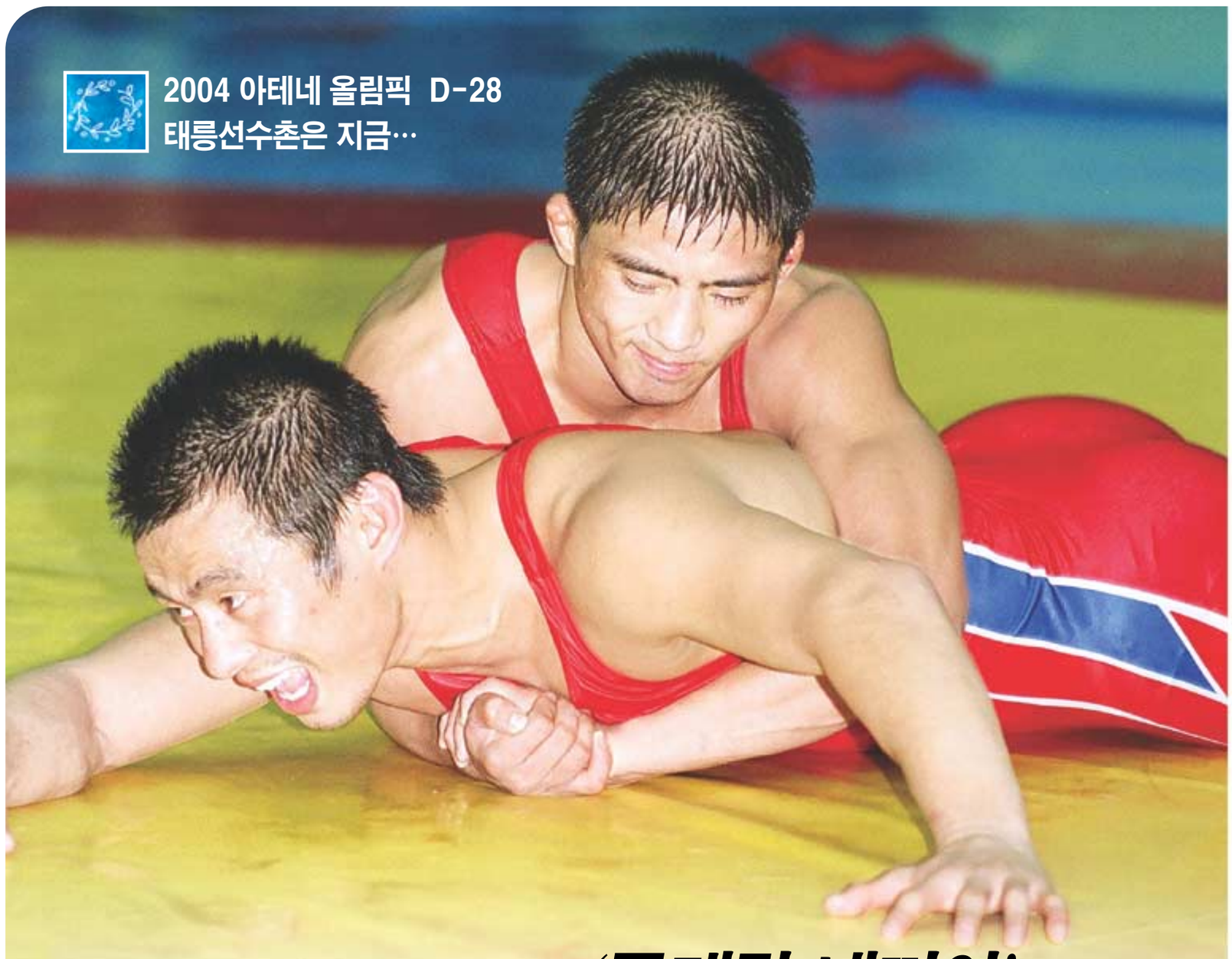
· 기 간 : 2004년 7월 24일(토) ~ 25(일)까지
· 장 소 : 봉선사 - 수목원
· 주 최 : 봉선사, 조계종 종무원
· 주 관 : 연꽃축제 봉행위원회
· 후 원 : 봉선사 신도회, 광릉수목원, 남양주 구리시 사암연합회, 천수천안 봉사단, 불교방송, 불교신문, 불교TV, 남양주시청, 구리시청
· 문 의 : 봉선사사무실 ☎ 031)527-1951-3 홈페이지 http://www.bongsunsa.net 한글도메인 : 봉선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시방세계
十方世界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2004 아테네 올림픽 D-28
태릉선수촌은 지금…

불심 돈독 · 심신 단련 '금메달 내꺼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일면 스님(세번째)이 7월16일 태릉 선수촌을 찾아 불자 선수들을 격려했다.

 # 훈련전후 마음다스리기에 명상이 최고

올림픽 D-28. 2004 아테네 올림픽이 코 앞으로 다가온 7월 16일 태릉선수촌 레슬링장. 금메달 2개를 목표로 하는 레슬링 대표팀의 훈련이 한창이다.

천정에 늘어진 밧줄을 타고 오르는 밧줄타기훈련을 하느라 선수들의 전신에는 땀방울이 흥건하다. 한달도 남지 않은 올림픽 진격을 위해 본격적인 시차적응 훈련에 들어간 요즘에는 야간훈련으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낸다. 올림픽 레슬링 경기가 한국시간으로는 자정을 전후해 열리기 때문이다.

훈련 전후로 레슬링 국가대표 임대원 선수는 명상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린다. 가끔 염불테이프를 듣기도 한다. 절에 가서 목탁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지만 절에 항상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즐기는 방법은 명상음악 듣기. 불자인 임 선수는 늘 마음 속 부처님에게 기도한다.

"딴 생각하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죠. 물론 금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결전의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태릉선수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높아간다. 훈련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선수들의 땀방울은 더욱 굵어지고 기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불자 선수들은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조용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부처님의 말씀 아래 정신을 집중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 참선하며 집중력 익혀… 업어치기 '한 판'

유도장에서 대련을 준비하는 이소연 선수(유도 -78kg). 대련에 앞서 가부좌를 틀고 조용히 정신집중을 한다. 경기 하루 전날 대진표가 나오는 유도선수들에게 순간적인 집중력은 필수요소. 법회에서 스님에게 배운 참선을 요긴하게 이용한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마음 속으로 상대 선수에 대한 분석이 기민하게 이뤄진다. 이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하진 못하지만 동료들을 위해 훈련 파트너가 되어준 선수들과 함께 기술연마를 하며 기량을 닦는다. 한마음불자회의 정기 수요법회에 두 번 참석해 본 초보 불자 이복희 선수(유도 -63kg). 8월 6일 아테네로 출국하는 이 선수는 긴장감을 풀기 위해 정 코치를 따라 불암사 법회에 참석하게 됐다.

"절에 와보니까 1주일 동안 훈련하느라 힘들었던 감정들을 떨쳐내고 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마음 속으로 다짐하게 돼요."

이 선수도 시합 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다. 짧은 시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법회에서 배운 참선.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잘은 모르지만 조금씩 배워가며 편안한 부처님 품을 느끼고 있다.

前 한마음불자회 장정숙 유도코치는 선수생활을 하면서 법문을 듣고 염불 참선을 배운 것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절에 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정 코치의 영향으로 선수촌 입촌 후 불자가 된 제자 선수도 여럿이다.

 # 법장 스님 '원력 세워 최선 다할 것' 당부

이날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열중하는 틈틈이 신행생활을 병행하는 불자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사회부장 지원 스님,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등이 태릉선수촌을 찾았다. 훈련하는 선수들을 지켜본 법장 스님은 선수들과 점심공양을 같이 하며 "각자 원력을 세워 최선을 다해 정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남은 것은 마음껏 기량을 펼칠 그날을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다. 긴장으로 제 기량을 발휘 못하는 일이 없도록 훈련과정에서 실시하는 명상은 중요한 훈련 코스.

올림픽 출전 사상 최대의 금메달 13개를 목표로 선수들은 장맛비 속에서도 심신을 단련하며 마음다스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불자 선수들이 불심으로 일구어낼 금메달이 기다려진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인 터 뷰

한마음불자회 회장
김인섭 선수



국가대표 불자 선수들의 모임인 한마음불자회(회장 김인섭)는 최근 남양주 불암사(회주 일면)에서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레슬링 국가대표 김인섭 선수를 새 회장으로 맞아 매주 법회를 갖는 등 달라졌다. 태릉선수촌 내 법당을 벗어나 산사에서 스님 법문을 듣는 법회방식을 선택한 것. 법회가 끝나면 스님과 다담(茶談) 시간도 가지며 훈련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있다.

"법회에 참가하면 매트서 배우지 못한 것을 많이 배웁니다.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랄까 기준이랄까 부처님의 말씀은 저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것 같습니다."

회장 김인섭 선수(레슬링)는 1년동안 중단했던 법회를 다시 시

선수촌 법당 벗어나 산사서 법회 열어
"불자회 통해 모든 선수 포용하고 싶어요"

작하는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 결성된 한마음불자회는 태릉선수촌 내 법당이 생기면서 수덕사 및 중앙승가대학 학인스님을 번갈아 법사로 모시며 법회를 꾸려왔다. 출석점검조차 하지 않는 불자회이지만 부처님 품에서 쉬어 가고 싶은 모든 선수들을 포용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인섭 회장은 "일면 스님께서 '100m를 9.6초에 뛰는 세계 신기록 보유 선수가 11초에 뛰는 것은 자랑스럽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이 20초가 걸려도 최선을 다해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한 말씀을 회원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며 "올림픽 금메달과 함께 인생의 금메달도 따겠다"고 다짐했다.



매주 수요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법회를 보는 태능선수촌 불자 선수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여름 특별기획안내 (호화유람선으로 하는 중국여행 및 사찰순례)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화요일 출발
• 천진. 북경 7일(피운사,와불사,옹화궁) ₩ 390,000원
• 천진. 북경. 낙양 7일(소림사,백마사,용문석굴) ₩ 490,000원
• 천진. 북경. 오대산 7일(운강석굴,화엄사,현통사) ₩ 590,000원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금요일 출발
• 천진. 북경. 내몽고 8일(호화호특) ₩ 520,000원
• 천진. 북경. 패상초원 8일(포타라궁,보녕사) ₩ 520,000원
◎ 호화유람선 위동페리로 매주 목,토요일 출발
• 청도. 제남. 곡부 6일(천불산 만불동,영암사,잠산사) ₩ 390,000원

요금포함내역 (공통사항)
- 포함사항 : 왕복 선박료, 호텔 (4성, 4성 2인1실), 입장료, 여행자 보험, 항만세, 선내 다인실 기준, 전일정 식사 (선내 포함)
- 불포함사항 : 중국 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사 팁, 개인경비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 5일
₩ 750,000 (8월 4일, 11일, 18일)
● 황산 직항 항공 이용
구화산 2박 - 황산1박 - 상해 1박
● 8월 4일, 11일, 18일 3회 출발
● 각 회차 선착순 40명
● 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외 다 포함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여름특별기획-일터불심 10대 화두

① 일터, 마음 닦는 수행처
② 직장 동료 · 상사 · 후배, 모두를 도반으로
③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 졸고 있습니까?
④ 하루 5분 수행, 인생이 달라진다.
⑤ 스트레스, 불교에 치유법 多 있다.
⑥ 술과 담배 그리고 과식은 신행의 적
⑦ 제대로 불교 믿으면 저절로 부자 된다.
⑧ 한달에 한번 집중 수행 필요
⑨ 틈틈이 읽는 불서, 인생을 풍요롭게
⑩ 인터넷은 신행정보의 보고

바퀴위의 시간 잘 쓰면 힘된다

운전하며 염불 · 대중교통에선 불서읽기
출퇴근길 '수행삼매' 습관 들이면 즐거움



'당신은 하루 동안 바퀴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현대인은 평균 하루 2시간 이상 자동차, 기차 등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면서 보낼 것이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16일에 달하는 시간이다. 직장인들이 알뜰살뜰 챙기는 정기휴가일보다 더 많은 셈이다. 바퀴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마음공부'에 활용하는 일터불자들의 비법을 소개한다.

7월 14일 오전 5시 20분.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장 이탁수 우리은행 부천서지점장(50 · 자광)이 자가용을 타자마자 <천수경>부터 암송한다. 손발은 핸들과 페달에 집중하고, 입은 연신 경전을 왼다. 출근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은 1시간 20분가량. 서울 정릉동 자택에서 경기 부천에 있는 직장까지 이동하면서 이 지점장은 '출근길 수행세계'로 빠져든다. 그가 2년 전부터 실천해온 '출퇴근길 수행프로그램'은 <천수경> 세 번, <반야심경> 한 번 암송. 하루도 빠짐없이 실행한다.

이 지점장은 왜 출퇴근 시간에 수행을 하고 있을까. 대답은 간단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잘 점검해야만 그 수행력이 다음날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대답. 일터에서 '일삼매'에 들어가기 전이나 후 출퇴근 시간은 하루를 준비하고 마감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수행에 쏟음으로써 짬짬이 수행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수행에 탄력이 붙는다는 설명이다.



'하루의 시작이 차분해집니다.'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장 이탁수 우리은행 부천서지점장이 <천수경>을 암송하면서 출근하고 있다. 사진=김철우 기자

"바쁜 업무에 쫓기다보면 마음공부 하기가 힘든데, 출퇴근 시간이 바로 수행하기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자투리 시간쯤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수행의 적기(適期)'라 생각하고 활용해보세요."

감사원 불자회원 고춘화 감사관(58 · 각선)도 '출퇴근 수행' 예찬론자다. 출퇴근 시간이 일일 수행을 차근차근 쌓아 놓을 수 있는 '일터수행의 금고'라 생각한다. 서울 개포동 집에서 삼청동 감사원까지 오는 50분 동안 <금강경>을 독경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 감사관이 출퇴근 수행을 시작하게 된 것은 4년 전 수첩용 <금강경> 법보시 책자를 우연히 집어 들게 되면서부터. 감사원 업무 특성상 잦은 장거리 출장 때마다 <금강경>은 '마음길' 닦는 지침서였다.

"심적으로 든든해요. 두려움과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동료 공무원들의 잘 · 잘못을 지적하는 업무 특성상,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출퇴근 때 <금강경>을 꼭 읽고 있습니다."

그럼, 일터불자들은 왜 출퇴근 시간에도 수행의 고삐를 놓지 않는 걸까? 24시간 늘 깨어있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다. 아침 · 저녁으로 '처음과 끝'을 잘 갈무리해야 그 수행이 하루, 한달, 일년, 평생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의 발원이 평생을 간다'는 셈이다. 또 출퇴근 시간 수행은 가정과 일터에서도 '수행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는 단초가 되며, '일과 수행' 모두 즐겁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아침 · 저녁 출퇴근길이 아주 '특별한' 일터불자도 있다.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다보회원 이일승 기사(60 · 성우)가 바로 그 주인공. 이 기사는 새벽 5시면 서울행 첫 좌석버스를 탄다. 출근은 오전 9시이지만, 4년째 첫차에 몸을 싣고 있다. 경기도 일산 행심동 집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오는 1시간 남짓. 이 기사는 마치 새벽 예불을 위해 대웅전을 향하는 수행자처럼 '관음정근'을 하면서 출근길에 나선다.

"저는 직장을 '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오자마자 빗자루부터 잡고 구석구석 쓸고 닦아요. 또 사내 법당인 '다보법당'에서 예불을 올리기 위해 일찍 나옵니다."

그의 철도인생 25년에 고스란히 스며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하심(下心)이다. 이 기사는 일터를 오가는 길을 바로 '마음 닦는 길'로 여기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차안에서 '조석예불'을 봉행하는 충남지방경찰청 불교회원 청문감사담당관실 엄기용 경사(44 · 선각). 엄 경사는 10년 넘게 매일 오전 7시 20분에 예불문, <천수경>, '충남지방청 불교회 발전 기원문' 등을 승용차 안에서 40분간 올린다.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절을 자주 찾지 못하는 대신, 엄 경사는 '혼자만의 예불'을 봉행하는 셈이다. 특히 엄 경사는, <천수경>은 불교교리핵심, 예불문, 발원, 주문, 진언 등을 총망라한 불자들의 '종합수행서'라며 일터불자들이 출퇴근 시간에 반드시 읽어야할 경전이라고 조언한다. 엄기용 경사는 "아침 예불을 올리고 나면 매번 새롭게 각오가 다져진다"며 '오늘은 어떤 부처님을 만날까' 일터로 가는 마음이 설렌다"고 말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안동교도소 불심회

지옥 문 앞에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대원을 세우신 지장보살님. 우리 안동교도소 불심회는 늘 '지장보살 닮기'를 발원해오고 있습니다. 한 때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멍에를 짊어진 재소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재소자들이 흘리는 참회의 눈물은 우리 불심회원들에게 불자 교정인으로서의 큰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불심회는 이들 재소자와 함께 7년째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식구는 불과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회원은 적었지만, 차근차근 신행활동을 벌여 회원을 늘려갔습니다. 지금 40명이 넘는 대식구로 큰 것도 회원 모두가 '1회원 1불자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안동 법용사에서 정기법회를 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도소 직원불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동참해 직장의 테두리를 벗어난 모범적인 가족신행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 불교 발전과 봉사활동도 활발히 벌였습니다. 회원들이 안동지역 불교대학에 입학해 불교공부를 하는 한편, 이 지역 각 사찰 신도회 임원 등을 맡아 재가불자들의 힘과 저력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배 회장은 안동불교거사림회 교육부장을, 장재덕 부회장은 안동불교산악회 등반대장, 소정호 부회장은 안동대원불교대학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등 신행단체간 교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동교도소 불심회원들이 지난해 가을 장성 백양사에서 열린 성지순례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우들 한마음으로 '지장보살' 닮기 발원
불교대학 공부 · 지역단체 활동 교류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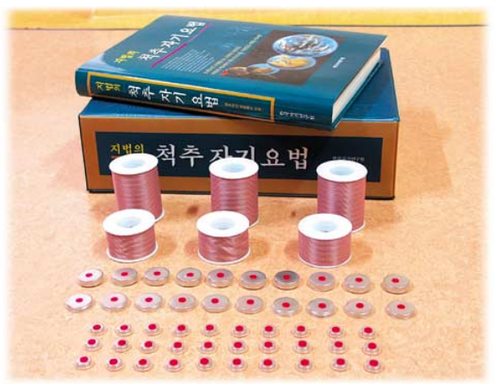
우리 불심회는 지난 1997년 7월 몇몇 뜻있는 직원들로 소박하게 출발했습니다.사무, 보안, 야근 부서 등 상이한 근무 환경과 여건 등으로 한데 모여 법회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불심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지난 2000년 12월에 재창립 법회를 열고, 발심을 다시 크게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심회는 교정 · 교화 업무 그 자체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 믿기에 '재소자 상담'을 법회라 여겼습니다. 몸은 징역을 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롭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우한 재소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하고, 이들의 고충을 들어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재소자들이 출소 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불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전공부와 독송이 어렵고 낯선데다가 근무 시간이 맞지 않아 제대로 법회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체계적인 불교기초를 공부할 수 없었던 것도 큰 문제였지요.

올해 우리 불심회는 성지순례 주기를 연 2회로 늘려 전국의 사찰문화를 직접 탐방해 불교문화 정수를 만끽할 계획입니다. ■김성배 회장

다른 치료법과 비교 불허!
최고의 건강체를 만들어가는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한 치료법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석치료의 진수

척추자기요법을 발명한 지법스님은 1976년에 법주사에 출가한 사문으로써 송광사, 통도사, 범어사등의 사찰에서 수행하였으며 **20여년전에 중생들을 질병에서 구원해주는 약사여래부처님을 호신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고 체침을 비롯한 민간요법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기요법을** 오직 치료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인체의 가장 중요한 척추를 강하게 다스리면서** 오장육부의 질환과 좌골신경통, 요통, 오십견등의 질환을 다스리는데 가장 체계화된 치료법을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치료가 **근골과 근육을 강하게 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분해하여 체외로 빠르게 배출시키면서 혈액을 맑게하고 질게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술을 베풀다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이번에 척추자기요법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석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석은 크기나 가우스(세기)양이 수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 모든 자석을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자석을 사용할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생체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자석은 **반영구적으로 자력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인 특수한 자석만을 엄선하여 선별하였으므로** 한번 구입하시면 평생동안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효과 또한 여타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를 불허하는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삼폐(폐식,폐변,폐면)의 즐거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
◎ 수행하는 스님들이 치료하면 척추가 곧아지고 기혈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 심장이나 폐, 위장, 대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골수염, 오십견, 요통등 관절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냉증등의 부인병 질환
◎ 남성들의 조루, 정력감퇴,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질적인 천식, 숙취, 변비, 감기등의 질환을 부작용없이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치험사례 및 척추자기요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 출원된 제품 | 한세트가격: 150,000원
상담및 구입문의 :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 : 홍현의)
내자신의 건강과 내가족의 건강을 평생동안 지켜주는 건강지킴이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치료법!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원이 되겠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m E-Mail : jibub@jibub.com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 108염주,12단주, 손목염주 225.000원



▲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 108염주 135.000원



▲ 12단주, 손목염주 110.000원



▲ 12단주 85.000원
※ 손목염주 38.000원

북한에서 생산되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세계희귀의 금강약석이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사에서 국내 독점으로 반입, 조립 시판하며 화제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를 최고의 선물로 평가하시어 추가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3%의 높은 원적외선, 음이온등으로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맑고 강한 마음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며 가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가염주는 사용할 본인이 점안식후 사용하세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예금주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금강염주는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3%의 높은 원적외선, 음이온등으로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맑고 강한 마음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며 가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첨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전국대리점모집 사찰매장 및 불교용품점, 개인사업자
금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알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불교법사 및 역학 교육안내

- 불교 교리 및 의식 (예불,불공,천도재,49재 등 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지도)
- 역학(불가에 전래되온 전통특수비법을 기초부터 전문과정까지 책임지도)
- 20명(선착순), 자격제한 없음
- 8월1일 부터 3개월간, 주 3일 교육
- 과정이수시 법사자격증, 역학사자격증 교부, 사찰 포교당 설립시 종단 차원 에서 적극 지원

대한불교 자비종 경주자비사 054) 743 - 4470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336-5692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간 055-882-3455
016-428-6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9月경 제2회 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범패의식
천도재 | 수륙재 | 점안식 | 바라춤 | 나비춤 | 살풀이춤
행사에 염불해 드립니다
무진 051)468-7374
합장 018-523-7374

범음범패, 전통의식, 각종행사 해 드림
점안식, 49재, 상주권공,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나비춤, 사물다루는 법, 화청, 모든 재의식 경전, 민속, 역학 등 염불 배우실 학인 모집 중
대광명사 부설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역학개인지도 사주에 필요한 모든것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스님분은 보시금.100만원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치 질
- 재발 잘 되는 치질
- 한방 비법으로 완전치유
- 오래된 치질이나 암치질 특히 효염

※ 스님들께서는 특별 보시함
▷팔공산천룡정사
017-533-1356
053-986-1355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태안 바닷가 사찰
041)673-1888

행자 모집합니다
만40세미만으로 고졸이상 대학 대학원 진학 책임지원
(정릉)02)917-3363

전생,미래를 볼 수 있는곳
(전생체험)
▷불치병 문의
가정사 모든 액운 문의
051)327-0477

영산재,49재, 천도재,점안식, 시다림,각행사 불공
▷바라,나비무를 겸한 우리말의식
016-9414-1525
02)2212-0686

백련꽃차 (생화) 백련잎차 (덖음)
041)542-4594

참선스님 보세요
- 위장, 관절장애, 변비
- 냉증(전신 寒증)
- 수매(잠, 졸음), 仙食
- 기력 저하, 기혈 불통
- 상기(上熱下冷)

011-9715-6071
02)878-2515
※원만수행을 위한 10수년 전문 연구

행자모집
신산유곡의 조계종 전통사찰 참선수행도량으로 출가할 뜻이 있는분은 연락바랍니다
010-6384-7557

명상의 말씀과 불시낭송 테이프 제작 및 전국 사찰의 각종행사 및 의식에 낭독하실 **여성우구함**
<초보자로 3개월 합숙 훈련 가능자>
017-409-9599

신체 건강하고 불심이 강한 53세의 처사입니다
대형운전면허 소지
(운전 경력 26年)
성심껏 일할 수 있는 사찰이나 암자를 찾습니다
연락처 017-604-4083

보시금 필요없음
스님 없어 운영안되는 부산,경남근교 암자 원합니다
명리철학, 대체의학 생활불교, 접목하여 사찰운영할 자신있읍니다
참선공부하는 비구스님입니다
016-867-3060

신심있고 가족처럼 함께지낼 공양주 보살님(급구)
▷50대 후반~60대
02)386-0926
011-286-0308

(급)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전남 광주
011-683-3173
061)337-3620

60세 이상으로 가족처럼 함께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춘천
011-748-9236

기도겸 공양주 구함
▷전남 광주 근교
조계종 사찰
조용하고 경치 좋음
011-419-5483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화성 대한불교조계종 무우사
031)352-7346
011-9205-5679

충남 지역의 40대 처사로 사찰 기사직을 원합니다
▷1종 대형 면허 소지
▷4년 경력
011-400-0852

토굴, 작은암자 시주해 주실분 신심 있는 인연 기다립니다
011-628-1156

불교용품 사업에 평생직업 하실분 면접 후 모십니다
▷모집부문: 사장, 운전, 영업, 경리
▷근무지: 서울 근교
019-213-01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7-260-3310

부전이나 주지원함
세납 56세, 법납 27년
▷비구스님
011-9429-5786

부전스님 모십니다
(40세 미만)
▷마산
011-571-5451

부전스님 모십니다
여종무원 모심
▷부산시내
▷산아래 위치
살기좋은절
011-575-7672

부전스님 구함
▷조계종 전통사찰
011-9940-6455
016-832-2818

기도스님 및 행자 모십니다
▷영주
011-9342-9850

한 식구처럼 오래 사실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3)463-3767

스님의맘아시는분모십니다
경락 지압 수련생 모집
수련후 자격증 수여
관음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 대체 의학 학원장
051)558-1686
011-9521-6087

탈 종 공 고
●주소: 서울 종로구 평창동 536의 3호
●성명 : 주대천 (법명 : 법연) ●사명 : 법정사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 합니다.
2004년 7월 13일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법하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2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눈
- 충혈, 눈물, 피로, 눈꼽, 눈이 빡빡함
- 침침함, 가려움, 기타 불편증세

눈 전문 특수영양식품
눈에 좋은 물질 특허성분 함유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제조원:(주) MERCURY-MK
일본성인병예방협회 추천제품
눈밝은 세상 (02)2237-8004



역학 수강생 여러분
10초내 운세를 맞추면 배우러 오세요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사주전체 대흐름(조상포함)을 알고나면 격국용신 및 신약신강을 신경쓰지 않아도 속시원히 통변할 수 있습니다.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행 자 모 집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에서는 미래의 세계불교를 이끌어 갈 참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자격 : 16 세이상 남 · 녀
2.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3.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문의 : 011-9852-0075(충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053)474-8228 납골당 운영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통증

스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파워 - 봉이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찰, 선원에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고,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은 氣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 흐름을 좋게 해주면 통증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 미국, 독일, 캐나다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식약청의료기허가 제1119호
품목허가 제03-791호
비디오 Tape+책 증정

※ 스님들께 드리는 특별가 50,000원
포교용으로 다량구입하시면 특별 할인 있습니다.
● 농협계좌 : 072-12-288028 주분옥
● 주문전화 : 054)638-2224

천일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영주)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치유

육신통(六神通)이라 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분들만이 갖출 수 있다는 신통력이 있다. 그중에서도 천안(天眼)은 영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한다. 영시라고도 하는데 죽은 영가의 모습과 사후 세계까지 볼 수 있다.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은 양수영 원장님의 천안, 천이통으로 전생을 훤히 꿰뚫어보고, 빛으로 천도한다.

빙의(영가)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와 직접 대화하여 조상 영인지, 다른 영인지를 확인하고, 현재의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영가의 소원을 들어주어, 빛으로 천도되어 가는 것을 본인과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다.

<전생최면요법이나 무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가를 떠나보내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보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거의가 영가의 장난임을 알 수 있다.

영적치유 대상자 (양원장님을 만나시면 약손이 됩니다)
- 중병으로 고생하는 분
- 무병으로 고생하는 분
- 악몽에 시달리는 분
- 가위 눌림을 당하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가정
- 자녀문제(학습장애)
- 불임으로 고생하는 분(거의가 영적 장애임)
- 굿이나 천도제를 수 없이 지냈어도 소용없는 분

※ 영가천도 비디오 Tape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치유를 받음과 동시에 질병이 호전된다.

<상담중 영가를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소백산 수련원(054)638-2224
<경북 영주> 야간 : 011-9003-3246

易 이제는 僧(승) 속(俗)을떠난학문입니다. 學

괴사 백운곡 선생님



초단기 전문가 양성
과목 : 명리와 작명
불교의례, 부적과 비방
한글 · 한문 · 주역작명법

"건(乾)은 쉬움으로 시작하고
곤(坤)은 간단함으로 완성한다"
역(易)은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차도 사주팔자가 있다"

약력: 역학통신대학 원장. 생활 운세 통신 상담원장
한글 한문 바른이름연구학회 회장

저서: 주역신단, 주역비전, 토정비법, 괴사 사주학
한글 한문 성명학 대전 등의 40여권
대중 역서 최대집 필

원장 유방현 선생님



대화기법 철학원운영기법
실전입문, 교육실무실습
과목 : 육효택일궁합

창업후에도
지속적인 마케팅 관리지도
(매월 3백만원 수입창출)

◈상담사 1500여명 배출

상담사라는 전문분야는 참으로 의미있는 분야입니다.

약력: 한국 역리사 자격검정협회 출제위원
역리 춘추 역학 공로상 수상
음양오행학회 학술고문, 월간 시사 보도 편집위원

저서: 명리학 교본 1,2 육효학 교본 1,2
초씨 역림

• 스님들을 위한 특별반 개설 (오전 7시 ~ 9시 30분까지 : 강의시간은 변경가능)

• 마감 : 7월 30일 특수비법 전수반 선착순 마감 10명 모집(월, 수, 금) • 개강 8월 2일 (월) • 강의시간 오전10 : 30분 ~ 12 : 30분

⊙ 사찰운영 하실분, 결혼 상담소, 부동산 중개사, 전문 역술인 양성 특혜 (수료증 수여, 창업후원)
⊙ 무료공개강좌 안내 (7월 21일, 28일) 오후 7시 ~ 9시까지
⊙ 통신강좌 안내 과목(명리, 육효, 작명) 6개월 과정 <한글 성명 작명시 실용한자포함>
⊙ 접 수 처 : TEL 02) 929-4646,4643 FAX 02) 926-0460 HOME PAGE : WWW.KTSA.CO.KR

주관 : KTSA 한국 전통과학 아카데미(전철 1호선 5번출구)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 법당:10평
- 요사:15평
- 부지:33000평
- 가액:7억

- 위치:강원도
- 법당: 15
- 요사:15
- 부지:1350(중중)
- 가액:2500

임법당한옥

- 위치 : 경남
- 법당 : 46
- 요사 : 80
- 부지 : 10000
- 가액 : 7억5천(급매)
- 납골당 1000기 시설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8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최요지
- 평수 : 30평 3층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급한 사정상 최저 양도

011-202-2205

포교당안내

- 위치 : 성북구 성북동
- 대지 : 50평
- 건물 : 40평
- 욕실2, 주방1, 방2 법당, 시설일체
- 전세 5500만원
- 시설비 : 절충가능

011-732-6933

비구니스님토굴안내

- 위치 : 경주시내 10분거리 (고속도로, 고속철도 근접)
- 대지 : 2필지 240평, 임법당 15평정도 1동(스님방,목욕탕구비) 예날흙집 방3칸 1동 예날흙집 방2칸 1동
- 교통편리함에 비해 공기가 너무 맑고 조용한 시골마을, 토굴은 소박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깨끗한 물과 공기가 느껴집니다.
- 가액 : 5800만원(절충)

011-9211-638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 부지: 1000평
- 법당: 30평 목조
- 요사: 30평
- 가액: 9억

- 위치: 서울
- 대지: 25평
- 인법당: 23평
- 가액: 8천
- 포교요충지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통일시대 최대 투자처 경기 연천 土地 다량보유 상담환영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 면적: 500평, 700평 (두필지)
- 가액: 평당 5만원 (가격절충)
- 산중조용한곳 수행만하실분

011-538-7266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12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9238-9960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온천장 식물원 밑 2층건물 2층 6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 법회시설 완벽 즉시법회가능

017-848-3330
051)518-3127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최요지 (자갈치 국제시장 옆)
- 평수: 65평 4층 건물 중 4층 방2개
- 전,월세 시설비: 가격절충

051)727-1903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온천3동
- 71평 3층, 법회즉시가능
- 가액: 전세 7천만원 (5천만원에 월20만원)
- 포교당 15년 됐음
- 시설비 없음

011-9571-17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청평
- 대지 : 250평
- 법당 : 25평
- 요사 : 55평(2동)
- 양도가 : 6억

- 위치 : 경기도 이천
- 부지 : 650평
- 법당 : 25평(목조)
- 요사 : 30평(목조)
- 양도가 : 7억
- 산세및교통요지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 기도정진할 스님 특별조건
- 납골탑만 매매가능

011-9415-6831

토굴안내

- 위치 : 밀양시 부북면 소재
- 산좋고 물좋은 화악산 중턱 토굴
- 대지: 약 300평
- 단청, 스라브 약 30평
- 가액: 9천만원

017-593-969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반구동 (최고적지)
- 시설 완벽 최고급
- 내부 실평수 약 50평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포함 2500만원, 월 50만원

010-4871-8577

신축사찰안내

- 대구 파계사 옆 2차선 포장도
- 대205평 텃밭110평 건물70평
- 목조형 철근조 02년말 준공 남향 1층 방5 거실, 욕실, 주방, 보일러 2층 큰법당, 주지실, 거실, 조무실
- 요산 요수 자연 앞냇물 뒷山竹林
- 가액: 2억5천(답사후 절충)

016-875-9833

사찰(전세)안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 대포리 소재
- 대지 200평, 건물, 요사채 35평 임법당 25평, 임산신각 3평, 스님방 11평
- 시설 : 삼존불, 신중, 칠성단, 영가단 보증금 5천만원,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31)631-1325/011-9240-1384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서구 정류장 근처
- 75평 방3개, 법당,
- 부엌, 화장실, 집기 일체
- 주차장 있음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3000만원(시설 일체 완비)

011-308-4225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무여 (산세수려하고 경관 최고)
- 평수 : 대지 200평,건평30평 (방4,부엌,거실,욕실) 건물20평
- 임법당1, 정원, 창고, 텃밭, 지하수2
- 신축건물, 벽돌, 기와
- 가액 : 1억5천만원(절충가능)

011-792-6910

사찰안내

- 위치: 대구
- 대지: 102평(신축건물)
- 금액 : 3억 1천만원 (융자 4천만원 포함)
- 법당 : 28평 ● 요사채 : 45평
- 방5개, 구조편리, 화장실4개
- 즉시법회가능

011-226-2880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대지 48평
- 건물: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5천5백만원

041)841-3090
017-337-4168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사천시 교통요지 마을인접 포교당으로 최적
- 대지: 약 100평 사용부지 200평이상
- 목조 임법당, 방2개, 입실주방, 욕실, 창고
- 불사가능도량, 집기일체포함
- 가액 8500만원

011-879-4791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 삼존불, 산신탱화, 후불탱화 등 모든시설 완비
- 평수 : 40평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 스님 몸 안좋은 관계로 급 안내 모든집기 일체 포함

041)337-8078
011-332-8079

신축사찰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평동 공단 인근
- 대지: 207평 1층 요사채 25평 2층 법당(목조) 25평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
- 가액: 1억(전세 5천만원)

062)943-3330
011-9600-8002

한마음 납골묘 납골당

사찰 경내에 본사의 비용(무상)으로
납골묘(석재)를 설치해 드립니다
사찰에서는 일체의 부담이 없음

한마음 석재 납골묘 납골당 고원 합장

011-348-0668 / 031)318-0616

물좋고 산세좋은 도심속 암자

- 건평 10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주차장완비
- 40년 역사 가건물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303-8550
051)301-8555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의정부시 시청앞 공영주차장 앞
- 5층 건물에 4층, 42평
- 방1, 주방1, 도시가스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후약정

031)873-8171~2
011-258-6432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달서구 4층 중 2층
- 방3, 부엌1, 화장실1, 법당30평(총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1-822-6104

사찰 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2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토굴작은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 대지: 66평 건평: 30평
- 비품집기류일체
- 가액: 3천5백만원

011-9350-8879

사찰토굴안내

- 위치 : 대구권
- 대지: 170평
- 임법당: 20평
- 요사: 30평
- 주차장 포장, 그림같은 토굴
- 모든시설 현대식 몸만오면됨
- 가액: 전부 1억9천만원

011-803-6962

암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 법당, 요사, 산신각, 용화전, 용왕전, 정각2
- 물좋고 산세 경관 수려
- 평수 : 2530평 (평당 30만원)
- 실버타운 가능

011-9126-226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 대지 : 600평, 법당 20평, 요사채 80평, 공양간, 사무실 각각 따로
- 가액: 4억5천만원

011-9387-4446

포교원안내

- 마산시 부림시장상가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절충가능)
- 도심포교 최적지
- 노송과 대나무가 있는 토굴
- 남원 광한루에서 5분거리
- 현대식 20평(방2, 거, 주, 화)
- 가액 : 4000만원(절충가능)

016-424-0500

탈종공고

- 사찰명 : 화암사
- 주 지 : 법 행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485-3

본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 종풍에 맞지 않아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전 중구 산성동
- 요사채 50평, 법당 27평
- 가액: 보증금 3000만원, 월 70만원(조정불가) 시설비 2000만원

019-652-7008

사찰부지

- 위치 : 가평군 상면 율길리
- 면적: 2만평
- 가액: 평당 4만원
- 용도: 사찰, 연수원, 부도탑(납골)
- 정남향 37번국도(100미터) 공사중임

011-320-1778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 전체 3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5만원 권리금 1천만원

011-489-3758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동래온천시장 내
- 총 45평(3층건물 중 2층)
- 호불500불, 인등500, 연등 1000개
- 원목 닫집 단청 필
- 보증금 15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절충(법당 최고시설)

016-444-5758

사찰터안내

- 위치 :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 대지 80평, 대지 외 720평
- 현재 감나무 밭이고 조그마한 토굴 있음 전방에 아파트 신축중
- 외곽 도심 포교원으로 최적지
- 가액: 1억5천만원(절충가능)

053)651-0095
016-805-0095

암자안내

- 위치 : 서울 상계4동 수락산, 4호선 당고개역 종점부근
- 법당채, 방5개, 거실, 주방, 요사채, 방2개, 창고, 기름보일러, 밭 30평
- 가액: 전세 2000만원+110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월세도 가능함

011-9960-0620

사찰안내

- 위치 : 경주
- 대지: 200평
- 법당1채, 산신각, 칠성각1채 요사채 40평 1채, 20평 1채
- 허공 용왕당 산세경관 수려
- 가액 9천5백만원

011-511-0442

사찰터안내

- 위치: 대구 동구 매여동
- 특징: 동대구 I.C에서 팔공산 방향 10분거리(팔공산 줄기)옛사찰터로써 소나무, 밤나무 숲이 우겨져 있고 계곡물이 좋음(송이버섯재배지역임)
- 임야: 3만 2천여평
- 가액: 4억(답사후절충)

017-513-6544
016-813-8008

포교당안내

- 위치 : 도봉구 방학2동 사무소 부근
- 평수: 25평(2층),주방1, 방1, 법당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1천3백만원, 월세 40만원
- 냉난방시설완비

011-669-3345
02)3494-4962

포교당최요지

- 위치: 부산시 사상구 주례1동
- 평수 : 45, 2층
- 큰법당1, 방2, 부엌, 목욕탕 삼존불(후불탱화), 지장불(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용왕불
- 전세 :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 1700만원 사정상 급 안내 몸만오시면 바로 법회가능(살림)

051)327-0477
019-556-6047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산외면 산세좋은 명당
- 대지: 200평,건물 25평 2동 조립식 건물
- 토목공사: 전 4000평 임야 10000평
- 4차선 도로 진입로에서 5분거리
- 대형차량 진입가능으로 대가람 중창 가능한곳
- 가액: 1억 7천만원

043)255-2773
016-402-115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운양면
- 건물: 일반 한옥 사찰
- 요사채, 총건평 45평 대지 159평 삼존불, 각단 탱화 모셔져있음
- 특징: 교통편리 (거창에서 김천방향 국도변)
- 모든시설 사용이 편리함
- 가액: 8천만원

019-503-7959
055)942-915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동
- 건물: 5층건물 3층(56평)
- 법당(20평), 요사채
- 방2개, 큰거실, 공양간, 화장실 별도
- 비로자나불 부처님 모셔져 있음 후불탱화 3점
- 비품: 대형냉장고, 에어컨 시설, 정수기
- 기존 신도로 즉시법회가능
- 가액: 시설비 2천만원(조정가능)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053)756-7339
011-9599-6996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 가액: 2억5천만원 (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청 뒤 2분거리 4층건물중 3층, 35평
- 법당, 공양실, 친견실,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영가단, 앰프시설, 사무기기, 포교서적 완비 시설A급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5만원 시설비 550만원

032)511-4974
부전스님 필요하신곳 연락바랍니다

한글대장경 인터넷 서비스 추진

동국역경원 40년과 미래

동국역경원이 7월 21일로 개원 40주년을 맞이했다. 역경불사를 통한 불교 대중화와 중흥을 위해 출범한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은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한글대장경 완간이라는 큰 불사를 성취했다. 현재 동국역경원은 한글대장경 2차 사업으로 한글대장경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고려대장경과 결합된 '통합대장경 인터넷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점에서 동국역경원의 지난 40년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점검해본다.

고려대장경과 통합 2010년까지 전산화
재정 · 전문 역경인력 확보는 여전히 숙제

▌40년 대 역사의 과정

동국역경원은, 1962년 조계종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책정한 종단 3대 사업, 즉 도제양성, 포교, 역경(譯經) 가운데 하나인 역경을 추진하기 위해 탄생했다.

역경을 주요 사업으로 표방한 조계종은 역경원을 종단의 부속기관으로 두려 했으나 역경사업 비용 조달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고 만다. 그래서 종단은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할 만한 재정적 여유조차 없던 종단은 역경원을 동국대 부속기관으로 둘 것을 동국대와 합의한다.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동국역경원은 64년 7월 21일 대학선원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역경 사업의 첫 결실은 65년 6월 30일 발간된 <장아함경>이었다. <장아함경>은 한글대장경 완간을 향한 대장정의 서막이었다. 이후 역경원은 매년 꾸준히 한글대장경을 펴냈고 79년까지 총 101책을 간행한다.

이처럼 순조로워 보이던 역경사업은 80년 11월 초대 원장 운허 스님의 열반과 함께 침체기를 맞는다. 그러다 93년 월운 스님이 원장에 취임하고 94년부터 4년간 13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이 기간에 116책이 간행됐고, 98~99년에 68책을 추가, <장아함경>이 나온 지 36년만인 2001년에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신집장경음의수함록(新集藏經音義隨函錄)>을 끝으로 총 318책의 한글대장경이 완간되기에 이른다.

한글대장경 역경사업은 연 번역 인원 4만3248명, 연 교정 인원 7만5048명, 총 원고지 108만1200매라는 기록을 남긴, 고려대장경 불사에 못지않은 대역사였다.

▌또다른 시작, 전산화 작업

동국역경원은 후속 사업으로 '한글대장경 개역 · 전산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에 걸쳐 한글대장경을 재번역해 보완하고 전산화해 318책을 전부 인터넷으로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에서 동국역경원은 개역 등 번역 관련 업무를, 전자불전연구소는 전산화를 각각 맡고 있다. 4년째인 2004년 7월 현재 <대방광불화엄경>, <금강삼매경>, <중아함경> 등 260여 경을 인터넷으로 서비스(www.tripitaka.or.kr)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최근 한글대장경과 고려대장경을 연동해서 서비스할 필요성이 제기돼 계획을 수정, 지금의 사업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형태인 '통합대장경 인터넷서비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과 고려대장경연구소의 고려대장경을 통합해서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동국역경원 최철환 편집부장은 "온전하게 남아 있는 최고(最古)의 대장경인 고려대장경을 한글대장경과 함께 서비스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며 "한국이 불교학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넘어야할 산 많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재정난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 40년간 동국역경원을 괴롭혀왔던 재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통합대장경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동국역경원의 한 해 예산은 10억 내외. 이 가운데 4억원이 국가지원금이다. 나머지 6억은 후원회비, 동국대의 인력과 사무공간 지원, 책 판매대금 등으로 구성된다. 종단의 지원은 미미하다.

이와 같은 재정난은 인력난으로 이어진다. 한글대장경의 오역을 바로잡고, 오래된 번역을 개역하는 전문 역경 인력 확보가 사업성패의 관건이다.

그러나 불교 경전을 제대로 번역해낼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고, 대장경이 포괄하고 있는 주제가 워낙 넓어서 관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절대적인 인력부족 상황에서 낮은 번역료로 양질의 번역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원고 1매당 번역료가 민족문화추진회의 경우 1만원인 데 반해 동국역경원은 3천원이라는 사실만 봐도 동국역경원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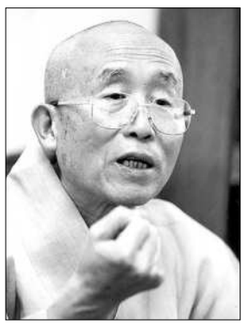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동국역경원 연혁

1962년	조계종 종단 3대 사업으로 역경 사업 추진 결의
1963년 2월 13일	역경위원회(위원장 운허) 구성
1963년 9월 26일	조계종과 동국대가 동국역경원 설립에 합의
1964년 3월 1일	초대 원장 운허 스님 취임
1964년 7월 21일	동국역경원 개원
1965년 6월 30일	첫 한글대장경인 <장아함경> 2000부 간행
1979년 3월	제2대 원장 영암 스님 취임,
1984년 7월	동국역경사업진흥회(이사장 자운) 설립
1987년 7월	제3대 원장 자운 스님 취임
1993년 11월	제4대 원장 월운 스님 취임, 향후 4년간 13억원 국고지원 국회통과
1995년 7월 21일	동국역경원 후원회(회장 석주) 발족
2001년 3월	한글대장경 개역전산화 사업 개시
2001년 9월 5일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 법회
2002년 3월	한글대장경 32책 인터넷 서비스 개시

인터뷰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

"읽지 못하는 법보는 구경거리에 불과해요"



"옥을 등에 지고 굶어죽는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 불교를 보면 꼭 그 격입니다. 고려대장경은 소중한 법보지만 읽지 못한다면 문화재에 지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경전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 40년간 동국역경원과 고락을 함께 해온 역경원장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 · 사진). 동국역경원이 설립된 해부터 줄곧 역경 사업에 참여해 왔고, 1993년에는 원장에 취임, 한글대장경을 완간해낸 역경사의 산증인이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역경사업을 이끌어야 했던 지난 세월은 평탄치 않았다. "후원회도 조직하고, 책 판매에 주력해보기도 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면서 "원장이 된 후로는 늘 불안 속에 산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역경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경전을 읽으면서 발심하고, 불교교리 또한 경전에 토대해 발전하기 마련인데 경전을 번역해놓지 않으면 한글세대들이 어찌 발심하고 불교는 또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냐"고 스님은 반문한다.

이제 스님의 걱정은 동국역경원이 추진 중인 '통합대장경 인터넷 서비스 사업'이다. 정부지원을 받는다 해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할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스님은 "통합대장경 사업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대장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집집마다 법보를 모시는 셈이 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새 단장한 선암사 승선교. 사진제공=순천시청

새 단장한 선암사 승선교

7월 19일 낙성, 주변정리 계획

보물 제 400호 선암사 승선교(昇仙橋) 보수 공사가 완료돼 순천시는 7월 19일에 낙성식을 갖고 2년여의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기초 자연암반 균열로 인한 붕괴 위험 때문에 문화재청과 순천시가 2002년 11월부터 4억 7000여만 원을 들여 추진한 이 공사는 복원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몇 차례 재공사를 거듭해 많은 우려를 낳기도 했다.

1713년에 선암사 스님 호암화상이 6년 동안의 공사 끝에 완공한 승선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홍예교 중의 하나로, 조계산의 계류를 건너 선암사 경내로 진입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승선교 주변정리 공사는 별도 사업으로 추후에 발주될 예정이다.

인각사 보각국사비 재현 바쁜 움직임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을 앞두고 군위군 고로면 인각사(麟角寺) 경내의 보각국사비(普覺國師碑.보물 제428호) 재현을 위한 자문회의가 7월 8 · 9일 양일간 인각사에서 열렸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상국 예능민속실장, 금석문연구가 박영돈 씨,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박영돈씨가 30여년간 연구 · 수집해 복원한 보각국사비 탁본에 대한 학계전문가들의 고증작업이 이뤄졌다.

양일간 진행된 고증작업결과 보각국사비 후면 음기(陰記)에 있는 대선사, 수좌 선사, 입선(入選), 산림(山林), 삼품(三品) 등으로 분류된 일연스님 문도들의 배열부분만 정병삼. 김상영 교수가 7월 말까지 재정리하기로 하고 앞면은 탁본대로 재현할 것을 확정했다.

인각사 보각국사비는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 스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비로써 그의 제자인 청분 스님이 1295년(고려 충렬왕 25)에 세웠다. 비문은 당시의 문장가인 민지(閔漬)가 왕명을 받아 지었고, 글씨는 왕희지체를 집자해 만들었다.

비문의 서체가 수려하여 명성이 자자했으나, 점차 훼손돼 현재는 약간의 비편만 남아있는 상태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금동반가사유상 특별전 20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불교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인 국보 제78 · 83호 금동반가사유상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 불교조각실에서 함께 전시된다.

이번 특별공개전시는 박물관 이전에 따른 경복궁 시대 마감을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이들 두 점의 금동반가사유상을 하나의 전시 공간에서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대형불상이 전시됐던 곳인 80평 규모의 불교조각실에서 두 점만 특수조명을 가해 감상의 집중도를 높이고, 관람객을 위한 의자를 배치하는 등 새로운 전시 기법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번 전시회는 7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90일간 진행된다. (02)2077-9498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5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범(진각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학과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4년 6월 20일~ 2004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04년 8월 7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학과 : 2004년 9월 7, 8,9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743-4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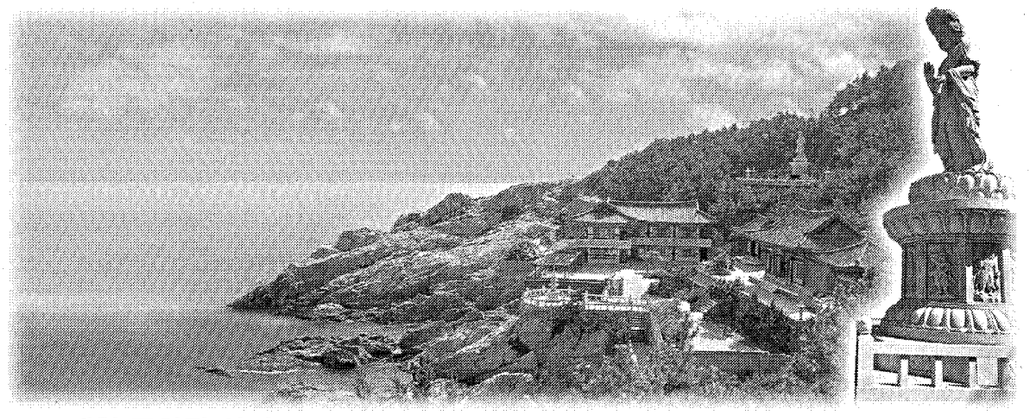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일주문



평창 대흥사 낙성식서 법문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7월 23일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평창 대흥사 낙성식 및 불상 봉안식에 참석해 법문을 했다.



봉선사 연꽃축제

경기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광릉수목원과 공동으로 7월 24~25일 봉선사에서 '2004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031)527-1951



군승하계수련회 개최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성광 스님은 7월 20~22일 경주 동양유스호텔과 해병 1사단에서 군승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2)749-8646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개최

대구 은적사 주지 허운 스님은 7월 25~27일 은적사 부설 룸비니유치원 법당에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연다. (053)621-1003



'둥지청소년의 집' 방문

부천남부경찰서 경승실장 성인 스님은 7월 7일 경기 안산 '둥지청소년의 집'을 방문해 의류와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대표에

조계종중앙신도회 선진규 명예회장(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의장)은 7월 21일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대표에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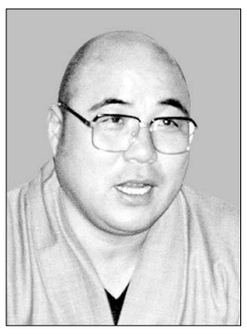


LA 고려사에서 수심결 특강

전북불교대학 강건기 학장은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미국 LA 고려사 국제불교회관에서 '지눌스님의 수심결' 특별강좌를 갖는다.

"승·재가 노후복지 새 틀 마련"

복지법인 '자제정사' 설립 보각 스님



'자제정사 복지타운 조성' 기원 자선음악회를 개최하는 한편, 신행단체 및 지역 기업간 자매결연 맺기 사업, '유산, 복지시설에 물려주기' 운동, 자원봉사 전용 서틀버스 운행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031)356-9018 **김철우 기자**

"승·재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편안히 보살펴 드리는 것은 불교 노인복지의 사명입니다. 이번 복지법인 설립도 전문적인 운영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인복지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월 8일 무의탁 노인복지시설 화성 자제정사를 사회복지법인체로 전환한 자제정사 양로원장 보각 스님(사진)은 전국의 미신고 복지시설 중 처음으로 법인체로 바꾼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복지법인 설립은 원활한 정부 지원을 보장받기 위한 것보다 복지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앞으로도 그간 펼쳐온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노하우를 살려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각 스님은 이와 함께 자제정사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내놓았다. 내년에 인근 부지 3천여 평에 치매노인전문요양원과 남성 노인 양로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스님 전용 시설도 만들어 출가자가 평생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님은 이를 위해 후원자 개발과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 하반기에

"장병들 마음에 연꽃 심을 터"

이라크 파병 강의중 군법사

"모래폭풍 속에서도 불교를 전하는 군법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어요. 자식들을 사지(死地)로 보내는 심정으로 파병장병들의 안녕을 위해 불자님들이 기도와 기원해 주십시오."

8월 초 자이툰 부대 일원으로 이라크 현지에 파견되는 강의중 군법사(소령·사진). 그는 "이라크 현지의 사정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강 법사는 "부처님전에서 지옥중생이라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결의를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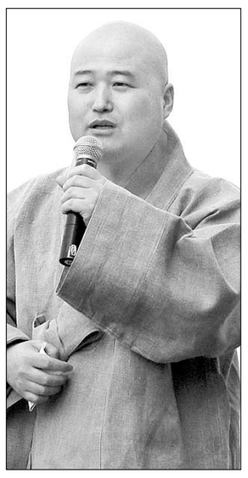
군목사 3명, 군신부 1명과 함께 파병되는 강 법사는 "불교를 대표해서 2000여명의 장병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비록 전장이긴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장병들과 공유하며 생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법사는 현지에서 장병들과 함께 신행생활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범능 스님 명상음악 염불 '관세음보살' 내



노래부르는 범능 스님(사진)이 명상음악염불 2집 '관세음보살' 음반을 냈다. 명상음악 '나무아미타불'에 이어 두 번째 나온 이번 음반은 전통가락에 현대적 음악을 가미한 것으로 3분 염불 후 1분간 간주가 연주된다.

범능 스님은 명상음악염불에 대해 "음계의 폭이 넓지 않아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며 "관상염불이나 자성염불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범능 스님은 80년대 노래패 '친구'를 이끈 민중가수로, 93년 출가해 음성공양으로 수행과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스님 음반으로 노래 1집 '오월의 꽃' '면산'이 있다. www.buleum.pe.kr

이준엽 기자

btn 사장 조재룡 씨 전무이사에 구본일 씨





(주)불교텔레비전은 7월 10일 이사회를 열고, 불교TV 대표이사 사장에 前 영풍기계 조재룡 사장(왼쪽), 전무이사에 前 불교TV 문화원장 구본일 씨를 임명했다.

조 사장은 1961년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 92년 영풍산업 대표이사, 2003년 불교TV 방송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강지연 기자**

정동영 통일부장관 법장 스님 예방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7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불교계 대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원만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예산 수덕사, 여름 선 수련회 개최



예산 수덕사(주지 법정)는 7월 9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여름 선 수련회'를 개최했다. 조석예불, 선체조, 참선, 1080배 등으로 진행된 수련회에서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은 "수련체험이 수련생들 마음 속 수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041)337-6565

연합포교사 정기연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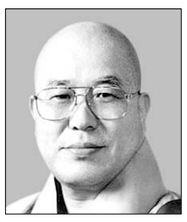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가 불교(교양)대학 출신 연합포교사 80여명을 대상으로 7월 10~11일 해남 미황사에서 '제2회 정기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은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불교신앙의 본질' 주제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대한불교신문, 사진 공모대전 시상식



대한불교신문(사장 조연)은 7월 14일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제 12회 불교 및 전통문화사진 공모대전 시상식을 갖고 16일까지 제 1전시실에서 입상 및 입선작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조연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했다.

현성 스님 동국대서 명예철학박사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현성 스님은 불교발전과 교육문화 사업 등에 힘쓴 공로로 7월 15일 동국대에서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64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 66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한 현성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감찰국장과 사회부장,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도선사와 개운사 주지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김은경 기자**

前 중앙승가대학장 송산 스님 입적



인천 보각선원장 송산당 무근 스님이 7월 12일 새벽 입적했다. 세랍 62세. 법랍 48세.

송산 스님은 1942년 서울에서 출생, 56년 사미계, 61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76년 동국대학교 선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경도불교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수료했으며, 중앙승가대 학장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과 총무부장, 중앙종회의원, 선학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인사

문화재청

국장 승진 △문화유산국장 김창준

서기관 승진 △혁신인사담당관실 조현중 △문화재정책과 이경훈 △매장문화재과 주정습 △문화재정책과 김상구

개방형직위 임용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학예연구관 김봉건

불기 2548년 신흥사·청소년 수련원 여름수련법회

- 부처님을 우러르는 신심과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과 내 이웃을 감싸안는 봉사로 -

제53차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제 46차 청소년 여름 수련법회	제 27차 성인 여름 수련법회
• 일 시 : 불기2548년7월 28일~30일 (2박 3일)	• 일 시 : 불기2548년7월 23일~26일 (3박 4일)	• 일 시 : 8월 14일~15일(1박 2일)
• 대 상 :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가능)	• 대 상 : 중·고등학생	• 대 상 : 일반인 (대학생도 가능)
• 회 비 : 30,000원	• 회 비 : 35,000원	• 회 비 : 20,000원
• 준비물 : 공양미 1봉투, 필기도구 세면도구, 슬리퍼(갯벌탐사) ※ 법복 준비되어 있음 (수련법복 안에 입을 내의)	• 준비물 : 공양미 1봉투, 필기도구 세면도구, 슬리퍼(갯벌탐사) ※ 법복 준비되어 있음 (수련법복 안에 입을 내의)	• 준비물 : 공양미 1봉투, 필기도구, 세면도구 ※ 법복 준비되어 있음 (수련법복 안에 입을 내의)

● 서해안 제부리섬 갯벌탐사와 자연보호 활동

● 성인수련 중 성인수계식을 통해 조계종 신도등록 시 필요한 법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안내: 수원역전 택시 승강장 아래 대학교 버스 서는 곳 못 미쳐서
서신행 좌석버스(400-1번, 490번, 999번) 신흥사 입구에서 하차 (절 보임)
서울, 안산쪽 1호선 금정역 농협 앞 330번 타고 신흥사 입구에 하차(절 보임)

※ 수련정보는 신흥사 홈페이지 www.shinheungsa.or.kr
검색엔진에서 '화성 신흥사'를 한글로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전자메일 buruna48@hanmail.net

전화 : (031) 357-3916·2695 팩스 : (031) 357-8687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 42-1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수련·불교대학 체험기

성일 스님 엮음 | 값 9,500원 | 산국판 | 392쪽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불교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인 줄 처음 알았고, 부처님이 참으로 거룩하시고 그 가르침이 훌륭한 걸 처음 알았다. 그 위대한 불교를 믿는 불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다. 또한 바르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것이 자신의 인생에 제일 행복하다…."

어린이불교학교, 청소년·성인 수련대회 참가자, 그리고 불교대학 졸업생들이 남기고 간 소감문 350여 편! 더불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교계에, 스님들께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아울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불교학교나 수련대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책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절로 행복해지고, 진정 행복한 세상을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성일 스님은 '내 성불 한 생을 늦추더라도 이 생은 포교하리라'는 원력으로 1973년부터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시작, 해마다 3000여 명의 수련생을 배출하고 수많은 법회와 대중교화에 온 힘을 쏟고 계시다. 신흥사 내에 수련원 건립의 원을 세우고 두문불출 10년 기도를 회향하고 1,000여 평의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였으며, 1년 365일 법회와 수련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불자들의 몸과 마음에 부처님의 향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신다.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02)420-3300 전송(02)420-3400 불광출판부
http://www.bulkwang.org



불자 세상보기

김 광 식
부천대 교수

친일과 제행무상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세상사 모든 일이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이 가르침을 우리는 매일 겪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하였으며, 올 가을부터는 더욱 격론이 예상되는 현안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과 불교와의 관련이다. 이 문제가 2년 전 처음 불거졌을 때 불교계에서는 일부 신문을 제외하고 거의 침묵,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 개정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법안과 불교와의 관련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삼 제행무상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다. 불교와는 관련이 없다고 여겼지만, 50년전 일제 식민통치하의 불교의 행적이 다시금 우리의 문제로 등장한 것이 제행무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번에 국회에 상정될 개정안의 취지는 친일파에 대한 규정이 애매한 친일행위 진상규명법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에 열린우리당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에서는 친일행위를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종교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식민통치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로 확대했다. 요컨대 불교계의 친일행위도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스님, 불교신자들은 불교계 친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모른다. 이는 기본적으로 불교계의 역사의식의 빈약에서 나온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불교의 교리 및 사상만 강조하고 근·현대불교를 황무지로 방치한 결과이다.

일제하 불교는 왜색불교니, 친일불교니, 몇몇 스님들은 친일파였다는 등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에 친일행위가 있었는가, 친일파로 지목될 대상 승려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다만 호국·민족불교 혹은 한용운, 백용성 스님의 항일활동, 3·1 운동 때의 사찰 만세운동, 군자금 전달을 통한 불교의 민족운동 등 불교의 다양한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있는 불교 친일에 대해서는 거북스러울 뿐이다. 친일행위라는 개념이 전제돼야 하겠지만 불교계에서도 민족, 불교, 독립운동을 배반한 행위는 있었다.

우선 불교의 '친일'의 내용을 대별하면 첫째, 일본불교의 신앙을 수용한 승려들이 있었다. 이들을 흔히 왜색승이라고 지칭한다. 둘째, 불교근대화를 위하여 일본불교의 도움을 받고, 식민지불교 정책을 무조건 수용한 사례가 있었다. 셋째, 불교계 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우호적인 승려가 다수 있었다. 넷째, 일부의 경우이지만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한 승려가 있었다. 이들은 일제에 부화뇌동하고, 식민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참했다. 다섯째, 일제 초기에는 항일투쟁에 나섰지만 일제 말기에는 친일노선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었다. 이 내용 전체를 친일행위, 친일파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불교계도 친일행위 진상규명법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불교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여 불교계의 친일과 연관된 역사를 재정비해야 한다. 불교계에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는 좋은 말이 있다. 즉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불교계의 친일문제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친일문제를 포함한 근대불교를 총체적으로 불교의 역사로 끌어안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으면 파사현정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근·현대불교에 대한 연구와 자료수집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호국불교, 민족불교를 칭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2001년, 총 318권 '한글대장경' 역경의 큰 불사를 마무리하고 이어 '한글 대장경 전산화'의 대작불사에 바쁜 걸음을 보이고 있는 동국대 역경원이 7월 21일로 출범 40주년을 맞았다.

현대 한국불교에서 경전의 한글화 작업은 불교대중화를 위한 가장 시급했던 과제였다. 그러나 연 평균 10억원 이상 요구되는 재정문제를 비롯하여 역경인재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 속에 진행돼 온 역경사업이었음에도 이 같은 성과를 보여 준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교문화가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라는 인식아래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지원이 있었으나 한때는 끊어져 난감했던 적이 있었고, 조계종 3대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종단이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역경인력 문제도 그렇다.

불교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려면 적어도 산스크리트어, 빨리어, 한문은 물론 국어표현에도 밝아야 한다. 역경사의 수요 또

역경불사는 '내일의 희망'

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이 분야에 관심 두는 사람도 적다. 그동안 역경원 자체에서 역경연수생을 양성해가며 오늘에 이른 셈인데, 지금까지 이뤄 낸 성과들은 초대 역경원장이었던 운허 스님에서 스님의 제자인 월운 스님으로 이어지는 4대에 걸친 큰스님들, 그리고 여러 뛰어난 학승들의 크나큰 원력의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역경원의 갈 길은 멀고도 바쁘다.

경전 한글화가 불교문화를 한문세대에서 한글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준 공적이 적지 않으나 '불교는 어렵다'는 문제는 아직도 남는다. 변화된 시대의 세대는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방식과 이해의 폭을 달리 한다. 시대가 받아들이는 표현방식을 채택, 불교를 쉽게 알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대장경을 문학 등 여러 예술분야, 대중문화와 연계시키는 일도 한 방법이다.

불교 대중화와 함께 '세계화'라는 화두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적어도 한글화 작업과 함께 영역 등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일 역시 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종단의 적극적 후원과 불자들의 폭넓은 관심이 이 시점에서도 아쉽다. ■김징자(언론인)

이렇게 들었다 바로 보기

정견(正見), 곧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일체법의 참다운 실상을 아는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으로 흩어져 있는 마음을 가다듬고 맑고 고요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상응부경전〉

이 세상은 불타는 집과도 같다고 했던가? 매일 일간지를 뒤지다 보면 여기저기 참으로 싸움도 많고 사건사고도 많다.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두고 제기되는 수많은 찬반 양론의 견해부터 수도이전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온갖 논쟁과 현상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분노 표출, 어려운 경제난을 빌미로 벌어지는 갖은 사기사건, 사고들…. 한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도 수없이 많으며, "죽겠다, 살려달라, 거부한다, 불가하다, 억울하다" 등 무수한 목소리들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이런 혼란하고 복잡다난한 세상일수록 사회가 올바로 나갈 수 있는 지혜의 한목소리가 절실해진다. 그러나 과연 수많은 소리중에 지혜의 목소리는 얼마나 되며, 어떤 소리를 지혜의 소리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 말씀에 "정견은 물에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다"고 했다. 물이 흐려 있거나 끓고 있거나 이끼로 덮여 있다면 자기 얼굴을 비춰 봐도 똑바로 볼 수가 없듯이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으로 흩어져 있는 마음으로는 참다운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를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상을 보고 소리를 높이기전에 '탐욕으로 흐려있지 않은가', '노여움으로 들끓고 있지 않은가', '어리석음으로 덮여 있지 않은가' 내 마음부터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다. 내 마음속의 탐진치를 말끔히 거두기 위한 자기 성찰이 실상을 바로 보는 안목, 즉 정견을 열어주는 첫 단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배지선(대구주재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김성필 성원토건 前 회장에 관심을

얼마 전 공적자금 비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온 사회가 들썩거렸다.

나 또한 공적자금을 이용한 호화주택 마련 등의 보도를 보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뿐이었다. 만약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범죄에 대해 명백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보도내용에 대해 성원건설 김성필 전회장 측은 상당부분 왜곡·과장됐다며 연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호화주택'으로 알려진 연화사의 경우 스님들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도록 김 전회장이 직접 구입하여 통도사에 기증한 도심사찰이고, 체력 단련실은 사용하지도 않는 빈 공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이 보도내용의 당사자인 성원건설 김성필 전 회장이 그동안 사찰이나 유치원, 서민 임대아파트를 무상으로 보시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불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이다.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그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불교계에서 그동안 수많은 선행활동을 벌여온 김성필 전 회장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지난 과거를 보면 좋을 때는 발 벗고 나서서 챙기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의 일 여기듯 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다. 어려울 때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김성필 불자가 새로운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

유철상(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종교란 이름의 폭력 안 된다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예배에 반발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강의석 학생이 결국 제적됐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특정한 종교의식을 강요하고 있다는 데 분노를 감출 길이 없었다. 또한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관련학생을 제적시키는 일까지 자행되고 있다니…. 도대체 이 사회에 종교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만행이 저질러 있는지 모르겠다. 종교가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파행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

게다가 이번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나 싶게 세인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 이는 한국의 전통종교이자 정신인 불교가 앞장서 이를 규탄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또 사건 해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종교적 관행·행위들을 재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계 스스로 종립학교 및 관련기관들의 종교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이를 배척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교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닌, 모든 모서리들을 안전히 보호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

김은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존경받는 불자 국회의원 되길

17대 국회 정각회가 6년만에 재결성됐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갑다. 16대 국회에서는 정각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불자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다. 미진한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신행활동도 활발히 보이지 못했다. 이를 지켜본 불자들은 적지 않은 실망을 느꼈다. 그래서 더욱 17대 정각회 회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인지도 모르겠다.

바라건대, 불자 국회의원들도 올바른 신행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정기적으로 사찰법회에 참석해 자신을 가다듬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또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겨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불법을 실천하고 수호하는데 직업과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부처님 법은 무차의 인과법이기 때문이다. 불자 국회의원도 부처님 법을 따르는 제자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조철규(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가)

'현대' 만평 심 민 섭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直) (02)737-8881(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아이디어 라이프 / idea

산을 좋아하는 등산매니아의 꿈의 신발 …

"아이젠부착 등산화 싼스타"출시

제네바 국제발명대회 국내 최초 특상 수상

신발에 부착된 아이젠 미끄러운 곳에서 레바만 돌리면 안전



(그림1) (그림2)



눈, 비 올 때와 하산할 때 최고

등산화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산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배낭속에 아이젠(미끄럼 방지기구)을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러나 이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는 아이젠이 부착된 "등산화 싼스타"의 발명으로 등산매니아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겨울이 아닌 일반 계절에도 하산할 때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실족하는 경우가 빈번이 일어나고 특히 여름 산행은 갑작스런 소나기로 등산길이 대단히 미끄러워 아이젠은 등산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품이다.

아이젠 등산화 싼스타는 신발 밑창 뒷부분에 간편하게 고정되었(그림1)다가 미끄러운 곳을 지날 때에 간편하게 레바만 돌리면(그림2)눈이 있는곳이나 빙판길 또는 비올 때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아이젠을 간단히 떼었다 붙였다 할수도 있다. 세계적 권위를 가진 제네바 발명대회에서 국내 최초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신발은 기능성도 최고지만 최첨단 신소재가 총동원 된 등산화로, 신는 순간부터 제2심장이란 발바닥 용천을 지압해 장시간 산행에도 피곤함이 없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성 신발 과학의 결정체로 평가하고 있다. 아이젠 등산화 싼스타를 발명하고 개발한 (주)에스더 관계자는 계절에 관계없이 등산에는 꼭 필요한 안전장비라고 강조한다. 가격 135,000원 (080)555-3080

살 빼는 신발 "스타필드"인기짱

독일 뮌헨 기능성 신발대회 대상수상



▶한국, 미국, 일본 발명 특허

다리는 힘이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어 비만으로 고민하는 이 들에게 신기만 하면 다이어트와 운동이 되는 "스타필드" 신발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이어트 신발 "스타필드"는 착용자체가 근력 향상과 지압, 스트레칭 효과를 높여 결국 별도의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않아도 신고 활동하는 자체가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 시킨 아이디어가 톡톡튀는 다이어트 슈즈다. 스타필드를 신으면 자연스레 '발중심-발앞굽 보행'만이 가능해 종아리 부분의 근육과 대퇴근이 반복적으로 이완되기 때문에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켜 다이어트의 효과를 얻도록 설계된 신발이다. 또한 스타필드에 적용된 기술은 뒷굽이 없어 뒷축에 실리는 체중을 분산 시켜 뇌까지 전달되는 충격을 일반화를 착용했을 때보다 35% 까지 감소 시켜 준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를 착용해 본 이들은 스타필드의 다이어트 운동효과에 대해 한결같이 반응해 지고 있다며 다이어트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뒤굽을 15 만큼 없앴기 때문에 스타필드는 뒷축이 3cm공중에 떠 있어 키 작아 고민하는 이들이 다이어트의 함께 3cm 커 브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세계적인 전문성 신발 제조회사 (주) 삼덕통상에서 제작하여 전량 미국, 일본, 독일에 수출되는 이 신발은 국내 보다는 일본, 독일에서 먼저 붐이 일어나고 2003년 독일 뮌헨 기능성 신발대회에서 최고의 대상을 수상한 신발이다. 가격135,000원 (080)-555-3080

▶월 2kg 이상 감량 효과

■ 효도신발의 대명사

기능성 건강신발 '룸비니'국내최고인기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로 국내시장 석권

부모님들 받고 싶은 선물로 1위
갑신년 신발 받으면 무병장수 뜻있어 불티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 룸비니를 신는 순간 누구나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룸비니 신발 출시 2년 만에 신어본 고객의 입과 입을 통해 10시간을 걸어도 피곤치 않는 신발로 국내 시장을 석권하며 효도신발의 대명사로 브랜드를 굳히고 있다. 한국인 체형에 맞게 인체공학적이고 과학적인 설계로 오랫동안 걸어도 발이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진 최고급 기능성 신발이며 천연가죽중에 최고급인 송쉬는 가죽 뉴백을 사용하고 최첨단 신소재와 몸의 균형을 반듯하게 잡아주고 눈비 올 때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위해 밑창을 초경량 골프그립을 개발했다. 또한 관절염,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신발에서 음이온과 氣와 원적외선을 발산하게 만든 신발이다. 원래는 불자님들의 예불화로 개발했기에 부처님 탄생지 이름 룸비니를 브랜드로 했으나 출시 2년도 안돼 불자님들은 물론 일반인과 기신교 신자들까지도 다른 신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볍고 편하며 디자인도 세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신을 수 있는 최고급 신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무원 K씨는 어머니가 10년이상 관절염으로 활동도 못 하고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하던 중,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란 신문기사를 읽고 속는 셈치고 구입 해 드린것이 지금은 11km 이상 걸을 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서초구에 사는 P여사는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산이 중단되면 어떡할까 해서 평생 신으려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신고 법기 쉽게 지프를 달았으며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는 ㈜ 자를 지포고리에 넣고 밀창에는 가는 곳마다 화를 좋으며,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하는 금강저를 넣어 길 떠날 때에 자신감도 갖게 한 것이 특이하다. 성불화룸비니는 남녀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 준다. 가격 88,000원 문의(080-330-7555) 농협 906-12-369914 김현석

삼고 금강저 건강밸트

험한 세상 믿음의 호신용으로 인기

삼고금강저 (金剛杵)



삼고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이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밀교의 단다라에는 금강부의 여러 존상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고 있으며 금강역사는 부처님의 불력으로 악귀와 잡귀도 물리쳤을 정도로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를 뜻한다.



• 장도 튼튼!! • 허리도 튼튼!! • 승리의 수호신!!

국내 불교성구 전문업체인 관음예술원에서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인 삼고 금강저를 밸트에 부착하여 남자분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축원 불공을 마치고 출시했다. 1분 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납치, 살인, 강음, 강도, 유괴 사고등 항상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자동 밸트는 실용신안 및 건겸밸트로 특허를 획득한 국내 밸트 중 기능성을 가진 최고급 자동 밸트로 평가 되고 있다. 출시 기념으로 여성들이 핸드백이 넣어 자신감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가격65,000원 문의(080-330-7555)

고 금강저는 부처님의 법구 중 법구로서 닥쳐올 화를 미리 피하게 하고, 악한 인연을 만나지 않게 하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모든일에 승리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부처님 성구다. 업체 관계자는 금강저 밸트에서 발산되는 氣와 원적외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허리와 장이 약하신 분은 착용하면 튼튼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금강저

화제의 시계

관세음보살 수진언 복 시계

가지가지 재물과 땅속에 보물을 얻으리라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어려움을 해결 해 주고 각자 소원하는 소망을 성취시켜 주는 영험의 진리를 담고 있다. 불경에 입각하여 불교성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은 관세음보살42수진언 중에서 늠에 지니고 다니면 재물이 들어오고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소유하여 가진 재물의 손실을 막아주는 "관세음보살여의주보험수진언"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시계로 제작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종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 또는 장사가 어려운 분과 가진 재물을 잃지 않도록 스님께서 불자들에게 그림으로 그려줘 몸에 지니고 다니게 했다. 일본산 고급시계로 앞면에는 관서음보살 여의주 보험수진언을 넣고 뒷면에는 부처님진언을 넣어 품위가 있고 세련되며 선물로도 영원히 남을 듯이 담긴 최고급 선물이라고 관계자는 말한다. 여성용은 75,000원과 남성용은 85,000원에 축원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문의(080-330-7555)

관세음보살 백연화 향로

네 소망이 성취되고 후손이 영화롭고 번성하리라

'소원성취 향로' 화제집중
99%청동을 만든 국보급 명작

불경에 입각한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에서 불교의 관음 신앙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영험의 손모양과 지물을 향로로 제작해 장간불공과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 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 백연화는 큰 스님들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겪는 불자들에게 긴급비방으로 사용해 왔다. 출시한지 100일도 안되어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피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소원성취 향로다. 특히 갑신년에 부처님 공양구를 가정에 모시면 삼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화를 좇고 꾀었던 일들이 풀린다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관세음보살백연화 향로는 99%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건들어 들어오는 향로는 간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화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백연화 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여불식 또는 제례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 받고 있다. 가격295,000원 (080-330-7555)



무게2.7kg높이22cm가로17cm

“베풀때 사랑이 더 잘 보여요”

좌절의 순간엔 늘 어머니가 격려 … 세상 향한 나눔의 ‘보은’

“세월아 네월아 나달 봄철아 오고가지 말아라. 알뜰한 이팔청춘이 다 늙어를 간다. 세월이 가려면 저 혼자나 가지 알뜰한 청춘을 왜 데리고 가나.”

7월 11일 서울 구기동 청운양로원에 때 아닌 노래자랑대회가 열렸다. 저시력장애인연합회 미영순 회장(56)과 다섯 명의 회원들이 ‘주최’한 마당이다. 어깨춤을 덩실거리며 불러 제끼는 이월순(79) 할머니의 구성진 가락에 다른 할머니들도 함께 흥얼대며 어깨를 들썩인다. 미 회장도 더불어 능숙한 춤사위로 흥을 돋운다.

매달 둘째 일요일이면 청운양로원을 방문하는 미 회장과 회원들은 7월 둘째 일요일을 맞아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다. 이들의 역할은 할머니들의 식사를 돕고 함께 놀아드리는 것이다. 이 날의 놀이는 노래자랑. 요구르트가 상품으로 내걸렸다. 결국은 모두에게 돌아갈 상품이지만 초라함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미 회장의 정성을 잘 알기에 아무도 불평하는 이가 없다.



미영순 회장과 청운양로원 할머니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 회장은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시력이 나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2급 장애인이다. 걸을 때는 발끝의 감각에 의지해야 하며, 망막이 약해 강한 빛은 피해야 하고, 때로는 높은 안압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도 이겨내야 한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챙기기도 힘들지만 “세상에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있다”고 확신하기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째다.

미 회장의 시력이 저하된 것은 경기여고 2학년 때. 학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17세의 소녀는 푸르른 꿈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고통도 미 회장의 향학열만은 꺾을 수 없었다. 27세에 다시 공부를 시작, 한국방송대, 국민대를 거쳐 대만 문화대학에서 한중관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기에 이른다.

장애는 미 회장에게 큰 불편을 안겨줬지만, 동시에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게 한 계기도 됐다. 순번을 정해 미 회장의 등하교와 노트필기를 도와준 학우들이나 그에게 지원된 장학금 등 모든 것이 미 회장에게는 고마운 일이었다.

이처럼 세상이 자신에 베푼 도움들에 대한 보답의 방식으로 미 회장이 택한 것이 봉사활동이다. 미 회장의 봉사활동은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이듬해인 1990년부터 시작됐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말벗 봉사,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 등 능력과 형편에 맞게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왔고, 1999년에는 저시력장애인연합회를 구성해 장애인들의 학업과 직업 활동을 도왔다. 그 공을 인정받아 지난 6월 30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용준) 주최의 ‘희망 2004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게 봉사란 환원입니다. 그 동안 받아온 도움들을 빚으로 남기지 않고 다 갚고 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나눔운동으로 사후전신기증까지 약속했으니 이쯤이면 철저한 환원이다.

미 회장이 실명의 위기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데는 어머니와 불교의 힘이 컸다. 어머니는, 사람은 누구나 장점을 갖고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 장애로 인해 인생까지 망치는 일은 없도록 경계했다. 또 딸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해 좌절의 순간에도 딸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어머니는 행동과 말씀으로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셨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분입니다. 제게는 관세음보살과 같은 존재지요.”

우연한 기회에 맺은 불교와의 인연은 실명의 위기에 처한 미 회장이 장애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심어줬다.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만 도태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는

시력 저하에도 불구 봉사활동 15년째
99년 연합회 구성, 장애인들에 큰 힘
원스톱 재활센터 · 음성신문 발간 숙원

‘색으로 나를 보거나 소리로 나를 찾는 이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여래를 볼 수 없을 것이다(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는 <금강경> 사구게를 되새기며 형상에 얽매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 집착하다보면 정신까지도 피폐해지기 쉽습니다. 마음만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불교가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현실의 고통에 힘겨워 손을 내밀어도 불교계에서는 이를 외면한다는 게 미 회장의 불만이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불교가 정작 누구보다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장애인을 외면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미 회장의 숙원은 저시력장애인을 위한 심리상담, 생활 · 직업재활, 진료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재활센터를 건립하는 것과 장애인 포교를 위한 ‘음성신문’을 만드는 것이다. 두 목표를 달성하고나면 다시 한중관계로 돌아갈 계획이다. 전공분야에서 업적 하나쯤은 남기고픈 바람 때문이다.

자신의 장애를 딛고 남을 돕는 값진 삶을 살아가는 미 영순 회장. 비록 눈에 비치는 세상은 흐릿하고, 앞에 놓인 것은 더듬더듬 가야 할 가시밭길뿐이지만 미 회장은 세상을 환하게 밝히며 오늘도 힘차게 걸어간다. “어제보다 겨자씨만큼 더 깨친 오늘을 위해….”

글=박익순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8월부터 저시력인연합회에서는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교육을 시작합니다. 저시력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봉사 내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시도되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공부지도, 자료검색 등 필요한 봉사활동은 다양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02)777-1444

불교서적전문출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수행길에서 만나는 스님들은 모두가 선지식이다”

스님이야기



홀로 피었다가 홀로 지지만 그 향기만은 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전해지는 들꽃같은 스님들 85명의 진솔한 수행일화

이 책은 스님들의 수행과 일상사를 여과없이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님들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들의 다양한 수행 이야기가 감칠맛나는 문체에 녹아 있어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청정한 스님들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해 주는 힘이며,
이러한 스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자들은 살 맛이 나고 희망을 갖게 된다.
- 현대불교신문 기사 중에서 -



지묵 스님 외 14인 지음 | 신국판 | 448쪽 | 12,000원 | 여시아문

책에 나오는 스님들 - 무소유의 큰 스승 **법정** 스님 / 20년 장좌불와 **자유** 스님 / 사창안내의 ‘원조’ **인암** 스님 / 분별 · 시비심 끊어진 **정화** 스님 /집착하지도 떠나지도 않는 **현장** 스님 / 열정의 인권운동가 **진관** 스님 / 한결같은 인욕 · 하심 **지월** 스님 / 수행자로서의 투철한 삶 **홍법** 스님 / 후덕한 주지 **혜성** 스님 / ‘산 거지’ 자처 **정우** 스님 / 햇차 같이 샤프한 **여연** 스님 / 병든 처사 헌신적으로 돌본 **묘운** 스님 / 옷 한 벌이 전 재산 **진공** 스님 / 진정한 무술 고수 **대오** 스님 / ‘가야산 호랑이’ **정원** 스님 / 냉정함과 따뜻함의 조화 **종진** 스님 / ‘화엄신장’ 같은 고참 수좌 **중천** 스님 / 효심 지극한 **현진** 스님 / 중앙승가대 정규大 인가 앞장 **금정** 스님 / 理事 두루 밝은 **원타** 스님 / 불교문학 발전 견인차 **해관** 스님 / 생명나누기 실천교육 20년 **종실** 스님 / 뜨거운 피 · 절절한 가슴 **혜조** 스님 / 영원한 선지식 **고송** 스님 / ‘뿌리깊은 나무’ **종범** 스님 / ‘공포의 목침할배’ **정하** 스님 / 결제 땐 면벽, 해제 땐 기도 **법현** 스님 / 해조음처럼 편안한 **허운** 스님 / 가슴 뜨거운 소신파 **현담** 스님 / 운문인들의 귀감 **홍륜** 스님 / 운문도량 ‘지킴이’ **일진** 스님 / 주관 뚜렷한 노력파 **혜원** 스님 / 감각 뛰어나고 재주 많은 **정안** 스님 / 물 흐르듯 거침없는 말과 글 **자폭** 스님 / 방황과 갈등 ‘공부’로 승화 **불글** 스님 / 해제 · 결제 따로 없는 **일선** 스님 /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 **향산** 스님 / 효성 지극한 묵언수좌 **환기** 스님 / 소탈해서 더욱 빛나는 **현봉** 스님 / 자애로운 눈빛, 맑은 미소 **효명** 스님 / 따뜻한 마음, 깔끔한 강의 **일초** 스님 / 장좌불와 · 일종식 계속 **금산** 스님 / ‘불교문화유산 지킴이’ **홍선** 스님 / 나서면 ‘만사형통’ **자용** 스님 / 농사짓고 공부하고 **관문** 스님 / 병자의 슬픔 · 고통 함께 **지홍** 스님 / 사회번혁운동 앞장 **유곡** 스님 / ‘1등 포교사’ **홍도** 스님 / 전형적인 수행자로 일관 **서암** 스님 / 남다른 문학적 재능 **원철** 스님 / 전법제일 ‘부루나’의 후예 **현원** 스님 / 군포교 헌신 **성광** 스님 / 산새 · 짐승들과 교감 **정호** 스님 / 언제나 반듯한 수행자 **현덕** 스님 / 끝없이 차 공양 **우진** 스님 / ‘이상적 도심포교당’ 계획 **지태** 스님 / 미소 잃지 않는 ‘자비보살’ **만초** 스님 / 서릿발 같은 기상 **현근** 스님 / 90세에도 어디든 가서 법문 **호명** 스님 / 호거산처럼 넉넉한 품 **명성** 스님 / 기도정진과 이타행 **형문** 스님 / 병고를 인욕으로 승화 **자우** 스님 / 늘 초발심으로 정진 **설송** 스님 / 삶의 따스함 가르쳐 준 **법인** 스님 / 오롯이 한 길 매진 **미산** 스님 / 자상한 탁마의 도반 **상묵** 스님 / 덕승산 가풍의 계승자 **보리** 스님 / 도시로 입산한 ‘만능인’ **덕신** 스님 / 수덕사 ‘터줏대감’ **영수** 스님 / 당당한 출가인의 표상 **휘광** 스님 / 언제나 젊은 마음자리 **수암** 스님 / 굴삭기 운전하며 불사 **금강** 스님 / 급함 · 욕심 · 시비 없는 **성전** 스님 / 깐깐함과 자상함의 조화 **효명** 스님 / 마음까지도 다 주는 **석두** 스님 / 속명을 불명으로 **대석** 스님 / 게으름 허용 않는 **지산** 스님 / 만날 때마다 깊어지는 수행 **대공** 스님 / ‘몸 아픈것도 내 탓’ **영호** 스님 / ‘수행자의 여법함’ 보여준 **원타** 스님 / 학문에 남다른 열정 **성원** 스님 / 만날 때마다 순수함 더하는 **영각** 스님 / ‘불사佛事 제일’ **자문** 스님 / 도심포교의 베테랑 **죄휴** 스님 / 청소년 포교 중요성 알려 준 **묵주** 스님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12>

美를 추함으로 여기는 부정관 수행

경전 특히 <아함경>과 같은 초기 경전을 읽다보면 수행방법으로 부정관(不淨觀)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정관은 글자그대로 더러움을 관찰 한다는 뜻인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에 대해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부정관을 닦게 한 이유는 수행자로 하여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몸에 대한 집착과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라자가하에 시리마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기생이 있었는데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 아주 깊었습니다. 유명한 의사이며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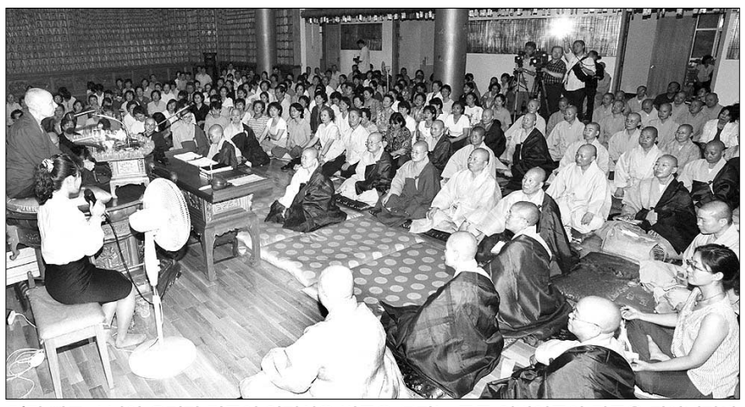
의 주치의인 지와까의 동생이기도 한 그녀는 아름다운 용모와 함께 마음도 고왔으므로 성안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여서 빔비사라왕 까지도 그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가 어느 날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빔비사라 왕은 부처님을 찾아뵙고 아깝게도 아름답고 신심이 거룩한 그녀가 죽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빔비사라 왕에게 당분간 시신을 땅에 묻지 말고 잘 보호해 두라고 특별히 청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이와 같은 청을 받은 빔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시리마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살아 있을 때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녀도 이제 더 이상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곱기만 했던 피부는 변색되어 부풀어 올랐고 악취와 함께 구멍 마다에서는 더러운 물이 흘러 나왔으며 구더기가 들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즈음에 부처님은 비구들과 함께 묘지로 가시어 비구들로 하여금 아름다웠던 시리마의 시신을 관찰하게 하셨습니다. 이 때는 빔비사라 왕도 신하들을 거느리고 와서 함께 그녀의 썩어가는 몸을 관찰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또다시 부탁하여 누구든지 화대 천 냥을 내고 저 죽은 시리마와 함께 하룻밤 지내보게 하라고 광고하게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같이 공지하였으나 아무도 나타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화대를 내려 오백 냥, 백 냥, 십 냥 식으로 하여 아무것도 내지 않는 조건으로까지 하였으나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몸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람의 몸이란 실로 이와 같으니 이무상한 육신을 탐하고 집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많은 대중은 감동했고 나이 많은 비구니 웃따라는 수다원과를 성취했습니다.

이 부정관 수행법을 말한다면 그냥 더러운 시체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 단계로 수행자는 시신 앞에 앉아 위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시신의 변화 모습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러다 이 단계에서는 그 보아왔던 시신을 집중적으로 마음에 떠올리게 되는데, 이 떠올리는 수행을 계속 하다보면 나중에는 마치 시신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면서 확고한 삼매가 형성 됩니다. 이 삼매를 경험함으로써 수행자는 자신과 남의 몸에 대한 애착과 감각적 욕망이 파괴되고 종국에는 마음의 평온이 생깁니다.

<유마선원장>



텐진 빠모 스님의 유머가 곁들인 알기쉬운 법문은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수행은 나와 이웃 행복해지는 길

텐진 빠모 스님 '깨달음 향한 여성의 삶과 수행' 법문요지

"어머니, 저 인도로 갈거예요."

"정말이니, 언제 떠날거니?"

"19살이었던 어느날, 저는 막 직장에서 돌아와 이렇게 말했지요. 늙으신 어머니는 홀로 남을 자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은 체, 딸의 행복을 위해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집착과 소유 없는 사랑이 아닐까요?"

서양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티베트 스님이 되어 33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히말라야 설산 동굴에서 12년간 수행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비구니. 우리에게는 지난해 소개된 책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를 통해 잘 알려진 텐진 빠모 스님(61 · 인도 동규 갓찰링 승원장)이 전한 메시지는 출가와 재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분별을 떠나 늘 '집착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었다.



'웃음 보시' 상대 마음도 바꿔 스스로 지혜 닦고 보살행을

7월 13일 오후 전국비구니회관에서는 여성 불자 300여명이 제8차 국제여성불자대회 참석차 방한한 텐진 빠모 스님의 법문에 이목을 집중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이 주최한 이날 법회의 주제는 '깨달음을 향한 여성의 삶과 수행'. 빠모 스님은 '여성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은 경전을 통해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거듭 역설하며, 일상 속에서 보살행과 지혜를 닦아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해 지는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대승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중생에게 불법을 전해서 함께 열반의 세계에 드는 것이고, 소승불교는 자기 자신의 해탈을 위한 깨달음의 수행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살행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의 공통점이 완전한 행복의 추구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날 빠모 스님은 '모든 존재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전제아래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보살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법했다. 특히, 스님은 이날 법문 중 상생의 보살행과 관련, 나와 상대방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웃음 보시'라는 예를 들어 불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스님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수행한다면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늘 생활 속에서 자리(自利)와 이타(利他)행을 겸해야만 바른 수행이란 뜻이다. 이것은 '생활 속의 수행'을 통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기도 하다. 스님은 늘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깨어있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했다.

빠모 스님은 지혜를 닦고 보살정신으로 남과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며 환한 미소로 법문을 마무리 했다.

이날 법회 후 불교여성개발원은 인도 북부 타시종에 여성수행자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빠모 스님에게 전달했다. 현재 타시종 인근에 여성 승원인 '동규 갓찰링(www.gatsal.org)'을 개원해 여 수행자 20여명을 지도하고 있는 빠모 스님은 인도-네팔 지역의 가난한 여성 80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 모금 활동도 벌이고 있다.

김재경 기자

"여성도 깨달을 수 있다"

일문일답

▲타인에 대한 진정한 자비와 사랑은 부처님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완전한 자비를 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지혜를 함양하면 누구든 그와 같은 자비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이 너무 짧아 사랑만 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깨달음을 향해 닦아나갈 것인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를 활용해 타인을 위해 살면 공허하지 않고 모두 행복해 집니다. 자아 성취와 타인의 행복이 둘이 아닙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만이 진리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진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타행만이 성불의 길은 아닙니다. 자비행과 동시에 끊임없는 지혜의 계발이 불도를 성취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모든 집착과 번뇌를 벗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처음 수행할 때는 자기 정화와 집중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의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대 초반 스님의 책을 읽고 여자인 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환희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경전에서도 증명되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6년이 지난 후, 아난다에게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한 뒤 스스로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집안 대대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저는 신학대학에서 목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폭력성에 회의를 느껴 목사의 길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랑과 자비의 종교가 오히려 폭력과 살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목사가 되는 일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일이지만, 부디 목사와 기독교라는 이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사랑에 대해서만 귀기울이세요. 당신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지, 기독교의 성직자가 아님을 잊지 마세요.

김재경 기자

빠모 스님의 수행법

"사마타와 위빠사나 동시에 닦아야"

1943 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빠모 스님은 20세에 인도에서 영적 스승인 캄트룰 린포체를 만나 제자가 된 뒤, 33세에 수백년 동안 금녀의 지대였던 티베트 수도원에 들어가 12년간의 설산 동굴 수행을 시작한다. 산사태, 맹수의 위협, 극심한 추위, 눈과 얼음 장벽으로 1년 중 8개월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동굴에서 12년의 수행을 포함, 모두 18년의 은거 수행을 해낸 빠모 스님은 마침내 깨달음을 체험했다고 하며 동굴에서 나와 세계 각지를 돌며 여성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빠모 스님은 전통적인 두 가지 수행법 즉, 사마타(止, 선정)와 위빠사나(觀, 관법)를 동시에 닦을 것을 조언한다. 그는 "사마타 수행은 마음 한 쪽에서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며 "마음을 절반 쯤만 쏟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마음속 내적 갈등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또 위빠사나에 대해서는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커다란 물음표를 간직한 채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빠모 스님은 우선 고요하게 머물기, 즉 사마타 수행을 한 다음 직관(위빠사나)을 계발할 것을 강조한다. 선종에서 말하는 지관겸수(止觀兼修)이자 정혜쌍수(定慧雙修)와 다름이 없다. 또한 지혜와 자비의 조화를 강조하는 빠모 스님은 이를 위해 '모든 부정적인 것을 흡수해 내려놓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통랜 수련법 즉, 보리심과 자비심에 근거한 '주고 받음의 수행'을 강조한다.

관절염에 "글루코사민샥카트리지"

서울대 병원에서 효능A등급 제품으로 선정



주요성분 및 특징

• 제품의 내용량
글루코사민 샥카드리지 180정(2개월분)×3병

• 1정당 성분 및 함량
글루코사민 500mg, 상어연골분말(콘드로이친함유) 400mg, 구연산칼슘150mg, 비타민 C 75mg, 비타민B, 비타민D3, 토코페롤, 아연, 망간 등

• 섭취대상자
- 관절과 연골영양공급이 필요한 노약자 갱년기 여성
- 무릎이 쑤시고 계단을 오르내릴때 불편하신 분
- 관절이 심한 통증과 뻣뻣함을 느낄때

• 관절염이란? 뼈에 영양을 공급해 뼈속이 좋아야만이 낫는 병입니다.

글루코사민 삭카드리지란?

· 미국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관절영양제
· 관절치료제인 기존의 글루코사민보다 효능을 높이기 위해 상어연골, 칼슘, 비타민, 아연, 망간 등 관절과 연골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한 복합제
·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상결과 그 우수한 효능발표 -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도 인정
· 연골의 파괴 효소를 막고 연골을 생성 촉진하는 제제

= 복용시 =

· 2~3주후면 효과발현 시작
· 4~8주면 30~50% 호전 단계
· 6개월이면 90%이상이 만족

* 글루코사민은 1일 1500mg을 6주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해 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용량은 몸무게에 맞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고시(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지(원산지) : 미국 수입 완제품

*신용카드 구매 가능

상담문의 : 080-631-4525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74번지 세종별관 3층 서부통상

신라천년의 숨결, 화랑이 나를 부른다~

선무도 청소년 화랑(여름) 수련회

골굴사 선무도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지평'**(조선일보-2001.12)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사찰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맛봄으로써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 **언 제** : 하 계 - 7월 ~ 8월(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1주, 2주, 한달)
▶ **대 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단체, 워탁연수
※ 동참금은 청소년 - 1일 2만원, 한달 60만원, 성인 - 1일 3만원, 1개월 65만원이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셨더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농 협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준)

- 수련내용 -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무용,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 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 **지도진 : 스님 · 사범 등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 • 전공자), 다도강사 2명**
※ **접수 및 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일 과 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 수련(학생)
6시	조깅,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학생)
7시	아침 공양(발우 공양)	16시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공양
9시	오전 선무도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회록(학생)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탬플스테이 지정 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선무도 대금강문 • 선무도 대학

“삼매 없는 요가 안타까워…”

‘요가수트라’ 강의 나선 인도철학의 대가 원의범 교수



원의범 교수



7월10일 서울 신촌의 홍익요가연구원에서 ‘요가수트라’ 강의에 나선 원의범 교수.

요가의 오래된 맛과 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인스턴트식품처럼 퍼져가는 요가 수련원, 그리고 기계적인 아사나에 목마른 요기(yogi · 요가수행자)들을 바라보는 노교수의 마음이 편치 않다.

“요가는 삼매입니다. 일체의 본바탕이자 심법(心法)입니다. 철학을 잊고 수련하는 수행자들이 안타깝습니다.”

동국대 원의범(83) 명예 교수가 7월 10일

“국내 대다수 요가수련원 기본 철학조차 안가르쳐”

서울 신촌의 홍익요가연구원에서 <요가수트라> 원전 강의를 시작했다. 40여명의 수련생들은 인도철학의 대가가 풀이하는 요가경전 강의를 듣기 위해 휴일 아침도 반납한 채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요가수트라>는 기원전 200년경에 인도의 파탄잘리가 저술한 요가경전으로, 고전요가를 대표하는 요가철학의 중심 사상서. 원 교수는 기본적인 요가철학의 보급조차도 이뤄지지 않는 국내 요가수련원 현실을 비판하며 요가수트라 원전 강의를 자청했다. 이론과 실천을 하나로 생각하는 이승용 홍익요가연구원장이 그 뜻을 함께 나눴고, 연구원의 요가지도자 · 수련생들은 그것에 동참하고 나섰다.

강의는 산스크리트 원문과 구문의 직역, 그리고 원 교수의 추가적인 해석으로 이뤄졌다. 원 교수는 삼매의 장, 실수련의 장, 신통의 장, 자유의 장 등 4장으로 이뤄진 경전을 하나하나 풀이하며 요가철학의 맥을 짚어나갔다. 경전의 구절구절을 낱낱이 발음해가면서 다양한 번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수십 여 년간의 연구 경력을 살려 가장 적절한 해석의 틀을 내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틈틈이 인도철학이라는 거대한 사상 체계로 시야를 확대해 수강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인도철학을 물이라 하면, 요가철학과 불교철학도 물입니다. 그런데 요가철학은 소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철학은? 경우에 따라 소금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 철학은 ‘해탈’에 이르는 ‘바른 방법’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닮아있다. 요가는 관념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새롭게 하는 방편을 제시할 수 있다. ‘물구나무 서기’가 ‘요가 체위의 왕’이라 불리는 까닭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힘든 자세를 소화해 낸다는 의지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원 교수는 “요가는 나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완성하려는 인간 정신에 대한 이해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번역방향 제시 인도철학으로 시야 확대

‘이번이 마지막 강의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 시간이 넘는 강의를 쉼없는 열의로 채우는 원 교수. “요가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살아있는 대가의 강의다웠다”는 한 수강생의 말처럼, 남은 강의를 기대하는 이들 역시 그에 못지않은 열정으로 10주를 보내지 않을까. 홍익요가연구원 =(02)333-2350

강신재 기자

여성운동가 새 활동 방식 ‘명상’

“건강위해 시작…실존 문제로 깊어져”

명상이 여성운동가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정전 50주년을 맞아 명동성당 앞에서 ‘걷기명상’을 통한 반전평화시위를 벌인 이래 명상을 여성단체 활동 전반에 폭넓게 응용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대표 이철순)는 틱낫한 스님의 방한 이후 단체활동가들의 재충전을 위해 계룡산 수련원에서 명상 및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평화를만드는여성회(공동대표 이김현숙 · 김숙임 · 심영희)는 3년 전부터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분노와 화를 다스리고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다.

개인적으로 명상을 생활화하는 여성운동가들도 적지 않다. 여성연합 대표 출신인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마음공부 ‘방하(放下)’ 수련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이상영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는 요가적 삶을 주창하는 ‘에코(eco)요가’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부대표를 지낸 왕인순 씨는 여러 명상법을 섭렵하는 것은 물론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진학해 상담심리학과 요가치료학을 공부할 정도로 전문가다.

이상영 여성연합 대표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명상을 시작한 여성운동가들이 이제는 실존적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명상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禪과 21세기

선의 세계 ㊷

교외별전(教外別傳)-12

서양학자들은 선종을 두고 흔히 “우상타파적”(iconoclastic)이라고 말한다. 우상이라 하면 우선 신상(神像)이 떠오르고, 불교에서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불상(佛像)과 보살상(菩薩像), 그리고 각종 신중상(神衆像)이 있다. 우상타파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두들겨 부순다는 건가? 누구나 잘 알다시피, 선종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두들겨 부수지는 않는다. 선종 사찰에도 불보살상, 나한상, 신중상을 다 갖추어놓고 심지어 칠성각, 산신각까지 있다. 탑도 많다. 그 앞에서 절하고 기도한다. 그런데 선종이 우상타파적이라니? 한국에서 크리스트교, 특히 개신교 신자들은 불교를 오히려 우상숭배라고 비판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는 선종이 가장 우세한 종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

서양학자, 선종의 특징 ‘우상타파’ 꼽아 가짜를 진짜로 믿는 것도 우상숭배

하기는, 우상타파라고 할 때 생각나는 선의 일화가 있기는 하다. 옛날에 어떤 선사가 수행하다가 너무 추워서 법당의 목불(木佛)을 쪼개서 군불을 땠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런 일화는 아주 드문 예외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오죽하면 이야기로 남아 전해지겠는가? 만약에 선종 사찰에서 불상을 다 치워버리고 참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일화는 이야기 거리도 되지 않았을 터이다. 그러면, 학자들이 선종을 두고 우상타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기에서 우상이라고 한 것은 신상이나 불상처럼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존재의 형상을 빚어놓은 것만을 가리키기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뜻을 담고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각하고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초월적인 것, 초경험적인 것으로 여기고는 숭배하는 태도를 문제 삼는다. 달리 말하자면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을 거룩한 것으로, 세간적인 것을 출세간적인 것으로, 피조물을 조물주로, 종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숭배할 때 그 숭배대상이 된 상대적인 것, 세속적인 것, 세간적인 것, 피조물, 종을 편의상 우상이라고 일컬은 것이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예로 쉽게 꼽히는 것이 신상에 대한 숭배이다.

하지만 신상, 불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작은 예일 뿐이다. 크리스트교에서도 이해가 좀 얕은 이들이나 우상숭배를 그런 뜻으로만 알고 있지, 품위 있는 신학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신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짓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를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는 일이라고 한다. 알다시피 크리스트교에서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호칭을 쓴다. 신앙의 핵심은 나 자신이 피조물로서 이를테면 조물주의 종이라는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한 개체로 만들어져 존재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내가 잘났다는 의식이 없을 수 없고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고 살게 된다. 심지어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점조차 잊는다. 조물주와의 관계를 끊는 셈이다. 여기에서 예를 드는 신학사상에서는 그것을 두고 원죄라고 풀이한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두고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그런 깊은 뜻을 읽어내는 것이다.

선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웬 크리스트교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는가 할지도 모르겠다. 다 연관이 있다. 특히, 불립문자라는 선의 방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상이라는 개념을 그와 같이 넓혀서 보면,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로 착각하고 철석 같이 믿는 것이 다 우상숭배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파동명상을 통한 「빙의 전문 치유사」 마스터 과정

◈ 「빙의 전문 치유사」마스터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빙의령을 찾아내어 타인의 영적문제(빙의현상)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빙의 전문 치유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빙의령과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빙의령을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매주 (화 ~ 금) ◈ 강의장소 : 서울 · 부산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빙의전문 치유 마스터반 : 빙의 전문 치유사 마스터과정으로 4일간 수련후, 수료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방송출연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4년 7월 SBS 세상발견 유레카 출연

저서 :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 빙의「그 영혼의 노숙자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2)996-6156 · 051) 806-8500, 817-6156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서언(4) 육조 혜능의 <금강경>구결을 고르다

이해·소통에 초점 맞춘 시각적인 글

<대승기신론>의 한역(漢譯) 둘과 영역 둘

대장경 가운데 중요한 경전들은 두 번 이상 번역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대승기신론>이 그렇습니다. 6세기의 진제(眞諦) 스님이 해 놓은 것과 8세기 실차난타가 해 놓은 것, 두 개가 있는데요, 7세기에 살았던 원효 스님은 당연히 첫 번째 진제의 역본을 두고 여러 번 주석을 가했습니다. 지금은 소와 별기만 남아 있습니다.

영역은 나중 실차난타의 것이 먼저 되었습니다. 스즈키 다이세쯔가 실차난타의 번역을 토대로 1900년에 처음 이 경전을 영역한 이후, 여러명이 영역에 손을 댔습니다. 지금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것은 하케다 요시토가 1967년대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출판한 것인데요, 대본부터 진제의 것을 택하는 등, 스즈키의 작업과 차별화하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습니다. 스타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즈키가 <대승기신론>의 취지에 초점을 둔 개성적이고 자유로운 문체를 구사하는데 비해, 하케다는 경전의 '문자'에 보다 충실해 어색한 표현이나 불분명한 대목을 그냥 감수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스즈키의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한역은 둘 다를 좋아하는데요, 두 판본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투덜거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차와 어긋남이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여 <대승기신론>을 더 분명하고 풍부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선택한 구마라습의 <금강경>

이야기가 곁으로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려는 <금강경>은 두 번도 아니고, 무려 여섯 번이나 다시, 거듭 번역되었습니다. 이 횟수가 이 경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관 반야의 대가인 에드워드 콘즈는 이렇게 찬탄하고 있습니다.

"반야 바라밀다 문헌은,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후 600년 사이에 걸쳐 인도에서 이루어진, 38개의 서로 다른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일본 티벳 몽고의 불교도들은 30세대에 걸친 판단으로 이 가운데서 둘을 골라냈습니다. 성스러운 중에도 가장 성스러운 둘,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둘 다 아마 기원후 4세기쯤에 성립된 듯합니다. 처음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바즈라 체디카 프라즈나 파라미타Vajra cchedika Prajnaparamita>, 즉 '벼락처럼 짜르는 지혜의 완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중 것은 지혜의 완성의 심장, 핵심, 정수를 정식화하려는 시도로, 티벳의 라마사원 일본의 선방에까지 힘써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수지 독송하는 판본은 아이러니칼하게도 맨 처음에 번역한 것, 즉 A.D. 402년에 구마라습이 번역한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번역은 나중 것이 처음의 실수도 고치고, 표현도 가다듬고 해서 처음보다 훨씬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진 업그레이드판을 대중들이 선호하는 법인데, <금강경>의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다섯 번째 번역에 해당하는, 7세기 중엽 삼장법사 현장의 번역본을 대강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이 영 딱딱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정확한 불교를 알기 위해 인도까지 목숨을 건 여행을 다녀온 사람답게, 현장의 <금강경> 번역은 어디까지나 원문에 충실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읽기 힘든 번역을 만들었고, 결국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금 다른 외국어, 가령 영어문장을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면 의미의 왜곡은 최소화하겠지만, 읽기에는 아무래도 거칠고 불편한 글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럴 땐 참고 읽기도 하지만, 아차 책을 잘못 샀다 싶어 후회하게도 됩니다.

구마라습의 번역은 이방인인 중국의 독자를 우선 배려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정확성보다는 이해와 소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마라습은 번역의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어를 한문으로 옮기는 것, 그것은 흡사 엄마가 갓난애를 위해 밥을 씹어 먹여 주는 일과 같다." 아무리 음식이 기름져도 그것을 '소화'시킬 수 없다면 음식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금강경>을 중국인들에게 '소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맛과 풍미, 즉 경전의 정확성을 어느 정도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배려, 철저한 서비스 정신이 그의 번역을 1500년 너머, 후발 다섯 명의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만세의 표준 번역으로 우뚝서게 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불교는 이 구마라습의 번역 정신을 깊이 벤치마킹하고,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강경>의 五家解 가운데 단연 빛나는 육조 혜능의 구결

그래도 <금강경>은 읽기 힘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옛적 대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씹어 대중들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필자들은 쌍림 부대사, 육조 혜능, 규봉 종밀, 야부도천, 예장 종경으로, 각기 일세를 풍미한 선장(禪匠)들입니다. 조선조의 건립 초기 함허득통이라는 스님이 이 선집의 틀린 글자를 바로잡고 자신의 해설을 덧붙여 간행했는데, 이것이 지금 <금강경>의 유통본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금강경오가해>입니다.

다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단연 육조 혜능의 구결(口訣)을 꼽습니다. 스님의 <금강경 구결>은 불교에의 접근을 가로막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용어들을 배제하고, <금강경>의 취지를 우리네 '마음'의 실제와 구체적으로 연관된 지평 위에서 깨우쳐 주고 있는 과시 걸작입니다.

이어질 제 강의는 <금강경>을 두고, 불교 안과 밖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들, 때로는 모르는 이야기까지 흘어 놓겠지만, 주석이 필요할 때는 육조 혜능 스님의 친절에 기대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려둡니다. 한 사람을 더 꼽으라면 <금강경>의 취지를 격외의 시(詩)로 부수어 나간 야부도천을 꼽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늘어지고 지루하여 조는 분들이 많다 싶을 때, 가끔 그의 시를 불각시의 얼음조각처럼 등 뒤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금강경오가해>는 경서원에서 10년 전에 영인한 목판본입니다. 이 책을 발견하고는, 누가 집어갈세라, 얼른 두 권을 샀습니다. 한 권에는 내키는 대로 밑줄과 노트가 그려져 있고, 다른 한 권은 고이 모셔 두었습니다. 아, 이 책을 꼭 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유용하기는 오히려 한글 번역이 붙은 <금강경오가해>일 것이니, 하나쯤, 가령 무비 스님의 <금강경오가해>를 구해 곁에 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운허 스님(1892~1980): 평북 정주 生. 30세에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 전국불교인대회(1926) 개최. 광동학원 설립. 동국역경원 설립. 한글대장경 간행의 초석 다지기에 크게 기여.

네티즌 교리문답

'백척간두진일보'의 참뜻은?

문 큰스님들이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 숨은 뜻을 알고 싶습니다. ('초학자')

답1: 백척간두는 오르기 힘든 깨달음의 경지를 말한다. 선어록에서 말하는 '고봉정상(高峰頂上)'과 같은 의미이다. 백척간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비록 깨달음의 경지에는 도달했지만, 그 경지에서 안주하고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깨달음의 세계를 체득한 것은 아니다. 이 경지까지도 초월하지 않으면 깨달음의 세계에 떨어져 죽게 된다. 깨달음의 경지를 초월한다는 것은 위가 없는 무상의 불도를 이루는 대승의 원력이다. 깨달음의 경지에 한계가 있다면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보살의 원력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아의식의 번뇌망념을 모두 텅 비워버렸을 때 일체의 모든 존재와 시방세계가 자기와 하나가 되는 만법일여(萬法一如)의 경지가 되는 것이다. 이 글은 <무문관>(한국선문화연구원)에서 인용. ('고봉정상')

답2: <조당집>에서 장사경잠 선사는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었다. "백 척의 긴 장대 끝에 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비록 깨달음을 얻었지만 진정한 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백 척의 긴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방세계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천길의 절벽에서 손을 놓듯 목숨을 걸고 구도의 의지를 표하는 것은 크게 일체의 자아(我相, 人相)를 죽이고(大死一番) 참된 깨달음으로 되살아 나게 됨을 말한다. ('大死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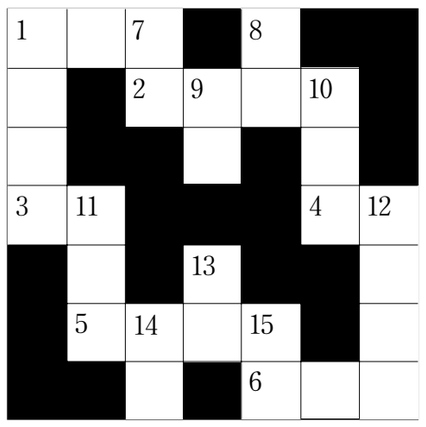
답3: 백척간두에서 한 발 내딛는 실천은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중생의 세계에 몸을 내던져 보살행을 실행하도록 이끈다. 이렇게 될 때라야 제법과 하나되어 진리를 실현하는 불행(佛行)이 가능하다. ('불행수행')

답4: 공부해서 깨달은 바 있더라도(아공)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법집에서도 자유로운(법공) 대자유인, 즉 아공과 법공을 이뤄 시방의 법계와 둘이 아닌 대자유인이 되어야 한다.('여기정답')

답5: 한호흡 삼키고 진일보 하여 죽어야 진실로 크게 사는 도리를 체증하면, 허공에서 뼈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띠집주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가로

1. 말을 탄 행렬의 제일 앞에 선 사람, '일송정 푸른 솔은'으로 시작하는 노래의 제목이기도 함 2. 줏대 없이 남의 의견을 따라 움직임 3. 고마움을 표하는 인사 4. 아름다운 사람 5. 바른 학설을 굽히어 세상에 아첨함 6. 한 집안이나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사람을 비유해 하는 말, 큰 들보.

정답은 26면에

세로

1. 서산대사가 선종의 요긴한 지침을 모아 지은 책 7. 며느리의 한자어 8. 산삼의 씨앗을 받아 재배한 것 9. 신라의 청소년 수행단체 화랑도의 구성원 10. 소금에 절인 통무에 소금물을 붓고 담근 것 11. 어머니의 사랑을 기린 고려 가요 12. 행위의 선악에 따라 상응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말 13.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나'가 없음을 뜻하는 말 14. 출신 학교에 따라 맺어지는 파벌 15.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

돈에도 道가 있다

'알몸이 부처되다' 낸 서광 스님



서광 스님(미국 보스턴 서운사 주지)이 낸 책의 제목은 무척 선정적(?)이다. 바로 〈알몸이 부처되다〉이다. 여기서 '알몸'이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함을 찾으려는 인간의 모습이다. 욕심 때문에 벌거숭이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목말라하는 우리 중생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은 스님들의 주된 화두인 수행이야기가 아니다. 주로 경제 지표인 '돈'에 관한 이야기다. 이 책을 몇장 펼치면 '아니 무슨 스님이 마음 수행도 아닌 돈얘기야?' 라며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필요한 것이 돈이고, 참다운 소유는 무소유보다 더 많은 것을 들려준다는게 서광 스님의 생각이다. 이 책 출간을 위해 잠시 귀국한 서광 스님을 7월 9일 대한불교 진흥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참다운 소유는 무소유보다 더 어려워"

▲스님이 돈이나 경제 얘기를 하면 자칫 눈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요즘 카드빚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 직장을 잃는 사람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요. 이것은 결국 돈을 버는 데만 급급했지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한 카드빚을 지게되면 천천히 상환해도 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기간내에 갚기 않으면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킵니다. 이것은 모두 경제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지 소유하지 않는다, 탐심을 버린다는 생각도 좋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수행이라는 생각에 미국에서 보고 느낀 경험을 살려 펜을 들었습니다.

▲스님이 평소 생활하시면서 터득한 효과적인 돈쓰기 비법이 있다면 들려주시지요.

-저는 숨쉴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불을 밝히는 전기와 시간 등 천연 자원은 철저히 아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써야 하는 것이니 만큼 아껴야 하지요. 그리고 나 자신한테는 긴축재정을 하지만 타인들에게는 넉넉하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93년 미국에 처음와서 보니 법당에서 여는 법회가 한달에 두 세번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 대다수가 두 세시간씩 차를 몰고 오는이들입니다. 그래서 신도 각 개인들에게 중요한 시간인데 절에 왔을 때 만큼은 종교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그 만큼의 보상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법회 수를 한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신도 각 개인들에게 신행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해 줬습니다. 1년동안 꾸준히 이런 방법으로 신도들을 대했더니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종교적 기회비용을 신도들에게 제공한 셈이지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너무 평범한 말이어서 잘 와닿지 않는데, 스님의 돈쓰기 방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예화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개인택시를 하면서 크게 성공한 어떤 기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택시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 욕심으로 장거리 손님만을 가려 태우며 일일이 돈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 결산 후 인연 닿는 손님을 태운 사람과 손익을 따져보니 별 차이가 없더랍니다. 오히려 마음만 조급해져 사고가 나고 교통 위반에 더많이 걸려 손해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손님을 가리지 않고 인연 닿는대로 태우고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에는 운동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렸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돈이 술술 벌려 돈을 모을 수 있었답니다.

"부자들 눈앞 이익보다 공익 · 행복위해 투자"

▲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성공한 이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기 보다는 여러사람의 공익과 행복을 위해 돈을 쓰고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성공한 기업가들의 사업 아이템도 역시 이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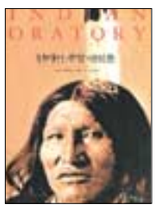
-10년동안에 걸쳐서 완성한 영한불교사전을 활용해 외국인들이 쉽게 불교를 이해하고 배우울 수 있게 매진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생활불교 서적도 계속 펴낼 계획입니다. 북로드 | 1만원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서광스님 1992년 청도 운문사에서 명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93년부터 미국으로 건너가 해외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불이회'가 제정한 제 18회 불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요저서로는 〈마음의 치료〉 〈한영불교사전〉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 30송〉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불교상담심리학 입문〉 〈그냥 바라만 볼 뿐이다〉가 있다.



전문가 서평



인디언 추장 연설문
W.C.벤더워스 엮음 | 김문호 옮김 | 그물코 펴냄 | 1만5천원

한 집단의 연설문은 그 집단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 집단이 어떤 가치관에 입각해 그 문제들에 접근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이 책은 인디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인디언추장 36명의 연설문 49편을 수록하고 있다. 기존에 소개된 연설문들이 출처가 불분명하고 역사적 배경도 생략되어 인디언에 대한 신비화와 왜곡을 낳아왔던 데 반해, 정확한 자료들을 토대로 '현실의 인디언'을 현장감 있게 재현해내고 있다.

인디언들의 훌륭한 연설은 인디언들이 무지한 미개인이라고 말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일축하게 만든다. 연설들은 대부분 매우 유창하고 논리적이며, 대단한 설득력이 있다. 위트와 풍자도 풍부하다. 대부분의 연설문들이 백인들과의 투쟁을 다루고 있다. 협상을 하고 조약을 체결하던 시기의 정확한 기록을 엿볼 수 있어 인상적이다.

세네카족의 '붉은 윗도리'(1756~1830)는 뛰어난 연설로 유명하다. 1792년 조지 워싱턴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미국 상원에서 연

무지한 미개인 인디언?

위트 넘치고 논리적인 연설문의 감동

설을 하기도 한 붉은 윗도리는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백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했다.

"형제여 한때 우리의 자리는 컸고, 당신들의 자리는 작았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큰 민족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겨우 담요를 펼 자리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네 종교를 우리에게 강요하려고 합니다. 형제여! 우리는 당신네 종교를 파괴하고 싶지 않고, 그 종교를 당신들에게서 빼앗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의 것을 누리고 싶을 뿐입니다."

백인들이 땅을 잠식해들어오는 것을 반대해 끝까지 저항했으며 전투에서 전사한 쇼니족의 테쿰세(1768~1813)는 동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이제 곧 여러분의 조상들의 무덤위로 백인들의 넓은 도로가 날 것이며 그들이 안식을 취하던 자리는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위대한 정령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우리의 안식처와 대지, 죽은 자들의 무덤과 소중하고 신성한 모든 것들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단 한사람의 전사가 남을 때까지 우리의 부족, 우리 집, 우리의 자유, 우리 조상들의 무덤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항주의자 테쿰세의 호소는 백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촉토우족의 푸슈마타하(1764~1824)의 평화주의에 밀린다.

"우리는 전쟁에 서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할 것이고 전사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여성들에게는 고통이 될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배고픔과 굶주림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탄에 잠길 것이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정은 파탄을 맞을 것이다. 나는 이 전쟁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유해선(여주대학 강사 · 미국사전공)



❷법정 〈무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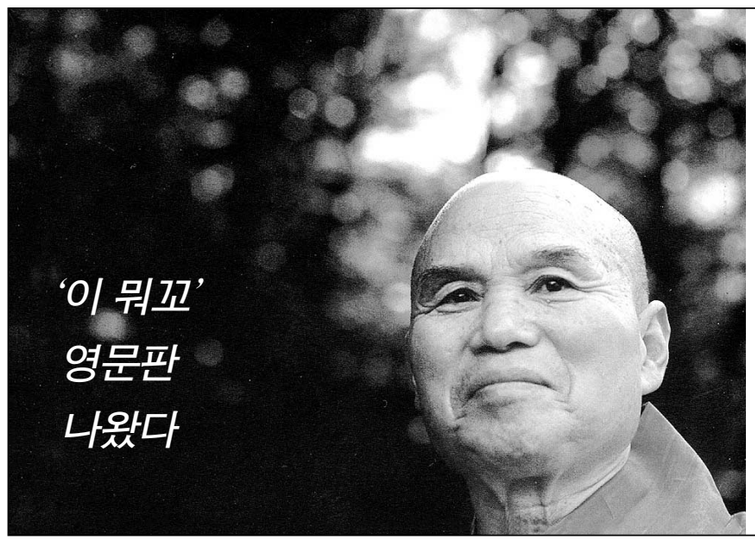
주머니 속의 작은 친구 범우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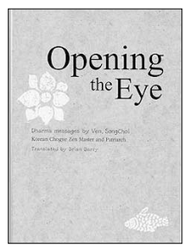
1 수필 피천득
3 바다의 침묵(외) 베르코르 조규철·이정림
4 살며 생각하며 미우라 아야코 | 진웅기
5 오, 고독이여 F.니체 | 최혁순
6 어린 왕자 A.생 텍쥐페리 | 이정림
7 톨스토이 인생론 L.톨스토이 | 박형규
8 이 고요한 시간에 김우종
9 시지프의 신화 A.카뮈 | 이정림
10 목마른 계절 전혜린
11 젊은이여 인생을… A.모루아 | 방곤
12 채근담 홍자성 | 최현
13 무진기행 김승옥
14 공자의 생애 최현 엮음
15 고독한 당신을 위하여 L.린서 | 곽복록
16 김소월 시집 김소월
17 장자 장자 | 허세욱
18 예언자 K.지브란 | 유제하
19 윤동주 시집 윤동주
20 명정 40년 변영로
21 산사에 심은 뜻은 이청담
22 날개 이상
23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24 애정은 기도처럼 이영도
25 이브의 천형 김남조
26 탈무드 M.토케이어 | 정진태
27 노자도덕경 노자 | 황병국
28 길매기의 꿈 R.바크 | 김진욱
29 우정론 A.보나르 | 이정림
30 명상록 M.아우렐리우스 | 최현
31 젊은 여성을 위한 인생론 P.벅 | 김진욱
32 B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33 조병화 시집 조병화
34 느티의 일월 모윤숙
35 로렌스의 성과 사랑 D.H.로렌스 | 이성호
36 박인환 시집 박인환
37 모래톱 이야기 김정한
38 창문 김태길
39 방랑 H.헤세 | 홍경호
40 손자병법 손무 | 황병국
41 소설 · 알랙산드리아 이병주
42 전락 A.카뮈 | 이정림
43 사노라면 잊을 날이 윤형두
44 김삿갓 시집 김병연 | 황병국
45 소크라테스의 변명(외) 플라톤 | 최현
46 서정주 시집 서정주
47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L.톨스토이 | 김진욱
48 불가능은 없다 R.슐러 | 박호순
49 바다의 선물 A.린드버그 | 신상웅
50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C.힐티 | 홍경호
51 딸깍발이 이희승
52 몽테뉴 수상록 M.몽테뉴 | 손석린
53 박재삼 시집 박재삼
54 노인과 바다 E.헤밍웨이 | 김회진
55 향연 · 뤼시스 플라톤 | 최현
56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R.릴케 | 홍경호
57 피천득 시집 피천득
58 아버지의 뒷모습(외) 주자청(외) | 허세욱(외)
59 현대의 신 N.쿠치키(편) | 진철승
60 별·마지막 수업 A.도데 | 정봉구
61 인생의 선용 J.러브록 | 한영환
62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F.사강 | 이정림
63 이동주 시집 이동주
64 고독한 산보자의 꿈 J.루소 | 연기용
65 파이돈 플라톤 | 최현
66 백장미의 수기 I.숄 | 홍경호
67 소년 시절 H.헤세 | 홍경호
68 어떤 사람이기에 김동길
69 가난한 밤의 산책 C.힐티 | 송영택
70 근원수필 김용준
71 이방인 A.카뮈 | 이정림
72 롱펠로 시집 H.롱펠로 | 윤삼하
73 명사십리 한용운
74 왼손잡이 여인 P.한트케 | 홍경호
75 시민의 반항 H.D.소로 | 황문수
76 민중조선사 전석담
77 동문서답 조지훈
78 프로타고라스 플라톤 | 최현
79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
80 문주반생기 양주동
81 신조선혁명론 박열 | 서석연
82 조선과 예술 야나기 무네요시 | 박재삼
83 중국혁명론 모택동(외) | 박광종 엮음
84 탈출기 최서해
85 바보네 가게 박연구
86 도왜실기 김구 | 엄항섭 엮음
87 슬픔이여 안녕 F.사강 | 이정림·방곤
88 공산당 선언 K.마르크스·F.엥겔스 | 서석연
89 조선문학사 이명선
90 권태 이상
91 내 마음속의 그들 한승헌
92 노동자강령 F.라살레 | 서석연
93 장씨 일가 유주현
94 백설부 김진섭
95 에코스파즘 A.토플러 | 김진욱
96 가난한 농민에게 바란다 N.레닌 | 이정일
97 고리키 단편선 M.고리키 | 김영국
98 러시아의 조선침략사 송정환
99 기재기이 신광한 | 박헌순
100 홍경래전 이명선
101 인간만사 새옹지마 리영희
102 청춘을 불사르고 김일엽
103 모범경작생(외) 박영준
104 방랑이 깎던 노인 윤오영
105 찰스 램 수필선 C.램 | 양병석
106 구도자 고은
107 표해록 장한철 | 정병욱
108 월광곡 홍난파
109 무서록 이태준
110 나생문(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 진웅기
111 해변의 시 김동석
112 발자크와 스탕달의 예술논쟁 김진욱
113 파한집 이인로 | 이상보
114 역사소품 곽말약 | 김승일
115 체스·아내의 불안 S.츠바이크 | 오영옥
116 복덕방 이태준
117 실천론(외) 모택동 | 김승일
118 순오지 홍만종 | 전규태
119 직업으로서의 학문·정치 M.베버 | 김진욱(외)
120 요재지이 포송령 | 진기환
121 한설야 단편선 한설야
122 쇼펜하우어 수상록 쇼펜하우어 | 최혁순
123 유태인의 성공법 M.토케이어 | 진웅기
124 레디메이드 인생 채만식
125 인물 삼국지 모리아 히로시 | 김승일
126 한글 명심보감 장기근 옮김
127 조선문화사서설 모리스 쿠랑 | 김수경
128 역옹패설 이제현 | 이상보
129 문장강화 이태준
130 중용·대학 차주환
131 조선미술사연구 윤희순
132 옥중기 오스카 와일드 | 임헌영
133 유태인식 돈벌이 후지다 덴 | 지방훈
134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운
135 세계의 기적 박광순
136 이퇴계의 활인심방 정숙
137 카네기 처세술 데일 카네기 | 전민식
138 요로원야화기 김승일
139 푸슈킨 산문 소설집 푸슈킨 | 김영국
140 삼국지의 지혜 황의백 엮음
141 슬견설 이규보 | 장덕순
142 보리 한흑구
143 에머슨 수상록 에머슨 | 윤삼하
144 이사도라 덩컨의 무용예세이 I.덩컨 | 최혁순
145 북학의 박제가 | 김승일
146 두뇌혁명 T.R.블랙슬리 | 최현
147 베이컨 수상록 베이컨 | 최혁순
148 동백꽃 김유정
149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A.베넷 | 이은순
150 평민한문학사 허경진
151 정선아리랑 김병하·김연갑 공편
152 독서요법 황의백 엮음
153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B.러셀 | 이자황
154 조선사 연구(草) 신채호
155 중국의 신화 장기근
156 무병장생 건강법 배기성 엮음
157 조선위인전 신채호
158 정감록비결 편집부 엮음
159 유태인 상술 후지다 덴 | 진웅기
160 동물농장 조지 오웰 | 김회진
161 신록 예찬 이양하
162 진도 아리랑 박병훈·김연갑
163 책이 좋아 책하고 사네 윤형두
164 속담에세이 박연구
165 중국의 신화(후편) 장기근 엮음
166 중국인의 에로스 장기근 역음
167 귀여운 여인(외) A.체호프 | 박형규
168 아리스토파네스 희곡선 아리스토파네스 | 최현
169 세네카 희곡선 세네카 | 최현
170 테렌티우스 희곡선 테렌티우스 | 최현
171 와투·코 고골리 | 김영국
172 카르멘 메리메 | 김진욱
173 방법서설 데카르트 | 김진욱
174 페이티의 산문 페이터 | 이성호
175 이해 사회학의 카테고리 막스 베버 | 김진욱
176 러셀의 수상록 러셀 | 이성규
177 속악유희 최영년 | 황순구
178 권리를 위한 투쟁 R.V.예링 | 심윤종
179 돌과의 문답 이규보 | 장덕순
180 성황당(외) 정비석
181 양쯔강(외) 펄벅 | 김병걸
182 봄의 수상(외) 조지 기싱 | 이창배
183 아미엘 일기 아미엘 | 민희식
184 예언자의 집에서 토마스 만 | 박환덕
185 모자철학 가드너 | 이장배
186 짝 잃은 거위를 곡하노라 오상순
187 무하선생 방랑기 김상용
188 어느 시인의 고백 릴케 | 송영택
189 한국의 멋 윤태림
190 자연과 인생 도쿠토미 로카 | 진웅기
191 태양의 계절 이시하라 신타로 | 고평국
192 애서광 이야기 구스타브 플로베르 | 이민정
193 명심보감의 명구 191편 이응백
194 아큐정전 루쉰 | 허세욱
195 촛불 신석정
196 인간제대 추식
197 고향산수 마해송
198 아랑의 정조 박종화
199 지사총 조선작
200 이어령 단편선 〈흥동백서〉
201 최인호 단편선 〈유령의 집〉
202 오정희 단편선 〈목련초〉



▶각권 값 2,800원 ▶계속 출간됩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21세기를! www.bumwoosa.co.kr T.(02)717-2121 범우사





Opening the Eye 성철 스님 지음 | 브라이언 베리 옮김 | 김영사 | 9천9백원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Once you open the eye and see everything as it is, you'll realize that mountains are mountains and waters are wa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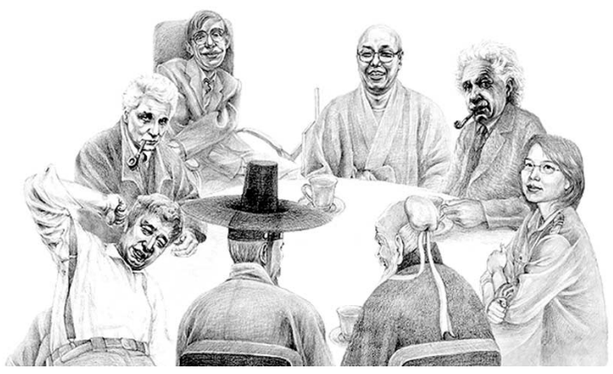
한국 현대 불교의 대표적 선승인 성철 스님(1912~1993)의 법어집 <이 뭐꼬>를 영어로 옮긴 <Opening the Eye>가 나왔다. 2002년 발간된 <이 뭐꼬>는 철저한 수행과 거침없는 경책으로 '가야산 호랑이'라 불렸던 성철 스님이 59년의 수행기간 동안 행했던 법문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가려 뽑은 내용을 묶은 책이다. '이 뭐꼬'는 성철 스님이 제자와 대중들에게 자주 주었던 대표적인 화두의 하나로, 스님은 "'이 뭐꼬'라는 질문을 계속 하다보면 깨치게 되고 마음의 본래모습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어집의 번역은 번역가이자 탱화작가인 미국인 브라이언 베리 씨가 맡았다. 1960년대 후반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온 그는 80년대 말 외국인을 위한 참선도량인 연등국제선원에서 성철 스님의 법어를 처음 만났다. 이후 90년대 초 성철 스님의 법어집 <자기를 바로 봅시다>를 영역한 <Echoes from Mt. Kaya>를 펴내기도 했다.

김영사는 이 책을 오는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해체주의와 연기법 뭐가 닮았나

아주 특별한 만찬
김숙경 지음 | 아름다운인연 | 1만원


김숙경 씨의 <아주 특별한 만찬>에서 함께 '놀이마당'을 펼친 사람들을 지은이가 직접 그렸다. 각묵 스님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아인슈타인, 김숙경, 노자, 최한기, 백남준, 자크 데리다, 스티븐 호킹.

시공 뛰어넘어 지구촌 위인들과 각묵 스님 · 저자가 펼치는 놀이마당

우선, 책의 표지를 살펴보자. 20세기 대표적인 과학자인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 해체주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조선시대 실학자 최한기 그리고 도가사상의 효시인 노자가 함께 앉아 있다. 시대와 분야를 넘나드는 이들은 왜 한자리에 모여 앉았을까?

이들을 불러 모은 사람은 <아주 특별한 만찬>의 지은이 김숙경 씨(문화비평가)다. 대학에서 조소(彫塑)를 전공했지만 언제부턴가 조각도 대신 책을 들고 '사상적 방랑'을 시작한 지은이는 책에서 이들과 함께 '문화놀이' '역사놀이' '과학놀이' '예술놀이' '철학놀이'를 펼치고 있다. 이 놀이의 목적은 '서양의 해체주의와 불교의 연기사상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중심사상의 폭력성을 해체하고 평등한 관계를 드러내는 해체주의와 절대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불교 연기설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과정인 셈이다.

철학적 개념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있지만 이 책은 어렵지 않게 읽힌다. 소설과 가상대담을 비롯해 시나리오, 편지글 등 다양한 형식으로 꾸며진 '놀이마당'은 책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하게 해 준다.

표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초기불전연구원 각묵 스님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각묵 스님은 지은이와의 대담을 통해 '놀이'에 등장하는 철학적 단상들을 어떻게 불교적으로 해석하는지를 보여준다. 스님은 데리다의 "텍스트는 계속해서 다른 텍스트 안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텍스트의 고유성이나 순수성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연기의 법칙'으로 해석하고, 동양과 서양, 여성과 남성 등으로 나눠진 이원론의 대립체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중도(中道)의 원리'로 설명한다.

"해체주의 철학과 현대 물리학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원론의 극복을 불교의 중도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불교가 여전히 현실적인 가치와 의미를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서양철학사에서 몇 천 년이 흐른 후 내린 이러한 결론을 불교는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체주의'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허무주의'란 비판에 대해서 불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각묵 스님은 "해체 뒤에 남는 것은 허무가 아닌 실천"이라고 답한다.

"중심의 해체, 즉 본질의 해체는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절대기준의 잣대를 해체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와 남은 상호연기의 법칙으로 얽혀있으므로 자연히 남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은이는 놀이를 마치며 "진정한 자유는 평등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론과 실천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자유는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않다는 평등사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1200년전 티베트 밀법 수행과정 '생생'



예세 초겔
예세 초겔 지음
설오 스님 옮김
김영사 | 1만7천9백원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의 땅 티베트에 한 여인이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제후들의 쟁탈 대상이 되어 마침내는 왕후가 됐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를 티베트에 전한 '파드마 삼바바'의 가르침으로 밀법을 수행하고 그의 영적인 아내(칸돌마)이자 수행 도반이 된다. 그녀가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예세 초겔이다.

그는 제자에게 자신의 전기(傳記) 세 부를 쓰도록 하여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 숨겨 두었다. 이 책들은 그의 예언대로 거의 천 년이 지난 17세기에 땔똔 딱샴쌈텐링빠가 발굴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영미권에서는 몇 권의 번역본이 출간됐으나, 국내에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세 초겔의 많은 업적중 손으로 꼽는 것은 사원 건립과 승가 교육 체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또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지도하고 근기를 성숙시켜 구전으로 법을 전수한 것을 들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보면 티베트에 불교가 전래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이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은 아니다. 예세 초겔의 일화와 고행담, 수행을 성취하는 과정과 중생을 교화한 내용을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드라마틱하게 들려주기도 한다. 단전에서 열을 일으키는 수행을 위해 설산의 바위 동굴에서 천 한 조각만 걸치고 용맹정진하는 것, 구업(口業)을 정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만트라 수행을 하여 아름답고 지치지 않는 음성을 얻는 것 등 중생과 함께 호흡하며 부처의 모습으로 살다 간 예세 초겔의 다양한 밀법도 만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유심 2004 여름호>**(만해사상실천선양회 펴냄, 7천원)= 이번 호에서는 '학문 탐구에서 실천의 길로'를 주제로 경희대 문과대 학장 김재홍 교수와 이경 시인의 대담을 비롯해 제8회 만해대상 수상자 수상소감과 수상자론을 볼 수 있다. 유안진 시인과 문무학 시인의 '집중조명'도 마련되어 있다.



■ **<한국의 놀이와 축제 2>**(김흥우 지음, 집문당, 1만5천원)=동국대 김흥우 교수가 펴내는 '한국의 놀이와 축제' 시리즈 두 번째 권. 1권 <신명과 열광의 현장>에서 전래 놀이와 축제를 소개한데 이어 2권 <도취와 화합의 현장>에서는 함평 나비축제와 천안 세계연꽃축제, 군위 인각사의 삼국유사 문화제 등 각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 30여 개를 소개한다. 축제의 유래와 주요 행사, 발전 전망 등 지역축제에 관한 정보를 알차게 담았다.



■ **<칠보연못에 꽃향기되어>**(이종린 지음, 건아사, 7천원)= 홍익소아과의원 이종린 원장이 월간 <불광> 웹진(http://bulkwang.org)에 게재했던 '사모곡(思母曲)'을 책으로 엮었다.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며 쓴 글과 어머니가 생전에 쓴 일기, 가족의 추억이 담긴 사진도 함께 실었다. 지은이는 "저의 뒤늦은 통한을 보고 많은 분들이 어머니 은혜를 알기 바란다"고 출간의의를 밝혔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2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3	스님이야기	지묵 스님 외	여시아문
4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5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6	영가천도	우룡 스님	효림
7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우화	이용범	수희재
8	불교가 좋다	가와이 하야오 외	동아시아
9	청정도론	붓다고사	초기불전연구원
10	육조혜능평전	이은윤	동아시아

도서 안내 : (02)737-0695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 30권 중 제 5권 출간!
1,454칙의 본 공안, 매 칙마다 취모검을 휘둘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Daewon Buddhist Academic Institute

2004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수강생 전원 장학 혜택(무료) 2년제 야간강의

대원불교대학은 동국제강(주) 창업주이며, 불교방송 개국의 모태인 (재)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이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불교 대중화의 원력에 따라 전액 장학 혜택을 주는 불교계 최초의 교양대학입니다.

1. 모집과정

과 정	학 과	모집인원	과 정	학 과	모집인원
대 학	불교학과 통신과정	30명 내외 00명 내외	대학원	불교학과	05명 내외

2. 대학원 지원자격
1)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2)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미 수료자는 대학과정 과목을 이수해야 함)
3) 면접 구술테스트에 의해 학업 능력이 인정되는 자. (학사학위 미취득자)

3. 대학 지원 자격
1)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 2) 신도오계 수지자. (미 수지자 수계 서약서 제출)

4. 전형일정
1) 원서교부 : **2004년 5월 17일 ~ 8월 10일까지** 2) 원서접수 : **2004년 5월 20일 ~ 8월 13일까지**
3) 대학원 전형일 : **2004년 8월 14일(토) 14:00시** 4) 합격자 발표 : **2004년 8월 18일** (개별통보)

5. 전형방법 - 대학과정 (서류 전형 후 합격 발표일 개별통보)
- 대학원과정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 - 일 시 : 2004년 8월 14일 (토) 14:00시 - 장소 : 본 대학 강의실
(단, 학사학위 미소지자는 학원 계획서를 토대를 면접하여 수학능력을 평가함)

6.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1부 2) 수계증 사본 또는 수계 서약서.
3) 학업 및 연구 계획서 1부 (대학원 과정) 4)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대학원 과정)
5) 전형료 : 대학과정 20,000원, 대학원 과정 50,000원 6) 전형료 납부 : 국민은행 098-01-0230-530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7.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합격생은 전액 장학 혜택이 주어짐.
3) 월 2회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처리. 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합격 취소. (통신 과정도 전원 참석)

8. 각 과정 졸업 사정

과 정	학 과	사 정 내 용
대 학	불교학과 통신과정	출석 과제물 등의 학업 평가에서 과목 낙제가 없는 자 학업 평가 서술 시험을 통과한 자
대학원	불교학과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졸업논문 심사 과정을 통과한 자

9. 대학원 과정 특전
1) 개인지도교수제 (Tutorial System)를 통한 철저한 개인별 지도를 합니다.
2) 지도교수 인솔로 해외불교학술답사를 통하여 세계불교학의 흐름을 접합니다.
3) 대학원 과정 졸업자는 미래학불교학회 입회 자격이 부여되며, 연구 및 강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소정의 수련 과정 이수 후, 법사자격을 부여합니다.

10.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학 및 대학원 과정 모두 해당)
- 일 시 : **2004년 8월 25일 (수) 오후 6시** - 장 소 : **대원불교대학 큰 법당**

11. 전임 교수진 및 담당 교과목
● 장휘옥 교수 - 부산대학교 화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대학원 석사,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석 · 박사과정 졸업.
■ 지도과목 : 정토사상, 화엄사상, 중국불교사상사, 한국불교사상사 등
● 허경구 교수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석 · 박사과정, 인도 바라나시 힌두대학교 박사 과정 수료.
■ 지도과목 : 인도불교사, 구사학, 경전성립사, 대승불전강독 등
● 김사업 교수 -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석 · 박사과정 졸업, 일본 국립경도대학에서 인도철학 연구.
■ 지도과목 : 중관학, 유식학, 여래장사상 등
● 김종욱 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 · 박사 과정 졸업.
■ 지도과목 : 비교종교학, 불교와 철학, 불교윤리학, 현대사회와 불교 등
● 최봉수 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 · 박사 과정 졸업.
■ 지도과목 : 불타론, 초기불교연구, 초기불전강독 등

정규교과과정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불교학개론〉	불타론	〈초기불교〉	초기불전강독
〈인도불교사〉	〈불교경전성립사〉	구사학	대승불전강독
불교와 철학	〈불교윤리학〉	비교종교학	〈불교와 사회〉
정토사상	화엄사상	〈중국불교사상〉	〈한국불교사상〉
중관학	유식학	〈중기대승사상〉	〈여래장사상〉
〈사찰문화특강〉	〈포교방법론〉	불교의식	법회연습

초청특강
초청특강은 불교현장과 연계된 교과들로 과목당 2회 이상 4회 이하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당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습과 답사위주의 현장교육으로 학기 중 주말이나 방학 중에 실시된다.

〈 〉안의 과목은 대학과정 과목임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02)773-9171, 754-1613 FAX 02)771-6796 www.idaewon.or.kr

Daewon Buddhist Academic Institute



뒷면에 불교의 상징인 수미산 이름을 새겨넣은 금동천문도.

전국 박물관 '여름 방학 기획전' 봇물

몸 시원 눈 시원 지식 '팍팍' 쌓이네

여름방학과 휴가철이다. 산과 바다로 떠나는 것도 즐거운 피서법이지만 고속도로에서 휴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전국의 박물관을 찾아가 보자. 시원한 냉방장치와 함께 옛 선조들의 손때 묻은 유물을 통해 역사의 진한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박물관의 경건하고 서늘한 분위기에 더위는 어느덧 사라진다.

천문과 탱화, 도자기 등 우리 불교 문화 유산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전국의 국립박물관과 성보박물관 등지에서 열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경주박물관은 일본 나라(奈良)국립박물관에서 천마총 출토 금관을 비롯, 신라고분 출토품을 대거 선보이는 '황금의 나라, 신라-왕릉의 보물' 국외특별전을 개최중이다. 가볼만한 주요 전시회를 소개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천문-하늘의 이치, 땅의 이상' 展=우리 조상들이 생각한 하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국내 천문관련 유물 100여점이 출품됐다. 총 4부로 나눠 **8월 28일까지** 열린다. 작품으로는 앞면에 28수의 별 구멍을 뚫어 진주를 박고, 뒷면에는 불교의 상징인 수미산의 이름을 새겨 넣은 금동천문도(보물 제1373호)가 볼만하다.(02)3704-3152



청자양각연화문 모란문 어룡식병.

▲국립대구박물관 '우리 문화속의 중국 도자기' 展=8월 29일까지 계속되는 대구박물관 특별전은 우리나라 출토 및 전래 중국 도자기를 집성했다. 특히 중국 도자기가 출토된 국내 유적 70곳에서 나온 157점의 유물과 관련 도판 등이 함께 전시돼 이해를 돕고 있다.(053)768-6051

▲직지사 성보박물관 '산신탱과 독성탱 기획展'=불교회화 가운데 불교 외적인 신앙 형태가 가미된 것으로 칠성탱과 산신탱, 독성탱을 들 수 있다. 이중 산신은 호법신중의 하나로 주위에는 동자가 등장하며 복숭아나 석류 등의 과일을 담은 접시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남아 있는 산신 그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영천 은해사 박물관 소장의 산신탱이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회에서는 용모사, 고방사(사진), 직지사 소장의 산신탱화가 올해 연말까지 벽에 걸린다.(054)436-6009



▲송광사 성보박물관 '불교문헌 희귀본 展'



<묘법연화경현의>.

송광사 성보박물관은 고려시대와 조선초에 발간된 희귀문헌 50여 종을 **10월 13일 까지**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월 사천왕문과 사천왕상(四天王像) 보수불사를 하던 중 사천왕상 복장(腹藏)에서 발견된 <간경도감 중수본> 등 14점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인왕호국반야경소법형초(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권 6에 수록된 후기의 내용은 고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경전 조성과 관련된 새로운 사서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간경도감 중수본>은 조선 세조때 왕명으로 간경도감을 설치해 고려시대 의천 스님의 간행본을 저본으로 다시 간행한 책으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5종 등 일부만 전해져 오고 있고 모두 보물로 지정돼 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해남 미황사 괘불탱展'=10월 1일까지 열린다. 높이가 1,170 폭 486㎝의 크기로 삼베 바탕에 그린 미황사 괘불(보물 제 1342호 · 사진 오른쪽)은 화면 중앙에 크게 석가모니불을 강조한 뒤, 아랫부분은 바다밑의 세계를 표현, 금함(金函)을 든 해상용왕(海上龍王)과 용녀(龍女)의 모습을 그렸다.

이 괘불은 조선 영조 3년(1727)에 금어(金魚) 탁행(琢行)을 우두머리 화승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화사 7인이 함께 참여하여 그렸다.

특히 바닷가에 위치한 사찰의 불교신앙적 특징을 담은 독특한 구성이 주목된다. 색채는 녹 · 적색의 밝은 선염(渲染)과 녹두 · 분홍 · 황토 등 중간색이 사용되어 은은하면서도 환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055)382-1001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불지사리 한국온다

내년 부처님 오신날 '친견' 가능



중국 1급 국보, 세계 9대 기적 지하궁전 최상 유물 20점 포함

부처님 진신 불지(指骨)사리가 내년 부처님 오신날 한국에 온다. 무역업체 TNC는 7월 11일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사진) 한국 봉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법문사 박물관 한진커(韓金科)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 했다.

1987년 중국 산시성 시안(西安) 법문사에서 발굴돼 이목을 끌었던 이 사리는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뒤 7일간 다비식을 거쳐남은 손가락뼈. 몇 번째 손가락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중국의 1급 국보에 속하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9대 기적이기도 하다. 이 사리가 해외 나들이에 나선 것은 그동안 단 세 차례(대만, 홍콩, 태국)에 불과하다. TNC의 변선근 이사는 "워낙 귀한 물건이라 1년을 넘게 협상을 벌인 끝에 중국측으로부터 국내 전시 허락을 받아냈다"며 "내년 약 8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과 지방의 대도시 두 세 군데를 돌며 친견 법회와 전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커 관장도 "산시성 문화재국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본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남아 있어 구체적으로 전시규모와 내용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불지사리와 함께 지하궁전 감실에서 발굴된 최상급 유물 20점도 전시할 예정"이라며 말했다.

법문사 불지사리는 전국시기(戰國時期)에 서역에서 중국으로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지진과 홍수 등으로 땅속에 묻히는 바람에 세상에 잊혀졌으나, 87년 법문사 진신보탑(眞身寶塔)의 지하궁전 후실의 비밀 감실(龕室)이 발굴되면서 유물 3천여 점과 함께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됐다.

김주일 기자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1세기 불가의 신개념 전자종틀 가릉빈가』



중25관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퍼지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님들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첨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 품 명 : 가릉빈가
-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웅장한 종소리 및 녹음한 음원(독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맑고 웅장하게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 앰프(스피커 3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회 등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품기능 : 출력 (정격출력 150W 이상, 최대출력 250W 이상)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변경, 알람시간조절, 임의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INCH 3개, MP3장착 – 45분(종소리 20초, 독경 40여분 장착), 오토리버스 기능, 볼륨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매시간 타종 기능(타종 횟수 조절 가능) – 알람기능 (3번 작동 가능. 예: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앰프 기능
-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져있습니다.
- 소비자가 : 5,900,000원 (종25관+종틀+스피커3개+마이크+리모콘+기타+일체포함)
- 종제작업체 : 성종사
- 전자 종틀제작업체 : (주)비엔비기업

부처님의 법음이 넘치는 륜장(輪藏) 묘음 법륜장(妙音法輪藏)



묘음 법륜장 개금
~~₩1,080,000~~ → 864,000



묘음 법륜장 청동
~~₩538,000~~ → 430,000

사용법

묘음 법륜장 전면에 사람이 2M이내 접근시 인체감지센서가 감지하면 전자회로가 작동, 에밀레 종소리(3번)와 새소리, 바람소리가 발생과 동시 목탁소리가 함께 반야심경(인천시지정 무형문화재 제 10호 범패작법보유자 김능화 스님)독송이 울려퍼진다. 이때 여의주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1분 1회)LED전구는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5색의 찬란한 빛이 여의주표면 글자에 비춰지며 화엄경의 상단부분에 불꽃형상이 나타난다. 작동시간은 4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감지센서에 사람이 감지되면 재작동을 반복한다.

* 본 제품 음성칩은 원하는 음성를 재 취입할 수가 있습니다.

30대 특별할인 한정판매

판매처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마하몰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9>



새고 있지 않나요

장마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옆집에선 성가신 일이 생겼다. 어디에선가 빗물이 집안으로 스며들어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나고 옷, 이불 등이 젖고 말았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마다 모든 문과 창을 열고, 옷이나 이불 등을 햇볕에 말리고 있다. 장마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 보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작년 가을에 집을 완성을 하고 이주하였기 때문에 장마비를 경험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작년 지붕을 만들 때 제대로 치밀하게 공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주 조그마한 틈이나 구멍일지라도 빗물은 지나치지 않는다. 반드시 틈 사이로 혹은 구멍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집을 지을 때 지붕이 새지 않도록 잘 지어야 한다. 지붕에 구멍이 없으면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비는 집안으로 새어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 짓고 나서 틈이 발견되면 재빨리 찾아 보수해야 한다. 그냥 방치해두면 틈은 점점 커져 피해도 커지고 보수하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마음이라는 집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언제든지 번뇌의 빗물이 스며들어올 것이다. 마음에 난 틈을 메꾸지 않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번뇌가 더 많이 들어와 마음을 그 만큼 더 더럽힐 것이다. 1분 동안 틈을 방치해 두면 1분만큼의 번뇌의 비가 고일 것이고 1시간 동안 방치해 두면 1시간 번뇌가 들어와 축적될 것이다. 방치해 두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마음은 더 더럽혀져 있어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거나 청소하기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비가 새는 집을 방치해 두면 결국 그 집에서 살 수 없게되어 버려야한다. 마찬가지로 번뇌가 스며드는 것을 막지 않으면 마음은 결국 쓸모가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수시로 집을 살피고 보수해야하듯이 때때로 마음을 살펴 번뇌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 특히 비가 오려고 할 때 더욱더 지붕을 돌보아야 하듯이 욕망의 대상이 나타날 때 마음을 더욱더 단속해야 한다.

<법구비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옛날 기사굴산 뒤에 바라문의 집 70여 채가 있었다. 부처님께서 그 마을로 가셨다. 그들은 거룩한 부처님의 광명 모습을 보고 모두 공경하고 복종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밑에 앉아 범지들에게 물으셨다. "이 산 속에서 몇 대(代)나 살았으며 어떤 직업으로 생활을 꾸려 가는가?" 그들은 대답하였다. "여기서 30여 대를 살았으며, 농사와 목축으로 생업을 삼고 있습니다." 또 물으셨다. "무엇을 받들어 닦아 생사(生死)를 여의려 하는가?" 그들은 대답하였다. "해 · 달 · 물 · 불을 섬기면서 때에 맞춰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죽을 경우 젊은이건 노인이건 모두 모여 범천(梵天)에 태어나기를 기원해 외치며 그로써 생사를 여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바라문들에게 말씀하셨다. "대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또는 해, 달, 물, 불에 제사지내거나 또는 외치거나 해서 하늘에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생사를 떠나 영원히 사는 법이 아니다. 아무리해도 28천(天)을 벗어나지 못하리니, 그것은 도(道)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도로 윤회의 세계에 떨어지는 것이다. 오직 집을 떠나 청정한 뜻을 닦고 고요한 이치를 행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느니라."

70명의 바라문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출가 수행하기를 원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들과 함께 정사로 돌아오시던 도중에 그들이 처자를 연모하여 각기 후회할 뜻이 있음을 아셨다. 게다가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려 바라문들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고 답답하게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길가에 있는 집 안에 들어가 비를 피하였다. 그 때 지붕이 뚫어져 비가 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지붕의 새는 것을 계기로 다음 게송을 읊으셨다. "지붕을 촘촘히 잇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새는 것처럼/ 마음을 단속해 오롯이 행하지 않으면/ 음탕한 생각이 계율을 깨뜨리리라. 지붕을 촘촘히 잘 이으면 / 비가 와도 새지 않는 것처럼 / 마음을 단속해 오롯이 행하면 / 음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리라."

마음에 틈 생기면 번뇌의 빗물 스며들어 욕망의 대상 나타날때 빨리 단속해야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면 바로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며, 감각적 쾌락에 빠져버릴 것이다. 일단 감각적 쾌락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이 쾌락을 만족시키려는 욕구가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셔 더욱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다. 만약 싫은 대상을 만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서, 남을 해치고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런 무모한 행위는 바로 마음을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마음이 술 취한 것처럼 혼미해져서 갖가지 나쁜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마음에는 더러운 때만 쌓여나가게 되어 악취 풍기는 구덩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마음을 등불로 삼아라

지상 백고좌

능가 스님

(범어사 내원암 회주)



능가 스님은 7월14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고승초청법회에서 "내 마음과 부처님 법을 스승으로 삼아 껍데기 삶을 버리고 참나로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오늘은 잃어버린 나를 찾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자는 말은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도 모두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지키기 못하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일찍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뿐이니 어떻게 하면 자기를 찾게 해주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셔서 자기를 찾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믿어라, 자기를 되찾아라' 하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아함경>에 보면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등불로 삼고 부처님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몸은 인연이 지어낸 '가짜'

또 <법구경>에는 자기를 스승으로 삼을 것이지 남을 스승으로 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 자신을 스승으로 삼기는커녕 남을 스승으로 삼는 것도 꺼리는 세상입니다. 나도 잊어버리고 남도 잊어버린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나도 잊어버리고 남도 잊어버린 사람은 부처님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나를 스승으로 삼아야 부처님의 존재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귀의하지 남에게 귀의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전에 부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귀의하고 그 여타의 것에는 귀의하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내 몸은 만물의 중심이고 내 마음은 만물의 척도입니다. 척도는 '자'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은 만물을 재는 자'다 이 말입니다. 동서남북이라고 했을 때 동쪽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동쪽은 일본입니다. 그러면 동쪽 구경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동쪽을 한번 가보자며 일본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일본에 가서 동쪽이 어디냐고 물으면 미국으로 한번 가보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또 물으면 동쪽은 영국이니 영국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비행기타고 영국으로 가서 동쪽을 물으니 '한국으로 가보시오' 하는 겁니다. 다시 한국에 와서 동쪽을 물으면 또 일본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동쪽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처럼 동서남북은 본래 없어요. 시간과 공간도 원래 없는데, 여러 사람이 살다보니 편리하게 하기 위해 '해뜨는 곳을 동쪽이라고 하자'고 공동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계약이 몇 천만년이 흐르는 사이, 동쪽이 따로 있는 것처럼 돼 버린 겁니다. 그러

참나 잊고 껍데기 인생 살아

나 차분히 생각해보면 동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동쪽입니다. 이처럼 삼라만상의 중심은 전부 나입니다. 높다고 해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다는 것이지, 덮어놓고 높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작다거나 크다거나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다, 크다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큰 것, 작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만물의 중심은 나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중한 나라는 것이 무시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무시된 나를 되찾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참나'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참나, 참뜻, 진면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은 참나를 잊어버리고 껍데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도 껍데기, 남도 껍데기이니 부처님 믿는 것도 껍데기입니다. 내가 여태껏 부처님 믿는다고 절에 다녔는데 껍데기라니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내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내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나인데 그 나라고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중국 오대산 순례 4일
대한항공 전세기 특가 599,000원

문수 도량 오대산 성지를 전세기로 매우 편리하고 저렴하게 참배 할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출 발 일 : 1차 9월11일-14일(3박 4일) 2차 9월14일-17일(3박4일)
3차 9월17일-20일(3박4일) 4차 9월20일-23일(3박4일)
※선착순 각 35명 한정이오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일 자	지 역	주요방문지 및 내용	일 자	지 역	주요방문지 및 내용
제 1일	인 천 태 원 대 동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인천 출발 태원 도착 후 전용차량으로 태원 출발 대동 도착, 석식 및 호텔투숙	제 3일	오대산	문수보살성지 오대산의 현통사, 보살정, 불사리를 모신 탑원사, 최대 문수보살을 모신 수상사(법회), 대라정(케이블카), 용천사등 순례, 석식 및 호텔투숙
제 2일	대 동 오대산	중국 불교 3대 석굴중 하나로 5만여 불상들을 새긴 운강석굴 신라 황룡사 9층탑의 원형을 엿볼 수 있는 거대한 응현목탑 등 순례후 오대산 도착 석식 및 호텔 투숙	제 4일	오대산 태 원 인 천	오대산 출발 태원 도착 후 공항으로 이동, 전세기 편으로 태원 출발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 파키스탄, 카라코람, 실크로드 13일 (출발일 : 9월 1일) 293만원
대승불교와 불상의 탄생지 간다라의 불교성지와 수많은 불상을 참배하고 실크로드를 따라 파미르 고원(총령)을 넘어 우루무치 까지 불교가 전래된 전법의 길을 따라 순례하는 실크로드 코스
● 일 정 : 파키스탄 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 장수 마을)-카슈카르-쿠차(천불동)-우루무치

■ 부탄 왕국 순례 8일 (출발일 : 9월 21일) ..... 430만원 (인솔자 동행)
히말라야 신비의 불교왕국 부탄 - 팀푸 축제 참관 및 불교성지를 순례합니다.
● 일 정 : 인천-부탄의 파로- 팀푸(팀푸축제참관)-통사-왕디포르당-푸나카-파로-인천

■ 티벳, 네팔 일주 11일 (출발일 : 9월 2일) 259만원
티벳의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트만두까지 일주하는 신비로운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트만두

아름다운 전원 도량 일산 길상사

1백만배 1,000일 기도
"기도를 마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일기도 인연도량인 길상사에 부처님 진신사리 모셨습니다.
이 뜻 깊은 불사회향을 함께 하고자 매일 1080배씩 1,000일 동안 1백만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불자님께서 1백만배 기도 동참하시어 소원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입재 : 2004년 3월 15일 ◆회향 : 2006년 9월 15일 ◆장소 및 시간 : 길상사 대웅전, 매일 새벽 및 사시 예불

백중 49재 지장 천도기도 안내
8월 30일(음 7월 15일) 백중은 불교계에서 우란분절로 '효' 사상을 일깨우는 뜻 깊은 명절입니다.
1,000일기도에 동참하시는 조상영가님들과 만년영구위패 영가님들을 위해 오는 7월 13일 백중 49일기도를 입재합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인연 따라 꼭 동참하시어 다생겁래의 업장을 소멸하고 무진복락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사업을 하신 분, 입시자녀를 앞두신 분들은 조상님들께 가장 좋은 효도가 될 수 있는 백중 49일기도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백중 49일 기도 입재 : 7월 13일(음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2재 : 7월 26일(음 6월 10일) 3재 : 8월 2일(음 6월 17일)
4재 : 8월 9일(음 6월 24일) 5재 : 8월 16일(음 7월 1일)
6재 : 8월 23일(음 7월 8일) 초재 : 7월 19일(음 6월 3일)
◆백중회향 기도 : 8월 30일(음 7월15일) 오전 10시 30분
□ 교통안내 : • 구파발 – 원당역 – 주교사거리 – 길상사 • 자유로 – 일산 호수교 – 길상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산 70-2 전화 031)966-9852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 주지 보산 합장
일산 전원 포교도량
'상황버섯 재배, 주말농장 운영'

법화경 읽고 불법과 인연…시대상 꿰뚫는 비판의식 빛나

능가 스님은 능가 스님은 고등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학생들을 인솔해 범어사로 수학여행을 왔다가 그 길로 범어사에 주저앉았다. 사표도 우편으로 접수하고 동산 스님의 제자가 된 스님은 지금까지 불교정화운동, 한국불교 세계화 등의 중심에서 역량을 발휘해 왔다.

1923년 서울에서 출생한 스님은 충북의 대지주 집안의 종손이었다. 그러나 스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인사동 고서점에서 읽게 된 <법화경>과의 인연으로 불교 세계가 화두가 되어 버렸고, 1956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불국사 · 범어사 주지, 세계불교지도자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일제시대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대구, 경주 등지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던 스님은 출가 후에도 국회의원 출마를 여러 차례 권유받자 그때마다 지리산으로 도망치곤 했다. 껍데기와 망상뿐인 세상사를 뒤로 한 스님이지만 능가 스님의 세상사에 대한 관심과 비판은 82세의 세수에도 여전히 빛을 발한다. 시대상을 꿰뚫어보는 비판의식이 살아 있는 스님의 법문은 후학들의 바른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있다.

평생을 <법화경>과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화경>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중시하는 스님은 최근에는 소백산 한 토굴에 칩거하며 정진 중이다.

하는 것은 가짜 나입니다. 지금 나라고 믿고 있는 것은 인연에 의해 태어났을 뿐입니다. 인연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저 인연의 몸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인연아(因緣我)'라는 말입니다. 인연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연으로 지어지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인연을 쏙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서, 거짓 나로 사는 것은 기초가 가짜니 모든 것이 가짜다 이 말입니다. 정치를 해도 가짜요, 학문을 해도 가짜요, 억천만 가지의 일이 모두 가짜입니다. 왜? 일을 하는 주체가 모두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가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며 발심의 계기를 다지는 불자들.

허무 깨우칠때 진리 보여

인연따라 보고 듣고 맛보고, 인연 따라서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인연 아닌 나가 인연에 좌지우지 되는 나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연은 물거품과 같아서 인연이 사라지면 인연에 의한 나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 '가짜 나'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중생은 사대를 내 몸이라고 하고 육진의 그림자를 내 마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즉 지수화풍 인연 따라 형성된 몸을 내 몸이라고 우기고 색성향미촉법으로 인해 듣고 보고 맛보는 것이 인연 따라 형성되었을 뿐인데, 그렇게 생겨난 선입견을 내 마음이라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에 그런 선입견이 꽉 차 있습니다. 어느 때 그것이 인연 따라 툭 튀어나오면 그것이 내 마음인줄 착각합니다. 몸만 가짜가 아니라 마음도 가짜로 형성된 것입니다. 가짜 아닌 것은 인연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는 나, 이게 진짜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짜 나에게 의지하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신 것이죠. 진짜 나를 체득하고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곧 부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진짜 부처님은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짜 나가 부처님입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 하면 절에서 살게 마련입니다. 절에서 밥 먹고, 절에서 자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 모시는 것, 이것이 스님의 3대 강령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한국 신도들은 전부 눈이 삔 사람만 모였다고 말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옳고 그런 것을 분간을 못해요. 3대 강령을 잘 지키기도 않는 스님을 큰스님이라고 부르고, 스님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게 한국불교의 실상입니다. 물론 어쩌다 볼일을 보다 보면 부득이 절에서 못 잘 때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사흘이 멀다하고 절에서 나가서 자고 예불을 빠뜨린다면 무언가 탈이 있는 겁니다. 신도는 삼보를 외호하고 불교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신도의 의무인데, 그렇게 잘 못돼 가는 스님들을 큰스님이라고 떠받든다면 그것 역시 잘못되는 길입니다.

출가인으로서 진짜배기이냐 아니냐 3대 강령이 있다고 했죠? 이제부턴 4대 원칙을 말할테니 잘 들어보세요. 범어사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유교 신자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불교와 유교가 다른 점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그만 입을 다물고 마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절에 다니는 신도라고 하면 기독교와 불교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무엇에서부터 해방되고 탈출하느냐? 업, 인연, 잠재의식 등에 꽁꽁 묶여 있던 것에서 해방되어 탈출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가 묶여있는 게 중생입니다. 그것에서 탈출하면 청정심 밖에 남는 게 없어요. 네 번째로 삼보 긍정설입니다. 불법승 삼보를 부정하거나 존경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 신도의 첫 관문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완성하면 성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가자만 알고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부대중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이러쿵 저러쿵 하거나 이 절 저 절 왔다 갔다 하는 절 도깨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야

종교를 안 가진 사람과 불교 신자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신도냐 아니냐는 4대 원칙에 합격이 되면 진짜 신도이고 불합격 되면 마구니입니다.

첫째로 인과설입니다. 타종교는 인과의 내용은 긍정해도 정면으로 인과를 내세우는 종교는 불교 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삼생설입니다. 전생, 금생, 내생을 인정하는 것은 불교뿐입니다. 불교도이면서 삼생설을 부정하면 마구니입니다. 셋째로 해탈설입니다. 해탈도 불교에만 있습니다. 해탈은 쉽게 말해서 해방돼서 탈출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열반경〉에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에 의지하되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열반경>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유언에 해당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를 잘 새겨서 절에 다니는 마음가짐은 법에 의지하라는 훼칙을 지키며 4대 원칙을 완성하는데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잊어버린 나로 인해 벌어지는 온갖 현상들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잊어버린 나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 문에 들어와서는 참나를 찾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 영석 스님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 울타리를 쳐 놓고서 그 곳을 벗어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다. 우물 안에서 보이는 하늘은 꼭 우물 크기만큼이다. 더 넓고 활기에 찬 다른 세상이 있음을 모른다. 우리는 대부분 본인이 만든 울타리안에 안주하고 싶어하고, 그 곳을 벗어나는 것을 불안해한다. 그리고 또 단체나 개인을 불문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더욱 더 굳건하게 지키고 싶어한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있는 것을 지키고 싶어하고, 그렇지 못하거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한다. 변화란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바다. 그 변화는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 너와 내가 함께 잘 되기 위한 변화를 요구


그림 · 문병성

해야 하며, 자기 자신도 끊임없는 변화를 위해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사는 스님이 영석 스님이다.

영석 스님은 포교원 연구실 사무국장 소임을 맡기로 내정이 되었다. 그래서 포교원장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면접도 겸해서 포교원의 칸막이된 회의실에서 원장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즈음에는 신도국장도 공석이어서 사무국장과 신도국장을 어느 스님이 맡느냐로 의견이 분분하던 때였다.

나는 영석 스님이 누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회의실에서 원장스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내가 "비구니 스님들은 한번 자리에 앉으면 오로지 왜 그 자리만 지키려고 하나?"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 꺼내기가 무섭게 회의실에서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연구실 사무국장 소임을 새로 맡게 될 스님처럼 보였다.

아뿔사! 왠지 꺼림칙했다. 나중에 원장스님께 여쭈니,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천거한 실력있는 스님이라고 하셨다. 면접이 끝난 뒤 영석 스님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어쨌든 영석 스님은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다.

그런데 보통의 사무국장이 아니었다. 요즈음 모두들 기본을 찾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바로 영석 스님이 기본이 아주 충실히 갖춰진 스님이었다.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도 저 정도 되니까 많은 스님들이 다투어 천거를 했나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다.

포교원에서는 안건을 처리해야 할 때 원장스님을 모시고, 차 · 과장까지 함께 회의를 한다. 그럴 때마다 영석 스님의 자세는 다소곳함과 함께 상대방이 편하게 느끼는 엷은 미소로 일관한다. 스님의 자세만 보고도 어른스님들이 "영석 스님은 어른을 많이 모셔 봤지요?"라고 할 정도다. 영석 스님은 요란을 떨지 않으면서 자기계발에 끊임없는 시간을 투자한다.

출가해서 은사스님 시봉하고 몇 번씩 시험을 봐야만 합격한다는 운문사 강원을 졸업한 뒤에도 동국대에 진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렇다고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다. 대전 보문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교법사를 겸하면서 불교대학 강의도 하고 법회도

매사 사려깊고 따뜻 뭐든 맡으면 쉽게 '척척'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포교에도 열심이다. 정말 눈코 뜰새 없을 만큼 바쁜 사람 가운데 하나다.

포교원에서도 책상자리에 앉았다 하면 불 일 외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을 만큼 집중력과 성실로 뭉쳐진 수행자다. 크게 웃지도 않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 옆에 있어보면 배울 것이 참으로 많다.

영석 스님은 세속의 언니도 출가를 했는데, 같은 은사스님을 모신 사형사제지간이다. 영석 스님이 먼저 출가를 했는데, 출가한 동생을 잘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갈 요량으로 언니가 절을 찾아 나섰다가 오히려 동생에게 설득당해서 덩달아 출가를 하게 되었다. 언니가 나중에 출가를 했으므로 동생의 사제가 되어야할 상황인데, 영석 스님이 언니보다 구족계를 뒤에 받음으로 해서 절집에서도 사형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 동생의 사려깊음으로 해서 형님 자리를 승(僧), 속(俗)모두에서 온전하게 지켜주게 되었다.

이 일화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영석 스님은 매사에 사려가 깊다. 사려가 깊다 보면 대부분 여러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석 스님은 무슨일이든 맡겨만 주면 쉽게 해 낸다.

포교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법회와 설법>의 설법 문안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좋은 설법문안을 만들어 낸다. 끊임없이 자기변화를 추구하는 스님의 성실과 근면에 존경과 찬탄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드러나진 않지만 알차게 수행하는 스님의 모습이 큰스님 부럽지 않게 느껴진다. ■ 해인사 원당암

육 법 등(六法燈)


의장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2005 원일 불교카렌다 출시!!

- 불기 2549년을 맞이하여 원일카렌다에서는 참신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2005년 카렌다를 불자님께 널리 보급하고자 제작 하였습니다.

카 렌 다

· 1.000부이상 주문시 표지그림으로 귀 사찰을 넣어서 인쇄를 원하시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사진 또는 필름사용 가능)
· 각 사찰카렌다 독판을 저렴하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전화주시면 카다록을 보내드립니다.

후회없는 선택! 원일카렌다!

15년 전통 최고의시설 최상의제품

원일문화사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38-8
TEL:02)2277-0304
FAX:02)2268-6732
www.wonil-c.co.kr



▲단호박 · 죽순 · 오이 · 표고 · 샐러리 등 제철에 나는 재료를 이용해 만든 구절판.

자연을 버무려 신선함 담아내는

건강식단 입맛 땡기네

'여름외식' 채식으로 즐기자

산마늘, 전호, 섬미역취, 섬쑥부쟁이, 섬초롱, 두메부추….

낯선 이름의 야채들이 밥상 위에 살아있다. 이 채소들은 울릉도와 지리산에 기대 자란 야생초. 주말을 맞아 서울 논현동 한우리 한정식당을 찾은 선재네 가족은 갓 채취한 특산 야생초에 천연소스를 버무린 '야생초 샐러드'를 시식하며 '채식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웰빙이 우리네 식생활 문화에 깊숙이 파고든 것은 이미 오래다. 식단에는 건강식 바람이 불어 닥쳐 메뉴마다 '웰빙', '유기농' 등의 딱지가 따라붙었지만 제대로 된 건강식을 접하기는 쉽지 않은 일. 선재네 가족은 평일에는 텃밭에서 키운 유기농 야채로 식단을 꾸리고, 주말에는 전국 곳곳의 채식식당을 직접 찾아가 별미를 맛본다.

선재네가 이번 주말에 찾아나선 한우리 한정식당은 '자연 · 신선 · 건강'을 테마로 지난 4월에 문을 연 정통 한정식 음식점. 야생초 샐러드 · 해초비빔밥 · 색동 구절판 · 연잎주먹밥 등 엄선한 채식메뉴들이 돋보인다. 울릉도 등지에서 자연산 재료들을 직접 들여오는 것은 물론 화학조미료는 일절 금하고 있어 스님을 비롯한 순수 채식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고춧가루, 메밀가루, 참기름, 들기름 등의 기본 재료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원천적으로 걷어낸 것도 이 음식점의 특징이다. 농약이나 유해물질이 닿으면 금세 색이 변해 생명의 그릇으로 불리는 '방자그릇'에 담겨 한결 품위가 느껴진다. 인간문화재 이봉주 선생이 손으로 빚어 만든 그릇은 천연 재료와 어우러져 자연 그대로의 맛과 색감을 살려낸다.

메뉴는 코스형태로 제공되며 점심이 2만~3만원대, 저녁은 4만~12만원대이며, 저렴한 가격의 일품요리도 준비돼 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 '자연 · 신선 · 건강'이라는 테마가 돋보이는 한우리 한정식 내부.



왼쪽부터 전유화, 호박죽, 연잎밥, 신선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채식식당 (가나다 순)

식 당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감로당(사찰음식전문)	서울 종로구 삼청동/ 02-3210-3397, www.sachalfood.com
뉴스타트	서울 강남구 역삼동/ 02-565-4324)
'뉘조' (약선음식 전문)	서울 종로구 관훈동/ 02-730-9301
만지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02-929-3673)
뱀부하우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02-566-0870
불광산사 적수방(滴水房)	서울 중구 필동/ 02-2276-0993, www.fgs.or.kr/
산골채식건강식당	서울 중랑구 묵동/ 02-978-9006
산촌	서울 종로구 관훈동/ 02-735-0312, www.sanchon.com)
새생명 건강동우회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02-735-5681
소심(素心)	서울 종로구 안국동 로타리/ 02-734-4388)
시골생활건강식당	서울 강남구 신사동/ 02-511-2402, www.countrylife.co.kr
신동양(채식 중화식당)	서울 여의도구 여의도동/ 02-782-1754)
장독대	서울 관악구 봉천동/ 02-579-6787-8)
채근담(사찰음식전문)	서울 강남구 대치동/ 02-555-9173)
채식시대	서울 양재동/ 02-3487-5365, myhome.naver.com/vegeera
채식이야기(뷔페)	서울 송파구 문정동/ 02-403-6669, www.v-story.com
풀향기	서울 장충동점 02- 2265-1320/ 연희동점 02-325-3075 한남동점 02-794-8007/ 압구정점 02-548-0351
한우리	서울 논현동/02-542-4277
현미쌀눈밥(뷔페)	서울 중랑구 수유역앞/ 02-905-4956
현미뷔페건강(자연식)	서울 성동구 성수역 앞/ 02-463-0406
SM채식뷔페	서울 강남구 포이동/ 02-576-9637, www.smvege.co.kr

극장가

킹 아더 / 액션, 어드벤쳐 / 119분



개봉예정일: 7월 23일
감독: 안톤 후쿠아
출연: 클라이브 오웬, 스티븐 딜레인, 키이라나이틀리 등
등급: 15세 이상
전설 속의 인물 아더왕이 좀더 현실 속으로 들어왔다. 영화 '킹 아더'는 신화 속의 주인공을 다루던 기존 영화에 비해 인간적인 측면이 한층 강화된 아더왕의 모습을 그린다. 기사 랜슬럿, 왕비가 되는 여전사 기네비어, 마법사 멀린 등 다채로운 인물들이 펼쳐나가는 대 서사시.

그놈은 멋있었다 / 코미디, 멜로 / 114분



개봉예정일: 7월 23일
감독: 이환경
출연: 송승헌, 정다빈, 이기우 등
인터넷 소설 작가 귀여니의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겼다. 고교짱인 지은성(송승헌 분)과 겁 없이 지은성의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단 예원(정다빈 분)의 밀고 당기는 아기자기한 사랑이야기.
한번의 키스로 평생을 책임지라는 은성의 순애보 역시 볼거리다. 송승헌의 연기변신이 돋보이는 로맨틱 코미디.

늑대의 유혹 / 액션, 로맨스



개봉예정일: 7월 23일
감독: 김태균
출연: 강동원, 조한선, 이청아 등
인터넷 소설가 귀여니의 또다른 영화. 서울로 상경한 여고생의 좌충우돌 사랑만들기를 그렸다. 고등학생이 주인공인 만큼 얼짱들의 액션 대결이 눈을 사로잡는다. 10대를 위한 상큼한 멜로 '늑대의 유혹'은 상큼하면서도 슬픈 우리시대 아이들의 영화다.
세명의 주인공이 풀어가야 할 비밀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전시

풍속화로 본 한국인의 삶과 문화

'추억속의 풍속화' 展 31일까지 '스페이스 시'



'승무', 이남호 작, 종이에 수묵채색, 1975년.

서민 삶 속의 애환과 즐거움을 해학이 넘치는 한 폭 그림에 담아낸 풍속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신사동 '스페이스 시' 갤러리는 7월 31일까지 운보 김기창, 인당 이영균 등 대표적인 현대 동양화가들의 작품 30여 점을 전시하는 '추억 속의 풍속화' 전을 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19세기 이후 단절된 풍속화의 전통을 현대에 계승한 금추 이남호의 <승무> <원두막> <천렵> 등 풍속화가 대거 전시돼 관심을 모은다.

김기창의 <농악>, 이영균 <일수불퇴(一手不退)>, 신동우의 <장가드는 날> 등에는 관혼상제, 놀이 문화 등 조선 시대 서민들의 아기자기한 삶이 그대로 담겨있다.(02)547-9177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불성차

지리산 전통 수제 녹차의 그 맛. 다른 일반 녹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녹차의 진수를 느껴보세요. 원산지 경남 하동, 우전 세작 중작 3종류, 무게 100g, 3만 5천원.(02)732-1520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05:45 고승열전
09:05 차 한잔의 선율
02:05 네트워크 연결, 전국은 오늘
17:10 무명을 밝히고
18:00 저녁예불
21:30 BBS 초대석
00:00 살며 생각하며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1일 09:20 혜거 스님의 선특강
22일 12:00 TV법회
23일 14:30 정경대 박사의 의명학강의 4
24일 20:30 다시 듣는 법문
25일 11:30 충성 성불하십시오
26일 15:10 수진 스님의 화엄경 강의
27일 17:30 자비의 천수천안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사찰순례(7월 25일 일요일 오전 6:30~7:00) 전국 각지의 사찰 역사와 성보 문화재, 사찰에 깃든 설화, 주석했던 스님들의 구도 열정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하는 시간이다. 전국 사찰을 돌며 답사 및 자료수집에 전념해온 사찰문화 연구원 신대현 박사가 출연한다.

■**불교텔레비전**: 우학 스님의 금강경 7강(7월 21일 12:00~13:00) 우학 스님이 <금강경>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강의한다. 이번 주는 '제7강 정신희유분'으로 이 경에 담긴 뜻을 받들고 믿는 것은 귀하고 거룩한 일'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시판

공부합시다

무심 스님 초청법회 부산 홍법사는 7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계룡산 무상사 주지 무심 스님 초청 법회를 연다.(051)508-0345

집중수행 천안 호두마을은 7월 23~8월 1일 우에나까 스님이 지도하는 집중수행 시간을 갖는다. 입제는 23일 오전 7시 30분. (041)576-2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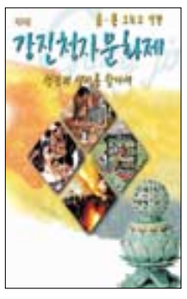
열흘간 위빠사나 수행 한국 위빠사나준비센터는 7월 31일~8월 11일, 8월 13일~24일 위빠사나 수행자 고엔카가 지도하는 10일 집중수련 시간을 갖는다. 홈페이지(http://cafe.daum.net/dhammakore)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dhammakorea@daum.net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리강좌 동산불교대학은 8월 12일 3개월 과정의 교리강좌 개강을 앞두고 원서접수를 받고 있다.(02)732-1206

함께 해요

어린이박물관교실 국립 전주박물관은 8월 9~12일 초등학교 5 · 6학년생을 대상으로 '신나는 어린이 박물관 교실'을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내 고장 전주의 역사' '전북 문화재 바로 알기' '전라도 가락 배우기' 등. (063)220-1015

청자문화제(사진) 강진군은 7월 31일~8월 6일 대구면 청자도요지에서 화목가마 불지피기 청자빚기 청자흙 만들기 등을 하는 체험행사를 준비한다. (061)430-3223



어린이 몸짱 만들기 캠프 춘천시는 7월 26~30일 춘천 고슴도치섬(위도)에서 초등학교 비만 어린이를 초청한 '어린이 몸짱 만들기' 캠프를 연다.(033)250-3114

청각장애인 가족캠프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은 7월 29일~8월 1일 강릉 선혜원으로 청각 장애인 가족을 초대한 여름캠프를 실시한다. 각종 가족 기능회복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2)2202-5831

여름성지대회 전국염불만일회는 8월 1~3일 제주 법화사에서 여름성지대회를 연다. (02)732-1215

가족극 축제 과천시민회관은 8월 6~14일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함께 즐기는 '2004 여름방학 가족극 축제'를 연다. '사랑은 아침햇살' '토끼와 자라 그 후…' '무엇이 될까?' 등이 공연된다.(02)504-7300

즐겁게 떠나요

반딧불이 생태체험 영양군청은 8월 2~4일, 9~11일 13~15일 영양군 수하 청소년수련원에서 '여름방학 반딧불이 생태체험과 문학여행'을 떠난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054)682-2241

안동 기행 답사단체 터사랑은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탈춤 공연 등을 관람하는 '문화유산 기행'을 떠난다. 출발은 오전 7시 30분 서울 지하철 안국역.(02)725-1284

문화유산답사 경북관광공사는 8월 1일부터 8차에 걸쳐 문무대왕 수중릉, 황룡사 터, 장항리 절터, 골굴암 등을 둘러보는 문화답사를 실시한다. 답사일은 1일, 6일, 7일, 8일, 14일, 15일, 21일, 22일. 신청은 www.isilla.co.kr으로.

남도맛기행 국토문화연구회 옛돌은 7월 25~26일 해남 대둔사, 강진 다산 초당, 보성 차밭을 둘러보고 전라도 별미를 즐기는 '남도맛기행'을 떠난다. 출발은 서울 압구정역, 오전 7시 30분.(02)2009-3477

수도권답사 온라인 답사단체 '나의문화유산답사'는 7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인왕산 부근 사직단, 현진건 고택터 등을 찾아가는 수도권답사를 한다. 신청은 cafe.daum.net/7116으로.

농활 구로청소년수련관은 7월 26~28일 충북 괴산군 감물면으로 콩순따기, 고추따기, 피뽑기 일손을 도울 청소년 농활을 떠난다.(02)838-1318

20면 상식 퍼즐 정답

선	구	자		장		
가		부	화	뇌	동	
귀			랑		치	
감	사				미	인
	모		무			과
	곡	학	아	세		응
		벌		대	들	보

신행수기

내 인생의 참스승 <하>

우선주 (43·서울 봉천동)

"과거가 없었다면 현재의 나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있었던 일이 과거에선 미래, 현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순간 찰나의 현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과거, 미래, 현재라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과거가 지나간 것이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지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과거의 미래인 지금 내가 어떤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다. 공생선원 주지스님의 말씀과 다름 없었다. 그리도 몸서리치게 싫어진 3년 조금 넘은 나의 지옥같은 삶이, 이제 내게 감사함으로 남아있다.

그런 뼈아픈 일을 겪지 않았다면 진정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그저 태어나 윤회의 바퀴에 굴러 다녔을 텐데.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궁금함 따윈 없다.

"인과에 대한 응보는 꼭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라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지었던 자신의 업입니다. 공을 던지면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또 전생의 업을 지금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순응하고 그 자리에 맡기고 지켜보십시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모든 공덕은 내가 낮아지고 죽어져야 그 곳으로 모입니다. 흐를 수 없는 물은 썩어버립니다."

나는 선원에서 조금은 많은 일을 한다. 사람들은 어쩜 그리도 봉사를 잘 하느냐고 칭찬을 해주지만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부끄럽다. 누구를 위하기 보담은 나를 위함이 더 크다. 주지스님께서 알려주신 '돌아옴'의 이치를 나는 정확하게 알기에 늘상 감사하고 즐겁다.

지난 처절했던 날들을 함께하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아준 남편과 밝게 자라준 아들에게 너무도 감사하다. 나는 한번도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단지 주인공에게 "주인공! 당신이 인연지어준 가족이잖아. 나의 가족이지만 또한 당신의 남편이고 아들이잖아. 당신과 둘이 아니잖아." 그리곤 맡겨놓았다.

지금 나의 아이는 중3이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불쌍함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옳지 못함을 보면 분노할 줄 아는, 정치 사회적인 일도 논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다. 1년 일찍 학교에 들어간 데다 외동아들로 자라이기적인 데가 있어 친구도 없었는데, 이제는 늘상 친구들이 찾는 호감가는 아이로 자라났다. 성적도 상위권이고 학교통지서에 있는 생활면에는 통솔력 있고 협동심이 강하다고 써 있으니 정말로 감사하다.

남편의 사업도, 남들은 요즘이 IMF관리체제 때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두 번의 사업실패 경험이 있어서인지 직원들도 성실하고 거래처도 많이 늘어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다. 때로는 나의 숨소리조차 감사하다. 지금도 가끔씩은 마음의 병이 찾아오곤 한다.

꽉 막힌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과 그래서 숨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과 복받치는 슬픔과 외로움이 나를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두렵지 않다. 나는 그 자리의 고요함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를 흔들어 놓아도 의지할 곳은 오직 그 자리 그 곳이란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한 가르침의 한 모습이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에 고요히 앉아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놓는다.

나의 스승이신 스님은 말씀하신다.



그림 · 김홍인

나를 포기않고 지켜준 남편과 아들에게 감사

그냥 맡기니 편안…봉사활동 열심

"이 세상 무생, 유생의 만물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며 스승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의 스승이라 말할 수 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님께선 한번도 당신 공부 자랑함이 없으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입니다. 믿고 놓고 지켜보는 것 그것만을 알려 드릴 뿐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믿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기가 엄마를 믿듯이 그러면 꼭 상봉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공이 나의 스승일 지라도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스승 무각 스님에 대한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수도 없이 의심할 때마다 체험담을 들려주시며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 자상하게 깨우치신다. 만개의 입이 있어 감사함을 표현한들 족할까?

무각 스님은 재작년 조계사를 떠나 서울 쌍문동에 공생선원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재가불자들에게 마음법을 포교하고 계신다. 밖으로 뻗어있어 나가 있는 마음을 내 안에서 찾으라고 항시 말씀하신다.

"남에게 달라고 비는 것은 거지나 하는 말입니다. 관세음도, 지장도, 문수도, 보현도 다 내 속에 있는 자성불안에 있어 작용에 따라 나툴 뿐입니다. 형상들은 내 마음의 표현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실천이 없는 깨달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은 둘이 아닙니다. 깨달음보다 더 힘든 것은 깨달음을 앞세운 실천입니다. 둘 아닌 도리로 실천을 해야만 업식을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스승같이, 아버지같이, 친구같이 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스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가만히 눈감으면 떠오르는 선원이나 공양간이 그저 그립다. 특히나 언니 같고 스승 같기도 한 보살님이나 선원의 도반들이 그저 그립고 그립다.

늘 힘들었던 시절을 되새기며 처음 조계사에서 좌선하던 그때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정진하며 살고자 한다. 인연있는 도반이나 불자들이 마음공부의 깊은 도리를 접하고 참다운 참선수행의 길로 접어들길 기원한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상>



김연수
변호사

삶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야 누군들 다르리요.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오로지 공부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편한 생활을 찾을 수 없었던 나는 오로지 학교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를 거쳐서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정해진 대로 사법시험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방위병으로 근무해야 했고,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거쳐 1992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변호사 업무란 것이 하루 종일 상담과 서류 작성에 매달려야만 하는 일이었고, 진작부터 해결하고 싶었던 생사문제는 뒷전으로 밀어놓아야만 했다. 틈틈이 책을 보았지만 워낙 사법시험 공부에 찌들었던 나에겐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던 차 2002년 가을, 묘봉 스님을 뵙게 되었다. 정말로 인생은 우연의 연속인가? 아니면 이 우연마저도 나이지만, 승속의 차별상을 심어주고 복을 구하는 것이 불교의 모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지금 우리 불교가 시급히 정리해야 할 것은 무당 불교, 금전 불교이다. 무당이나 하는 짓들을 '큰스님'이라는 분들이 거리낌 없이 행하고, 교회 키우듯 절을 크게 짓고 불상을 크게 세우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모습을 볼

묘봉 스님의 '육조단경' 법회 매주 참석
화두받고 정진하며 불교 새롭게 인식

이미 정해진 것인가? 아이들의 과외 선생님이었던 청벽안 보살이 건네준 <육조단경>을 읽어 가는 순간, '아하!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곧 청벽안 보살의 안내를 받아 대전시 서구 괴정동에 있는 국은사에 가서 스님을 친견하였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육조단경> 법회에 참석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금요일에는 약속에 파묻혀서 지냈었는데, <육조단경> 법회에 참여한 뒤로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된 것이다. 물론 나로서도 금요일 저녁에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일이었으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으리라.

지난해 9월 5일부터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국은사로 가서 2시간 동안 참선을 했다. 그리고 동시에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 참구하였다. 화두를 하나 하나 깨뜨려나가는 동안 얻는 희열은 표현할 길이 없다. 이제까지 신비로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불교를 접해왔던 잘못이 확연히 정리되었다.

우리 불교 전체의 잘못된 모습의 하나 때마다 불교의 본 모습이 아님을 절감하고 있다. 화두 하나 제대로 깨뜨리지 못하면서 다라니 염불이나 강조하고, 달리 공부하는 이들을 백안시하는 모습, 오르지 자기 공부임을 가르치지 않고 큰스님에게나 매달리게 하고 나아가서는 밥그릇 싸움에 매일 같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은 언제나 사라질 것인가?

그렇다. 불교는 자기 자신이 하는 공부이다. 절을 크게 짓는다고 하여 깨달음을 이룰 수 없고, 방생을 많이 하였다고 하여 극락에 갈 수도 없다. '내가 곧 부처'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항상 비굴하게 부처에 매달리며 부처에게 빌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일에 매달리다가 지옥에 떨어지리라. 머리 깎았다고 출가한 것이 아닐진대 어찌 나를 낮춰 허깨비 따라 다니는 일에 정념을 쓰는 지옥행 보시를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남에게만 눈을 돌리거나, 헛된 계율에 묶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게을리 한다면 공부해도 도로아미타불이요, 쌍아도 지옥행 예약 뿐이리라. (계속)

사찰, 법당, 앰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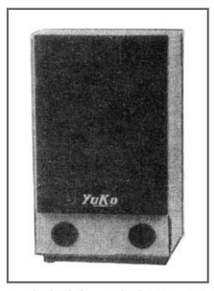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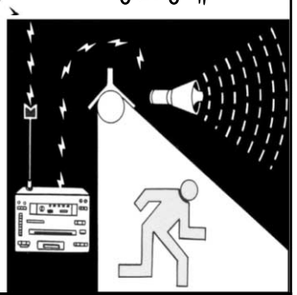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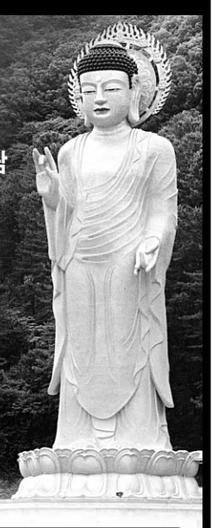
동양최대 아미타 대불
(높이:36m 아파트 12층 높이)

부처님 몸 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 · 극락도 · 지옥도 · 관람
7층에 올라가면 부처님 몸안에
미타삼존불 법당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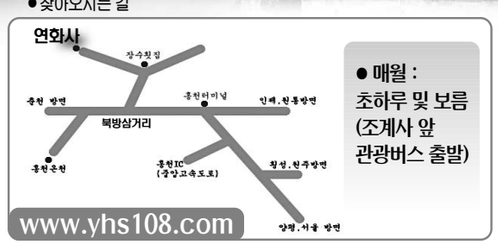
1층에 열두 분 부처님을
한자리에서 친견합니다.

▶ 대형주차장완비
▶ 점심공양 가능
▶ 입장료 무료

◆ 주위 명소 :
홍천온천, 천년고찰 수타사



● 찾아오시는 길



● 매월 :
초하루 및 보름
(조계사 앞
관광버스 출발)

www.yhs108.com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지허 스님(가운데)이 7월11일 불교학연구회가 개최한 '2004 여름워크숍'에서 '우리차'를 주제로 다담을 나누었다. 오른쪽이 이평래 교수 왼쪽이 이중표 교수.

형식 보다 정성다하면 '다도'

지허 스님의 '우리차 이야기'

7월 11일 불교학연구회 워크숍에서

7월 11일,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중표)가 광주 무각사 불교회관에서 '2004 여름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지허 스님(선암사 주지)은 연단 대신 찻상을 앞에 놓고 이중표 교수(전남대)와 이평래 교수(충남대 · 한국불교학회장)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다담(茶談)을 진행했다. 200여명에 이르는 대중들이 스님과의 대화에 참여했다. 여기서 나온 질문과 그에 대한 지허 스님의 답변을 요약해 싣는다.

차 자체가 무아 무념 무상
외형 추구하는 것은 '쇼'
香 · 色 · 味 모두 즐겨야

Q : 선과 차의 관계는 '선다일여(禪茶一如)' '선다일미(禪茶一味)'로 표현되곤 한다. 왜 그런가.

A : 선의 출발은 무아(無我) 무념(無念) 무상(無相)이다. 오직 한국에만 남아있는 간화선은 더욱 그러하다. 차를 기르고, 만들며, 마시는 것은 차 앞에 자아(自我)가 없는 '무아'여야한다. 또한 '무념'으로 일체의 생각을 한 티끌도 없이 비워야하고, 시간과 행위가 없는 '무상'이어야 한다. 이 경계에 이르렀을 때 차와 선이 일치된 선다법이 된다.

특히 참선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번뇌마(煩惱魔), 수마(睡魔), 무기마(無記魔) 등 세 가지 큰 마구니가 따른다. 차를 마시면 이 마구니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다.

참선하는 스님들은 마음찾는 사람으로 차와 같은 면이 많다. 차나무는 분리식수가 안된다. 스님도 한번 출가하면 더 갈데없이 수행만 한다. 차는 낙엽을 보이지 않는다. 언제 잎이 졌는지 알 수 없다. 스님들도 남기는 것이 없다.

Q : 우리 자생차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A : 자생 차나무는 지표면의 양분에 관계없이 뿌리가 지상 키 크기에 3~4배가량 밑으로 내려가는 직근성이다. 그래서 암반층의 담백한 수분과 무기질을 흡수해서 찻잎을 낸다. 우리 자생 차나무가 아닌 것은 대부분 지표면의 영양분을 좇아 잔뿌리가 많이 생기고 옆으로 퍼진다.

제조방법에 따라 영국은 완전발효, 중국은 반 발효, 일본은 찌는데 반해 우리는 유일하게 덖는다. 차가 가지고 있는 80%의 수분을 여러 차례 덖어서 고유의 차성분을 함축시킨 좋은 차는 덖은 만큼 차를 우려낼 수 있다.

Q : 차 예절이 번잡스러워 차 생활이 일반화되지 않다고 생각한다.

A : 초의 선사는 <다신전>에서 우리 조상들의 다도에 대해 '만들 때 정성을 다하고, 저장할 때 건조하게 하며, 마실 때 청결하게 하면 다도는 완성된다(精燥潔茶道盡矣)'고 했다. 화려하게 차려입거나 화장까지 하고서 복잡한 형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차의 이름을 빌린 쇼에 불과하다.

실제 우리 차는 형식에 걸림 없이 편하고 자연스럽다. 끓인 물을 그대로 부어 마셔도 된다.

Q : 차는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

A : 차의 세 가지 요소는 향(香) 색(色) 미(味)이다. 향색미를 음미하면서 마시면 된다.

좋은 차 일수록 향색미가 우수하다. 격식에 얽매이지 말고 편하게 마시면 된다. 이 자리에 많은 대중이 있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며 담소를 즐기고 있다.

차는 찬 성분이 있어 차게 마셔서는 안된다. 좋은 차는 아무리 뜨겁게 마셔도 한여름에 겨드랑이에서 찬바람이 난다고 했다.

또한 차는 습기에 매우 약하다. 변질된 차는 도리어 병이 된다. 차를 내기 전에 변질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먼저 다관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가 다관이 데워지면 물을 비우고 차를 넣은 뒤 1분가량 지난 후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면 된다. 냄새가 없거나 묵은내가 나면 변질된 것으로 마셔서는 안된다.

흔히 차를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이는 권장할 것이 못된다.

차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이 좋다.

정리=이준엽 기자


불교학연구회 회원들이 선암사 칠전선원 달마전 돌우물을 둘러보고 있다.

다도학과 신입생 모집

동산불교대학(이사장 김재일)은 8월 7일 개강하는 다도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다도학과는 50명 정원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의를 진행한다. 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7월 31일까지 동산불교대 사무국으로 입학원서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을 접수하면 된다.(02)732-1206

심수연학회 품다회 개최

심수연학회(회장 유건집)는 7월 24~25일 열리는 '2004 광릉수목원 봉선사 연꽃축제' 기간 중 봉선사 경내에서 품다회(들차회)를 개최한다. 25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열리는 이날 품다회에서는 7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차를 선보일 예정이다.(031)527-1951

우리 사찰 차 모임

경북불교대학 불광사 다도회

교육 통해 내면의 아름다움 키워요


경북불교대 불광사 다도회 회원들은 매주 금요일 법당에 모여 다도교육을 받는다.

7월 9일 금요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 경북불교대학 불광사 법당에는 다도반 4기 회원 10여명이 선생님의 말에 따라 일제히 차완(찻그릇)에 물을 따르고 차선(말차거품을 일게하는 도구)으로 힘차게 '마음 심'자를 그리며 말차거품을 일으킨다. 말차를 우려내는 회원들의 한 동작 한 동작이 한꺼번에 절도있게 어우러져 한 송이 꽃의 너울거림을 연상시킨다.

경북불교대학 불광사 다도회는 다도회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초파일, 백중, 불교대학 입학식 등 연중 중요행사에 육법공양을 올리고, 천도재 등의 행사에 참여해 차 공양을 올린다. 신도들의 경조사에도 빠지지 않고 달려가 차 봉사한다. 매년 초파일마다 대중들에게 우려내는 연차는 다도회의 자랑이다.

"우리는 차를 통한 봉사도 하지만 팔 걷고 설거지도 잘해요. 육수동 골짜기의 작은 봉사회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봉사정신 지녀야 입학…중급반 이상이면 정회원
천도재 · 신도간 애경사 등에 차공양 , 연차 일품

'불자라면 누구라도 부처님 전에 차공양을 올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몇몇 뜻있는 동문들에 의해 비롯됐다. 첫 다도수업이 진행된 것이 97년. 지금은 5기생 11명이 초급반 수업을 시작했고, 다도반 수업을 계기로 사범 자격을 갖춘 다도회 회원이 무려 20명이 넘는다. 다도반 수업은 모두 2년 과정으로 초급반 1년은 잎차 우리는 과정을 배우며, 중급 1년은 말차 우리는 과정을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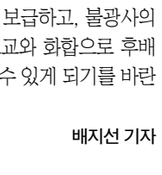
불교대학 재학생 중 봉사정신을 가진 회원들에 한해 다도반 입학이 가능하며, 중급반 이상이어야 정식 다도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초급반 하필분(대덕심) 선생은 "다도수업을 통해 변화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한다. 함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습들이 어느덧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어지고 내면화되어 우아한 여성으로, 여법한 수행자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수행의 한 과정으로 차를 우리고 차 공양을 올린다"는 경북불교대학 다도회 40여명 회원은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 보살행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경북불교대학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고 있다.

인터뷰

신정숙 회장
보시·기도하는 마음으로 차 보급



"직장관계로 다도회 일에 자주 참석하지 못해 늘 회원들에게 미안할 뿐"이라는 신정숙 회장(법명 대선심)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다도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회원들의 활동에 힘이 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알게 됐다"는 신 회장은 "다도회 회원들이 불자로서 보시하는 마음,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를 보급하고, 불광사의 제목이 되어 포교와 화합으로 후배들에게 회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마하몰단체행사용품특별기획전


▮ 카드썬캡 1,800원(다량구매시 할인)
펼치면 멋진 썬캡으로 변신!!
접으면 명함사이즈로 보관이 간편
다양한 이미지 및 로고 삽입 가능


▮ 연꽃저금통 3,000원


▮ 동자저금통 5,000원


▮ 코끼리저금통 5,000원


▮ 2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4,000원
유색 4,500원
▮ 3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3,200원
유색 3,800원
▮ 2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4,500원
유색 4,000원
▮ 3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3,500원
유색 4,000원
▮ 20수 이중 라운드티
6,000원



▮ 여름불교학교현수막(실사) 높이 90cm
6m 60,000원 7m 70,000원
※기타사이즈 및 이미지 변경가능


▮ 풍경차걸이 4,000원


▮ 황금달마핸드폰걸이 15,000원


▮ 목탁핸드폰걸이 3,000원


▮ 면 반바지(아동용)
백색 4,500원 유색 5,000원
▮ 면 반바지
백색 5,000원 유색 5,500원
* 사이즈 : 아동용 14호~19호, 성인용 90~110
* 나염비(1도당) 15,000원 추가
(인쇄색상 추가시 인쇄비용 별도)
* 최초 주문 수량50장
* 기타 색상 및 로고제작은 전화상담

유기농 재배한 통불사 연향차

▮ 연향차(연꽃잎차)
~~38,000원~~ → 30,000원
연잎 100% , 40g

지리산 전통 수제녹차

▮ 불성차 (100g)
중작 35,000원
세작 50,000원
우전100,000원


※100장이상 사찰명 무료인쇄


▮ 다포(39x50)
기도포(39X80)
다포(백색) 900원
다포(회색) 1,300원
기도포(백색) 1,700원
기도포(회색) 1,900원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Mahamall.co.kr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모두의 마음속에 사계절 없는 봄이 와야

▲스님: 확실히 봄이 온 것 같죠? 확실히 봄이죠?

▲대중: 예.

▲스님: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사계절 없는 봄이 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중: 예.

▲스님: 사계절 없는 봄! 마음속의 봄맞이! 여여하게 봄을 활보할 수 있는 봄맞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50%의 맛을 모른다면 물질계의 50%에서 허덕거리다가 꺼져버립니다. 영원한 것이 뭔지 허망한 것이 뭔지 그것조차도 가늠 못하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살아계실 때에 모든 상대가 있고 인연의 법칙이 있고, 이런 반면에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없어지면 더하고 덜함도 없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지식들께서 망상과 졸음 그 두 가지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관(觀)할 때는 반드시 졸지 말아야 하고 망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망상과 졸음을 얘기한다면, 그 졸립고 망상이 난다는 걸림에 걸려서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잔다 자지 않는다가 붙어서는 선(禪)에 즉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망상이다, 망상이 아니다라는 게 붙으면 거기 직결되지 못합니다.

물론 초발심(初發心) 때는 자경문(自警文)도 읽고 계율도 엄하게 지켜야 하고 또 망상도 물리치고 졸음도 물리쳐야 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우기서 일어나는 대로 수없이 일어나는 마음에 왜 간섭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깐 일어나는 대로 모든 거를 그 불바퀴에 놔라 이겁니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주인공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주인공에서 해결할 수 있다. 주인공에서 낫게 할 수 있다. 주인공에서 이끌어줄 수 있다. 나 아닌 나가 있다고 깨닫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다.' 하고 진실하게 구하고 진실하게 내가 있다는 소식을 가져오게 하는 거지, 이것이 벌써 졸린다 하면 졸리지 않은 게 따라붙고, 망상이다 하면 망상이 아닌 것이 따라붙죠.

이러니깐 수박을 놓고선 아무리 이리저리 굴려봐도 도무지 그 수박의 맛이 나오지 않고, 첫째로 과거의 씨가 현실의 씨가 됐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씨를 찾으려고 자꾸 과거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만 생기는 겁니다. 이 모두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한생각에 몰락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오다 점수다 할 것이 없이 말입니다. 그것도 이름일 뿐이지만.

여러분께서 스스로 나와 내가 상봉을 해야 그 때부터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번에, 초발심에도 죽어야 하고 둘째도 죽어야 하고 셋째도 죽어야 한다. 내가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내 집의 전화부터 놔야 남의 집에서 전화도 오고 남의 집으로 전화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통하는 것이지 그럭하지 않는다면, 아니 내 집에 전화도 놓지 않고 전화를 때를 바라고 전화할 것을 원하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천년만년 있어도 안 됩니다.

내가 어두우면 불을 켜는 법이요, 또는 없어서 고생을 하면 일을 하는 법이요. 안 그렇습니까? 졸리면 자는 법이요 배고프면 먹는 법이요 똥이 마려우면 소통이 돼야 하니까 똥을 누는 법이요.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이 모두가. 망상이다 망상이 아니다라는 게 붙으면 직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조들께서는 진실하게 일념으로 구했습니다. 진실한 일념, 진실한 일념으로 구해야 구해지고, 진실한 일념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자체에 있다는 그 소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삼천대천세계 우주의 근본 자체를 외국에서 말하는 거는 블랙홀이라고 합디다마는, 우리 부처님께서는 불바퀴라고 했습니다. 이 전체로 말할 것 같으면 불바퀴요 또는 전체가 돌이 아니면서도 네가 있고 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 개인 혹성 하나가 바로 또 불바퀴라는 얘깁니다. '불바퀴 자체가 공(空)도 아니고 색(色)도 아니요' 한 것은 색과 공이 들이 아니게 돌아가니까 하는 소립니다. 지금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돌아가고 같이 작용을 하지, 물질계는 물질계대로 놀고 정신계는 정신계대로 놉니까? 안 그렇죠? 생명이 있으니까 사시죠? 생명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몸이 움죽거리죠? 이것이 바로 동시에 같이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뚱이에 혹성 하나가 개개인으로 있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는 개개인으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불바퀴가 쉬지 않고 여여하게 화(化)해서 돌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 조그마한 마음,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 마음이 우주 전체에 직결이 돼 있다는 그 사실, 또 이 세상살이 살림살이 전체가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예요. 모든 일체 만물만생이, 보이지 않는 중생이나 보이는 중생들이나, 보이지 않는 부처나 보이는 부처나 모두가 포괄적으로 통하고 공생(共生) 공용(共用) 공체(共體) 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하고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공생이며 공용이고, 공용이면 바로 공식화하고 공심(共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입니다. 불교는 어디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끝간 데 없는 진리를 이름해서 바로 불교라고 한 겁니다. 불교라고 하는 이름이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둘이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도 어떠한 것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어떠한 생각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어떤 말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기에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라는 이름이 없는 것이 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고 깨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들이 삶에 의해서 질서를 지키고 모든 일들을 문란치 않게 하고,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지만 이 진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도 초월된 자리요 밤과 낮도 초월된 자리요 여자와 남자도 초월된 자리요 동 서도 초월된 자립니다. 늙고 젊고도 초월된 자립니다. 옛날에도 그런 말을 했지요. "공동묘지에 가보니까 남녀노소가 없더라. 남녀노소도 없고, 마음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늙었더라." 이런 말을 한 예가 있죠.

여러분 중에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일방적으로 내가 말만 하면 여러분 가슴에 채워지지 않을까봐 질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질문자1(남): 스님! 스님께서 항상 마음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항상 이끌어주셔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는 스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고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자꾸 괴롭거든요, 마음이. 중심 잡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많이 괴로운데 이렇게 괴롭지 않고 공부 잘하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스님: 이거 봐! 대신 똥 눠주는 사람이 없을 테고, 대신 밥 먹어 주는 사람 없을 테고, 대신 죽어주는 사람 없을 테고, 대신 아파주는 사람 없을 테고, 대신 자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것은 자기 한테서 답답한 것도 나오고 자기한테서 고통스러운 것도 나온 거니까 자기한테다 되입력을 해. 카세트에 먼저 괴로운 입력이 되어있다면 괴롭지 않은 입력을 하란 말이야. '네가 있다면 괴롭지 않게도 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입력을 해. 알아듣겠어? 그러면 앞서의 입력한 게 없어져버릴 거야. 모든 것이 다 그래.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질문자2(여): 저는 엄마한테 스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자꾸 입안에서 피가 나고 잇몸이 좋지를 않습니다. 스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스님: 이거 봐, 지금도 얘기했지. 내가 도와줘서 될 일이라면, 내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원한다면 서로 한마음으로 응(應)해줄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 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고 '거기서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어 봐. 이 '참나'라는 거는 늙고 젊고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어. 너도 예전에 늙었다가 또 어린애로 태어났을 테니깐 말이야. 알아듣겠어?

모든 사람의 그 한마음 속에 약사도 있을 테고 관세음도 있을 테고 아촉도 있을 테고, 아미타도 있을 테고 또는 지장도 있을 테고 용신 · 지신 · 산신 · 독성 다 있을 거야, 한생각에.

▲질문자3(남): 스님께서 참나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유체와 육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체가 진정한 참나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스님: 허허허, 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아, 유체는 뭐고 무체는 뭐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무체와 유체가, 무심(無心)과 유심(有心)이 다 한꺼번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질문자3(남): 제가 더불어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거는 제 육신이 있고, 제 육신 안에 그 전생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또 하나의 혼(魂)이 있어 가지고 혼이 제 육체를 빌려서 하는 게 아니냐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이 진정한 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스님: 혼(魂)이라는 것은 업식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참나의 본래자성불(本來自性佛)이란 더하고 덜함도 없고 움죽거리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능력이 광대해서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든 악업 선업의 중생들,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듯이 위로는 참자기를 섬기고 아래로는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라, 그것부터 제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둘로 보지 마십시오. 혼백이다, 무슨 생명이다, 무슨 나다, 이런 걸 다 초월하십시오.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움죽거리는 게 다 거기서 동시에 나오는 거니깐요.

▲질문자3(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질문자4(남): 분별, 망상에 대해서 큰스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셔서 그 동안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니까 스님 말씀대로 많은 망상이 나오고 그러는데, 순간 제가 느껴본 것은 '망상이 있기에 보리(菩提)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리, 즉 한마음 자리에다 모든 것을 놓고 말길 때 보리가 싹트는 것이며 또한 분별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망상도 바로 보리로 가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른 생각인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렇게 해 나가세요. 이 망상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망상일 것이고 망상이 아니라고, 즉 말하자면 '망상이 없으면 아, 우리가 목석이지 발전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망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발전으로써의 계기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도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망상이다 뭐다 하는 것도 모든 것을 생각나는 대로, 즉 말하자면 좌선이다 입선이다 와선이다 행선이다 하는 것을 초월해서, 일할 때나 잘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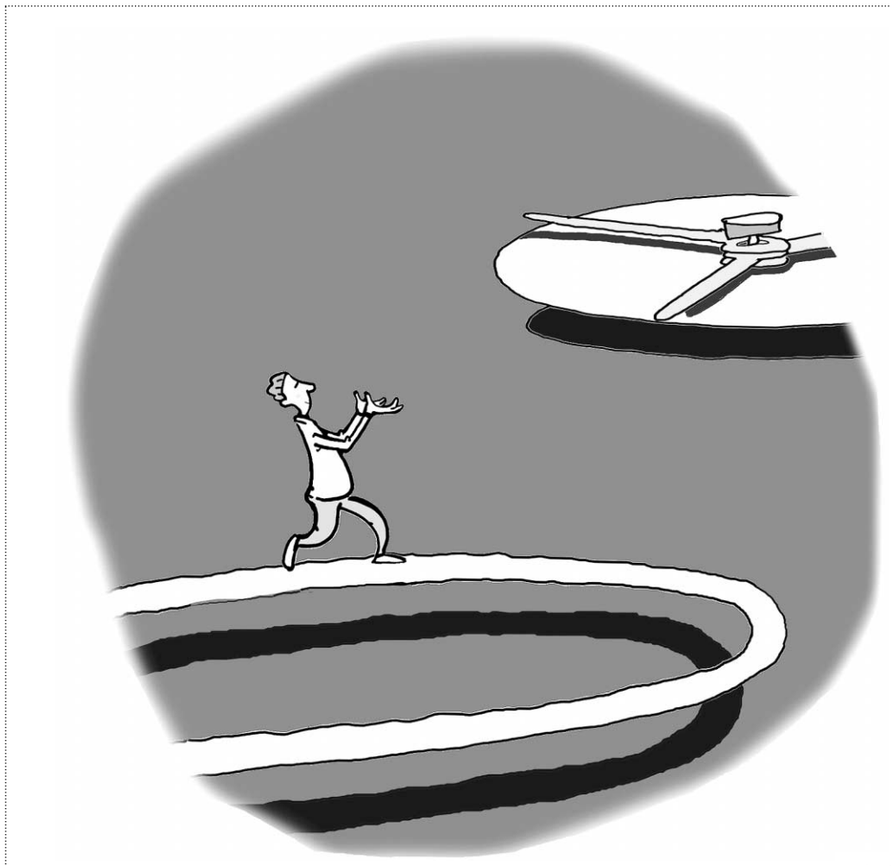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진실한 일념으로 구해야 구해지지
진실한 일념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그 소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는 대로 모든 것을 불바퀴에 놔라

☞29면에서 계속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모든 걸 막론해놓고 그놈이 있으니까 하지, 들이고 내고 하는 놈이 그 놈이다. '그놈은 또 무엇인가?' 이러지 말고 '그놈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그놈이 무엇인고?' 하는 생각을 하면 '무엇인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맛도 못 보고 작년 씨가 올로 이렇게 온 거를 모르고 작년 씨 찾다가 해다 보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자4(남):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늘 생각해왔는데요, 물론 이렇게 시간이란 개념을 떠나서 스님 법문을 듣고 공부를 온 가족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데,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공부하는 내용과 제가 뭘 얻었다는 개념보다는 조급essic이라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점검해보고 싶은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계에 부딪침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도반으로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경계가 크게 온다' 또 어떤 사람은 '경계가 작게 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경계가 크게 왔을 때 큰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조그만 것 큰 것 할 것 없이 전부 넣어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가 돼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편으로 잔잔한 바다같이 순항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이것도 또한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큰 경계가 와야 크게 깨닫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계의 크고 작음과 더불어 깨달음의 그러한 정도가 꼭 경계의 크고 작음에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스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가고 있다고 느끼고 큰 경계가 없음을 또 기뻐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게 공부가 일취월장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답보 상태인지 그게 구별이 잘 안 가서 여쭈어봅니다.

▲스님: 세상에 공안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듯이 모든 경계에 끄달리지 마세요. 이 모두가,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 해도 아니 되고 내가 안 하겠다 해도 아니 됩니다. 그저 내 앞에 닥친 거 마다하지 말고 가는 거 잡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한데 뭉쳐놓는 그런 작업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질문자4(남): 저의 가슴에 항상 봄이 와서 감사합니다.

▲스님: 하하하.

▲질문자5(남): 법문을 듣다가, 테이프로 법문을 듣다가 의심이 나서 스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 일체 중생이, 또 우주 만물이 이름은 다 각각 달라도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윤회 법칙에서 본다면 육도사생(六道四生)이 윤회를 할 때에, 만물 중에는 유정물과 무정물과 동물 식물 일체가 다 포함되는데, 육도 사생으로 본다면 유정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識)이 있는 세계로서의 윤회 법칙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님 법문 중에 산에서 고행하시는 중에 어느 나무 한 그루가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 자체의 그 이전 세계를 보니까 물 속에 있는 어류 중생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일체 중생이 하나라고 하지만 윤회 법칙에 있어서는 분명히 동물과 식물이 구별이 되고 또 동물이 식물 된다는 그런 윤회의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물과 식물이 구분이 되며 동물은 여전히 동물로만 진화하는 윤회 법칙이 성립하는가, 아니면 어류가 나무가 되듯이 식물도 될 수 있는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스님: 옛날에 어느 사람이 죽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의식만 가지고서 가다보니깐 어느 나무에 도달했더랍니다. 그래서 목신이 되었답니다. 그 마음과 그 마음이 한데 합쳐서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게 없는 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사생(四生)·육도(六度)·만행(萬行) 하는 것이 다 그냥 그대로 한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려면요, 책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너만이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일러줄 것이다. 너만이 알 것이다.' 하고 모든 걸 거기다 놓고 가세요. 이것은 글자 공부 하고 이론 공부 하고 또는 지식 공부 하고 경서 공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답이 나옵니다.

▲질문자5(남): 예.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질문자6(남): 저는 선원에 나오기까지는 저희 식구의 권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계속 오늘까지 나왔습니다마는,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술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이 일체 끊어지고 '무조건 선원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되는데, 선원에 들어서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상당히 고요해져서 우선 눈물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저와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왠지 모르게 저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다보니까 제 자신이 현재 가고 있는 마음의 점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무작정 나왔습니다.

▲스님: 하하하, 점검을 뭘로 점검을 할까요? 고요한 마음이니깐 된다, 안팎이 없는 고요한 마음이 되셔야 되겠죠? 집에 있으나 변소엘 가나 여기 절에 오나, 하여튼 당신이 있는 곳곳마다 부처는 계시니깐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부처는 있는 겁니다. 당신이 없다면 모두가 무효죠. 그러니까 당신을 끌고다니는 당신 주인에게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말겨놓으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그저 가난하면 열심히 지극하게 벌이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이 공부하는 데는 적격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내 탓이지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뭐가 탓이 될 게 있습니까, 부닥침이 뭐가 있고? 그러니깐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죠. 그거를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고 따지게 된다면 그거는 이 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몸뚱이가 떨어지기 전에 모든 도리를 알아서 증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론으로만 알고 말로만 알고, 그저 설법을 강백으로서 여여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닙니다. 내 몸 떨어지기 전에 열심히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몸 떨어지고 입 떨어지고 말 떨어지면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열심히들 하십시오.

이 공부는 가난하다고 해서 못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못나서 못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모두가 육신 장애자보다도 정신 장애자가 많으니까, 그 정신 장애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살자는 뜻입니다. 부처님도 내내 지금까지 그렇게 설하고 계시고요. 한 말도 한 예가 없고 한 생각도 한 적이 없고 또는 한 가지도 자기가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날까지 하시는 겁니다. 끝간데 없이 말입니다. 어저께 오늘 내일이 없이, 중간도 없이 열심히 하세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잘 해나가신다니 감사합니다.

▲질문자6(남):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자7(남): 저는 공부가 부실해서 그런지 제가 말 듣기로는 '저승 가서 만나자.'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마는, 제 내자가 본원(本院)과 대구지원에 한 3년 살다가 지금 그만 납골당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저승에 가서라도 산 세상과 같이, 대구 부산 서울 이런 데 모양으로 꼭 만날 수가 있을는지, 말 한 마디도 없이 갔기 때문에 대행 스님께 한 말씀 여쭤보려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스님: 인생은 모두가 만났으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만났으면 고정되게 그냥 똑같이 또 살고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캠핑 나왔다가 한 철 나는 겁니다. 그렇듯이 구름이 한데 합쳐졌다가 또 그 구름이 증발돼서 비로 내리고, 화(化)해서 비로 내렸다가 또 증발돼서 구름이 되고, 또 비로 내리고 모든 일체 만중생들이 다 너 나 할 것 없이 용도에 따라서 다 먹어서 부분이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구름이 한데 모였다 흩어지면 또 딴 구름하고 또 모입니다. 딴 구름하고 모이니까 착을 두지 마십시오. 한철 같이 친구로서 이렇게 지냈을 뿐이지 거기다가 착을 두진 마십시오. 몸이 죽었다 하더라도 거사님 마음속에, 한마음 속에 다 있는 거고 일체제불의 마음도, 일체 조상의 마음도 일체 중생의 마음도 모두 내 한마음에 있다 생각하면 가깝게, 항시 끝간 데 없이 가깝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을 두고 멀리 둘로 보지 마십시오.

▲질문자7(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55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는 것도 깨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몽땅 생활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라 생각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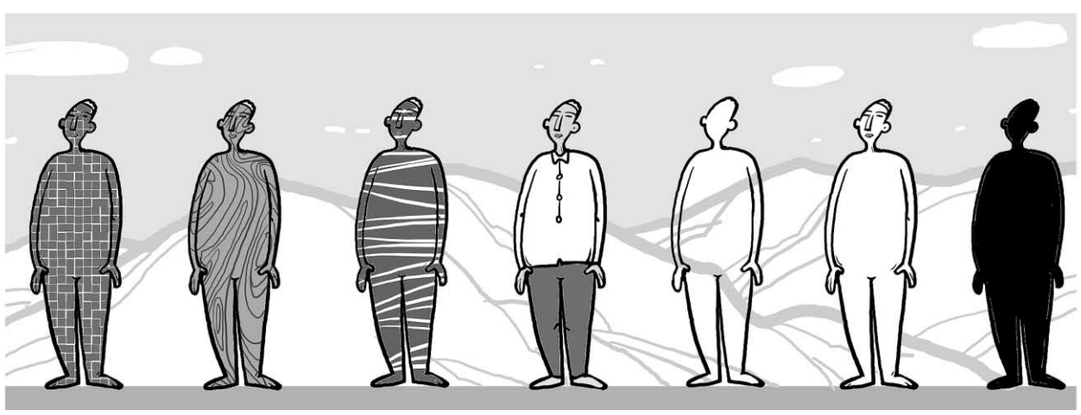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佛經漢文科

▶ 통신반 · 출석반 募集 ◀

1. 募集期間 ▷ 후기 : 7월 15일 ~ 8월 15일(기간엄수)
2. 教育科目 ▷ 무량의경 (漢文本)
▷ 묘법연화경 (漢文本)
▷ 관 · 보현보살 행법경 (漢文本)
▷ 교양한문(생활한자 5,000자)
▷ 간체자 (중국한자)
▷ 기타교양과목 (특강)
3. 教育期間 ▷ 3년(6학기)
▷ 통신반 · 출석반 동일
4.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 (통신반. 출석반 동일)
▷ 월1회 출석특강 (통신반)
▷ 출석반 주 1회 출석 (대구. 부산지역)

※ 본 연구소에서는 불경공부와 수행이 알음알이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5. 畢業惠澤 ▷ 畢業證書 수여
▷ 한자원리지도사 자격인증서 수여(심사후)
▷ 전문 연구과정 수강자격 부여
6. TEL 053)952-8711 / 017-501-8711

※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社)國際語文硏究所

所長 · 哲學博士 崔光永

우편 : 대구시 동구 동대구우체국 사서함 41호(우 701-600)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30년 한결 같은 도반, 월간 불광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 **월간「불광」**은 30년간 불자님 곁을 지켜온 가장 오래되고 자부심 높은 불교잡지입니다.

http://www.bulkwang.org

구독신청 문의 420-3200

여름철 건강 지키기

예년보다 심한 무더위가 예보되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높은 기온은 인체의 균형을 깨뜨리고 생리현상을 변화시켜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 또한 무더위를 피해 떠난 피서지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와 질병이 잇따르기 마련이다. 여름철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증상과 대처법을 살펴본다.



그림 · 한파랑

몸·마음 깨끗, 상쾌한 여름

◇ 자외선 노출사고

피부 노화 · 화상 피해 우려
선크림 냉수찜 등으로 보호

적당한 일광욕은 혈액순환 정상화와 비타민 D의 합성, 그리고 살균작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햇볕을 과다하게 받으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노화와 화상 등의 피해를 입기 쉽다. 특히 자외선 차단제 없이 강한 햇볕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피부가 화끈거리고 물집이 생기는 이상반응과 더불어 발열증상과 메스꺼움 등을 동반하기 쉽다.

전문가들은 햇볕이 강하지 않은 날에도 로션을 바르듯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바를 것을 강조한다. '자외선A'는 흐린 날에도 인체에 영향을 미쳐 피부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자외선 차단 크림의 효과는 3시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으므로, 그 이상 햇볕에 노출될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덧바르는 것이 좋다.

과다한 햇볕노출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얼음주머니나 찬 화장수 등으로 피부를 진정시킨 뒤 수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팩 등을 하면 도움이 된다. 하루 서너 번 각각 20분씩 냉수찜질을 하는 것도 증상완화에 도움이 된다.

◇ 눈병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 특징
예방 중요…환자 접촉 피해야

물놀이가 잦은 여름의 복병은 다름아닌 눈병. '유행성 각결막염'과 '아폴로 눈병' 등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눈병은 출입문, 버스 · 지하철 등의 손잡이, 수영장 등을 통해 전염된다. 이들 눈병의 증상은 대체적으로 눈의 흰자위 출혈과 통증, 눈물 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환자와 접촉한지 늦어도 2일 내에 증상이 발생하며 치료를 하더라도 3~4주가 지나야 상태가 회복된다.

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눈병에 걸린 환자와는 접촉을 피하고 수건이나 세면시설 등은 따로 쓰도록 한다. 발병부위의 뜨거운 찜질은 눈병을 악화시키기 쉽고, 항생제 역시 치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 냉방병

발 저리고 체한 듯 나른 피곤
실내외 온도차 5도 정도 유지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함에 따라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 발이 저리고 체한 것처럼 속이 좋지 않으며 몸이 나른하고 피곤한 것이 그 증상이다. 경우에 따라 두통, 신경통, 의욕상실 등이 뒤따르기도 한다.

습도 이상으로 인한 여름감기 증상은 냉방병의 대표적인 증세다. 에어컨은 습기 제거 효과가 커서 실내 습도를 30~40%로 떨어뜨린다. 이로 인해 호흡기 점막이 말라 감기에 걸리기 쉽다. 이때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5분 정도 환기를 시켜주도록 한다. 실내외의 온도차가 5도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실내습도를 70%정도로 유지한다.

◇ 설사병

음식 익혀 먹고 손발 청결
탈수 동반 염분 · 열량 보충

여름에는 크고 작은 식중독으로 인해 설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비위생적인 손, 상한 음식 등을 통해 감염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뒤나 용변 뒤에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은 되도록 이면 익혀먹는 것이 좋다.

설사를 하게 되면 탈수현상에 주의해야 한다. 가벼운 설사는 8~12시간 동안 음식을 삼가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한다.

끓인 물 1천cc에 설탕 2숟갈과 소금 2.5g을 섞은 전해질 용액을 섭취하거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경구용 포도당 전해질 용액을 사용하면 기본적인 염분과 열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강신재 기자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㉔

즐거운 생활 · 활동이 건강 비결

건강을 위해 매일 해야 할 일

가을에는 바타의 건조한 기운이 강하다. 따라서 몸 안팎에 기름을 발라 윤활유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지나치게 강한 피타와 바타 기운을 억제시키려면 자극성 없는 음식인 죽이나 녹두죽 등을 자주 먹어주면 좋다. 특히 피타가 악화되므로 이를 제거하려면 판차카마 중 '비레차나(virechana)', 즉, 하제를 사용해 위와 장 청소를 해 주면 효과적이다.

겨울에는 추위와 습기가 많다. 따뜻하게 옷을 입고 따뜻한 목욕으로 몸을 항상 따스하게 유지한다. 음식은 따뜻하고 자극성이 있는 게 좋다. 기(ghee)를 몸 안팎에 꾸준히 발라 주도록 한다. 이 계절에 우리의 몸은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력과 입맛이 강화된다. 그러므로 조직을 확장시키기 쉬운 계절이다. 몸을 회춘시키는 약초나 미네랄을 먹을 것을 권장한다. 한편 이 기간 동안에는 바타가 지나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판차카마 중 '바스티' 권장법이나 '나샤카르마라(nasya karmas)'라는 코 관장법이 유효하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중요
하루 일과 후 명상 통해 심신 안정

그런데 이러한 계절이나 도샤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좋은 건강 증진법이 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사항들을 매일 철저히 시행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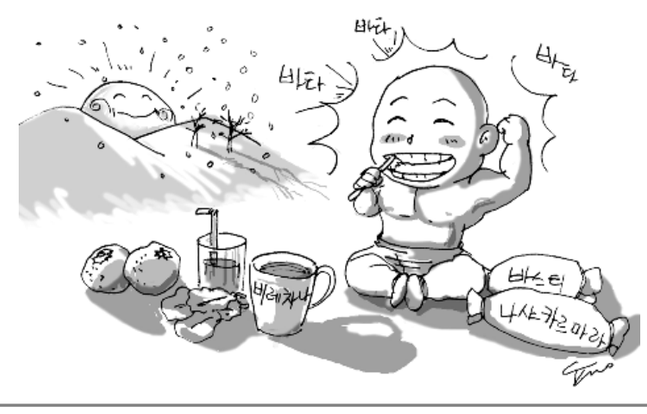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해뜰녘이 가장 좋다 △일어나자마자 대소변을 보라 ?혀와 이를 닦아라 △따뜻한 물 한컵을 마셔라 △오일 마사지를 하라 △따뜻한 물에 목욕하라 △요가 체조, 코로 교대로 숨쉬기, 명상을 하라 △도샤 체질에 따라 운동하라 △외출하기 전 코에 기나 참기름을 발라라 △하품이나 재채기, 소변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를 참지 마라 △아침 식사로 과일과 약초로 만든 차를 마셔라. 만약 배가 덜 차면 따뜻한 시리얼을 먹어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활동을 하라. 점심에는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음식을 섭취해라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지 마라 △서두르고 걱정하고 과식하는 것을 줄여라 △자기 자신을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대하라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 명상을 하라 △저녁에는 가벼운 음식을 먹어라 △산책을 하라 △일찍 잠자리에 들라.

이번엔 수면에 대해 알아보겠다.

자연 수면은 건강과 힘, 행복과 정력의 원동력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수면 시간은 대개 6~8시간으로 숙면은 평상시의 습관을 통해 차근차근 길러 나가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인데 현대인의 생활 패턴상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가급적 조금이라도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밤에 늦게 자는 것이야말로 가장 피해야 할 일이다.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는 반드시 명상을 하도록 한다. 명상은 우리 마음을 평화스럽고 이완되게 하며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준다. 10~20분 동안의 짧은 오수는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낮잠을 오래 자서는 안 된다.

■ 포천 중문의대



KBS, MBC, SBS, EBS 각종 언론이 인정한
인생역전 김재덕 역학교육원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집과정 : 수시 모집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역 학 : 초 · 중급 - 남륜스님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부처님 가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7월의 하늘이 너무도 맑아
가만히 바라봅니다
삶의 번뇌하나 가슴으로 남아
요즘 어려운 경제 관계로 힘드시죠?
다소 도움이 되어 보고자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합장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영험도량
퇴마승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가피를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법요집·기초교리 集 괘도 재발간
첨단교육 매체가 다양한 오늘날에도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보조재료로는 칠판과 괘도를 활용하는 입체적 교수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 여름불교학교 담임법사님들께서 교보재로 활용 하시면 좋은 결실을 거두실 것입니다.
군법당, 경찰서 교도소 등 대중교리 교육이 필요한 곳에 법보시를 하고자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 전화주시면 택배로 우송해 드립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정근
• 찬양합니다 • 발원 및 축원
• 반야심경 • 사홍서원
• 입정 • 산회가
• 청법가 • 기타찬불가
•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5. 사성제
10. 삼귀의 16. 사섭법
11. 삼법인 17. 십이인연
12. 삼업 18. 육바라밀
13. 삼학 19. 팔정도
14. 신도오계 20. 보왕삼매론
■ 기획 : 예맥불교문화원 ■ 제작 :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 02-772-9052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 031)882-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통도사 옥련암을 찾은 어린이들이 T셔츠를 선물받고 몸에 맞춰보고 있다.

통도사 옥련암 법선 스님

암자 방문 아이·어른들에 티셔츠 보시

'부처님은 내친구' 문구 새겨 선물
군법당 교도소 등에도 보낼 계획
방사·강당 갖춘 수련시설 개방

7월11일, 양산 통도사 옥련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옥련암을 찾은 부모들은 주지 법선 스님이 건네는 선물을 받아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도량에 아이들이 보인다 싶으면 달려가 법선 스님이 내미는 선물은 <부처님은 내 친구>라는 문구가 새겨진 귀여운 티셔츠. 스님은 올 여름 티셔츠 1천 5백장을 제작,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나눠주기로 작정했다. 스님은 암자를 찾는 아이들에게 티셔츠를 나눠주는 것은 물론 군법당, 교도소 등에서 필요로 할 경우 티셔츠를 보내줄 예정이다.

특히 스님은 남자 성인을 위한 티셔츠에 <끼륵 끼륵 우습구나 세상이>라는 문구를 직접 만들어 새겨서 세상에 대한 풍자로 삶의 여유를 선사한다.

어디선가 달려온 스님에게 티셔츠를 받아든 아이들과 부모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어느새 표정이 환해진다. 아이들은 스님에게 받아든 티셔츠를 몸에 갖다 맞추어보며 가슴을 쑥 내밀어 자랑을 잊지 않는다. <부처님은 내 친구>라는 문구와 함께 코끼리를 탄 부처님 그림이 눈길을 끈다.

스님의 이 같은 나눔행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산사 음악회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15년 전 이미 공옥진 여사 초청 문화 행사를 열어 불자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나누어주었는가 하면, 99년에는 옥련암 10년 불사 회향과 때를 맞춰 장기 기증 운동 캠페인을 벌여 생명 나눔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원력을 세운 스님은 현대식 방사와 강당을 갖춘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고 수련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7월 10일과 11일에는 장애인을 꺼리는 수련기관 때문에 공간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청각 장애아들에게 선뜻 수련시설을 내주고 청각장애아들에게 티셔츠 80여 벌을 보시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이 거듭 감사함을 표하자 스님은 장난스레 되받았다. "화장실을 지어놓았으면 누가 와서 똥을 누어야 하잖아요? 수련시설을 지어놓았으니 누구든 수련을 하러 오면 대환영입니다." (055)382-7090



인 터 뷰

"대중과 나누면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법선 스님

"오늘 대중공양을 맡은 보살님들이 김밥을 싸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김밥과 함께 간식으로 빵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그 빵을 보니까 그만 눈물이 핑 돌면서 내가 한번 돌아봐 지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 법선 스님(사진)은 "김밥만 줘도 의무는 다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수련하다 배고플까봐, 빵을 따로 준비해온 그 마음이 바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내가 가진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이런 마음들을 보면 좀 더 진일보된 생각으로 하나라도 더 나누고 함께 하기 위해 더 마음을 기울여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된다고 말했다. 이것이 10년 동안 계속된 불사 때문에 절 살림이 넉넉지 않음에도 티셔츠를 나누어주고 문화행사를 여는 이유라는 것이다.

또한 스님은 "누구에게든 활짝 열린 문화공간이 사찰이요, 또 사찰이 가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대중과 나눌 때 그 가치는 더욱 커진다"며 대웅전을 비롯 사찰의 모든 전각이 사부대중들을 위한 수행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산= 천미희 기자

천태종 몽골에 생필품 보내



천태종은 7월12일 구인사에서 몽골생필품 보내기 원만성취 법회를 개최했다.

의류 · 운동화 등 컨테이너 2대 물량

천태종 불자들의 정성이 몽골에 전해졌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7월 12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몽골국 생필품 보내기 원만성취 법회'를 열고 주한 몽골대사관을 통해 지원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천태종 불자들의 정성이 몽골불교를 싹틔우는 거름이 되어 불교와 천태종이 세계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지원된 물품은 의류 3만1747점과 운동화 169켤레 등 총 558박스 분량으로 2개의 컨테이너에 실려 몽골에 전달된다. 이 물품은 7월 26일께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도와주세요

충북 진천 정종식 불자
담관암 수술 후 치료비 막막

한 불자가 넉넉지 못한 형편으로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년 전부터 황달을 앓아오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최근에야 병원을 찾은 정종식(77 · 진천군 진천읍) 씨는 정밀조사 결과 간과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통로인 담관에서 암이 발견돼 7월 7일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비와 정기적으로 들어갈 항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40만원으로 해결해오던 월세마저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방을 빼달라는 통보까지 받게 됐다.

정 씨는 현재 부인 이길선(70) 씨의 간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씨 역시 허리를 다쳐 불편한 몸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인 이 씨는 병간호 때문에 자주 절을 찾고 있지는 못하지만 남편의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다. (043)533-1672 : 강상만씨댁, 계좌 농협 321-12-168802(예금주 정종식) 박봉영기자

▌소년소녀가장 · 결식아동 결연신청

한마음 선원 안양본원 거사합창단 단원들이 소년소녀가장 · 결식아동 결연을 신청했다.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 결식아동의 추천을 받고 있다. (02)722-4162.

▌나눔의 스티커 신청

서울 송파구 거여2동 손미진 보살-50장

▌나눔의 손잡기 성금

울산시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19만9780원

서울시 전통찻집 솔밭, 여영주, 김금순, 이순덕, 박화숙 보살, 김학표 거사
총 29만6660원

대구시 봉덕동 김태오거사
6만2580원

총 누적금액 17,665,350원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나눠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 · 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 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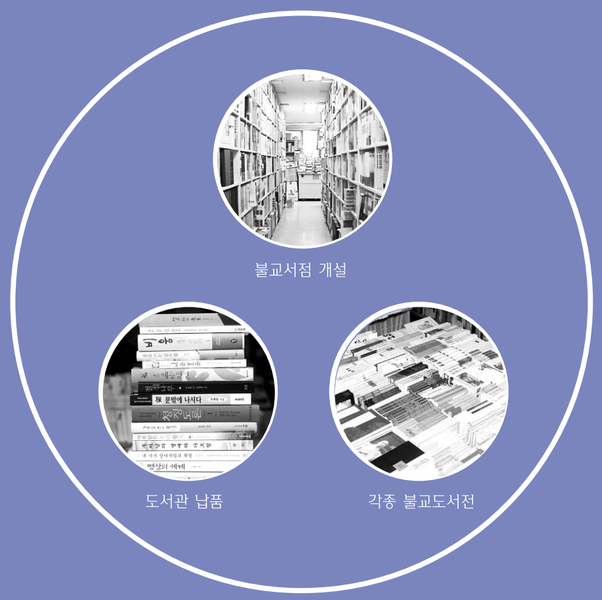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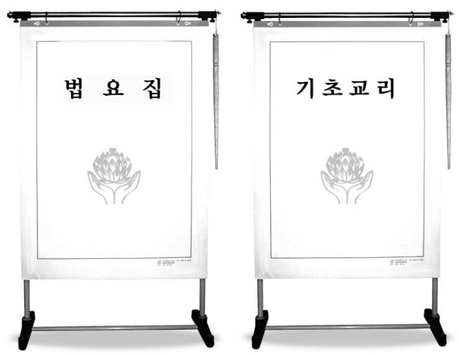
운주사는 불교서적 보급의 전문화를 통해 양질의 불서를 보다 많이, 보다 빠르게 독자의 손에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교서적총판 운주사가 함께 합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3층 | 전화 : 02)3672-7181~5 | www.buddhabook.co.kr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자료집

법요집
기초교리집 (양면)



■ 법요집편_앞

1. 삼귀의
2. 찬양합니다
3. 반야심경
4. 입 정
5. 청법가
6. 법 문
7. 정근
8. 발원 및 축원
9. 사홍서원
10. 신회가
11. 기타 찬불가

■ 기초교리편_뒤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 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 업
13. 삼 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정가 140,000원

■ 구입문의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 (02)3672-7181~5 / 팩스 : (02)3672-7186 / 농협 053-01-138564 임희근

2004 summer 휴가·방학

독서삼매에 풍덩,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483호 부록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www.buddhanews.com 불기 2548년(서기 2004년) 7월 21일 수요일(음력6월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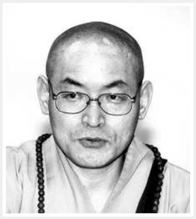
마음 속으로 여행을…

"올 여름 독서삼매에 풍덩 빠져보세요."
산사의 시원한 바람과 계곡의 물소리, 파도의 짠내음이 TV와 인터넷을 대신하는 여름 휴가철입니다.
이맘 때 쯤이면 아이들은 여름방학으로, 어른들은 여름휴가로 들뜬 기분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든, '방콕'을 하든 문명의 이기가 빠져나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색과 독서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배낭 안에 무슨 책을 챙겨 넣을까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불서를 안내하는 부록을 준비했습니다. 휴가를 맞아 지친 마음을 달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원하는 분들은 불서와 함께 '내 마음 속으로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비록 경제 여건은 어렵다 하더라도 마음만은 풍성한 '불법의 향기'로 채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면안내
2 불서 읽읍시다
3~6 큰스님 추천 불서
7 문예서
8 어린이 불서
9 청소년 불서
10 명상서
13~15 출판사 추천 불서

특별 취재팀 : 김재경 김주일 여수형
강신재 박익순 기자
사진 : 고영배 박재완 기자

가장 빠른 불교 뉴스
buddhanews.com



안성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 '종이 거울 자주보기' 펼쳐

"종이거울로 마음을 비춰보세요"

불교의 포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말로써 법을 설하는 설법이고, 둘째는 글로써 법을 전하는 전법이다. 그래서 옛부터 절마다 수시로 재(齋)를 열어 법을 설했고, 또 출판사를 두고 필요할 때마다 목판을 찍어 책을 엮어 내었다.

포교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모두 중요하다. 젊의 역할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실천적 방법인 포교라고 한다면 말과 글을 빌리지 않고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사회적인 욕구로 인해 젊이 해야 할 일도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근간은 이 두 가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불광사의 광덕 스님께서도 새 불교운동을 시작하면서 월간 <불광>이라는 매체를 적극 이용해 그 터전을 닦았다. 불광사의 여러 가지 새불교운동 중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불서 읽기' 운동이었다.

현대 지식산업사회에서 글(文書)이 갖는 힘은 그 위력이 엄청나다. 인류 발전의 근본 동력은 바로 이 말과 글에 있었다. 특히 문서의 공로와 업적에 의해서 모든 문화는 창조되었고 문명은 끊임없이 발달했다.

최근 컴퓨터의 발달로 책이 좀 멀어진 듯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그 뿌리는 글이고 책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실은 좀처럼 변치 않을 것으로 본다. 마치 기초과학의 토대 없이 새로운 과학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듯이 글을 통해 인간의 사유를 넓히지 않고는 새로운 문명의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불교가 자체의 문헌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는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때문에 광덕 스님께서는 전국의 각 절마다 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염원했다.(<광덕스님 시봉일기> 3권)

문서 통한 전법의 장 마련이 중요
어려울수록 책 속에서 지혜 찾아야

절마다 도서관을 설립한다고 함은 '불서 읽기'의 실천적인 토대가 되고 글을 통한 전법의 장을 마련하는 중요한 불사가 되며,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 문화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광덕 스님이 개산하신 우리 도피안사에서는 뜻있는 분들이 벌이는 범국민독서운동인 '종이거울 자주보기' 본부를 자원했다.

돌아보건대 역사 속에 모든 성현들은 책을 귀중히 여겼고, 애국지사 도산 안창호 선생은 '책을 읽는 민족은 흥한다' 고까지 말했으며, 불교계의 용성 큰스님을 비롯한 선각자들께서는 책으로 제2의 독립운동을 삼았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화의 선진국은 경제가 어려울 수록 국민들이 오히려 더 책을 많이 본다고 한다. 그것은 책에서 삶의 힘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기 때문이라고 한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경제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 제일 먼저 책을 보지 않고 사지 않는다니 대관절 이 일을 어찌 해야 할지?

우리 불자들은 구국구세의 보살심으로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하리라. '우리거울은 내 몸을 비춰주고 종이거울은 내 마음을 비춰준다' 고 했으니 종이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바로 불자수행이기에.

'종이 거울 자주보기' 동참
전화 : (031)676-8700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윤창화 씨 '불서 읽기' 나서

"불서읽기 통한 지식 업그레이드"

불자들을 향하여 '책 좀 읽으라' 고 소리친 지도 20년이 넘는다. 이제는 목이 쉬고 아파서, 기실은 가슴팍이 부서져 소리칠 힘마저 통째로 날아가 버렸다.

딱딱한 이야기 같지만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스님, 또는 불교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몇몇 분들을 제외한다면, 그리고 사찰에서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법보시 책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불자들의 연간 독서량은 고작해야 0.3 권 정도에 불과하다.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왜 책(불서)을 읽지 않을까? 첫째는 경전이나 책을 경시하는 한국 선불교의 전통적인 악습에 기인한다. 스님들 자신이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불자들 역시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특히 '내로라' 하는 선승들의 경우 더욱더 심하여 일반 불자들에게까지도 '책을 읽으면 알음알이가 생겨서 깨달을 수 없다' 는 무책임한 법문을 할 정도이다. 이런 풍토 때문에 우리나라 불자들은 전통적으로 책을 읽지 않게 되었고, 책을 경시하게 되었으며, 독서가 습관화되지 못하게 되었고,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불교는 '무식한 불교' 로 추락해 버렸다.

오늘날 우리 불자들을 본다면 열심히 불교를 믿는다고 해야 정초나 부처님오신날 또는 초하루 날이나 관음재일, 지장재일, 백중날 정도 절에 나가서 잠시 복을 달라고 졸라대고 올뿐이다. 경전이나 책을 읽는 경우는 몇몇 사찰을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가뭄에 콩나듯 한다.

불자라면 최소한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 등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교리는 알아야 하는데도 모르는 불자가 태반이다.

이래가지고는 불교신도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님 제자(불자)라고 할 수도 없다. 불교인들의 사고방식이 이래서야 어떻게 불교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야말로 '불자 지식화 운동'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런 문제는 당연히 그 일차적인 책임이 스님들에게 있지만, 당사자 역시 맹신의 비판에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입문서 5권 정도만 읽어도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 정도는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책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무지할 수밖에 없다.

반면 교회 신자들을 본다면 예수님의 생애나 교리, 성경 등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매일같이 열심히 다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교처럼 막연하게 법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이나 책을 가지고 읽고 외우고 배우기 때문이다.

기초 지식없이 법문 의존 습관 '문제'
필독서 선정 · 풍토 조성 등 당면 과제

불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 불교에 대하여 – 벙어리가 되는 이유도 책을 통한 체계적인 신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당사자 역시 기본적인 입문서를 읽지 않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민족사는 불자들의 지적(知的) 향상을 위하여 9월부터 실질적인 '불서읽기 운동' 을 전개할 계획이다. 연례 행사처럼 구호나 캠페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심자를 위한 불서읽기 모임' 을 만들어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부처님 생애를 비롯한 불교교리, 입문서, 개설서 등 기초적인 책을 읽을 작정이다.

이 운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불자들이 동참한다면 불교인들의 지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한국불교의 체질이 튼튼하게 개선될 것이며, 또한 바람직한 독서 풍토가 조성되어 저자는 보다 좋은 책을 쓰고 출판사는 보다 좋은 책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불서읽기 운동' 과 '불자 지식화 운동' 은 직접적으로는 출판사의 당면 문제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불교를 걱정하는 사람' 이 아니다. 넓은 시각에서 우리 불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불서를 읽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 한 한국불교의 미래도 매우 어둡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자로서 필독해야 할 기본 도서 50권' 을 하루 속히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야만 불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불서를 구입해서 읽을 수가 있을 것이다.

'불서 읽기' 동참
전화 : (02)732-2403

문서포교
'남의 일' 아니다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불교 출판계가 장기적인 불황을 타개하고 '문서 포교' 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7월 2일 열린 '불교 출판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 에는 관련 종사자 50여 명이 모여 다양한 출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불교 출판인들은 사찰 도서관 건립과 사찰의 도서구입예산 편성, 범종단 차원의 독서캠페인 실시 등을 대안으로 들었다. 사찰도서관을 통해 불자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인근 주민을 위한 지역도서관으로 개방함으로써 포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단이나 사찰에서 연간 도서구입예산을 편성해 '불자 필독서' 를 구비하고, 스님들은 법회 때 마다 양서를 선정해 책 읽기를 권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사찰마다 도서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교출판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은 바로 '독서운동 전개' 다. 불자 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서읽기 운동은 출판계 활성화와 '지식불교' 형성을 겨냥한다.

민족사 윤창화 대표가 주축이 돼 9월부터 전개하게 될 독서운동인 '초심자를 위한 불서읽기 모임' 은 지난해 8월 안성 도피안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종이거울 자주보기운동' 과 함께 불교계 내에 책 읽기 바람을 일으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불교 출판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더해 본격적인 불교계 책 읽기 운동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각 종단의 본사급 사찰이나 대형 사찰에 도서관을 마련하고 종단 차원의 독서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책읽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것이 출판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사소한 '문제' 풀어야 행복



지은 인연을 알면 괴로울 일이 없다
(법륜 스님 지음, 9천원)

사람들은 빡빡한 일상에서 조금은 여유롭게 자연을 찾아 떠나거나 집에서 편안히 몸과 마음을 쉬고 싶어 한다.

<지은 인연을 알면 괴로울 일이 없다>는 2002년 라몬 막사이사이 상을 수상한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회에서 가족, 연인등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종교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인들이 묻고 법륜 스님이 답하였던 내용을 풀어 만든 책이다.

'냉랭한 부부사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시동생이 부아를 돋웁니다.' '잔소리 참기가 힘듭니다.' 등, 질문들은 아주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에 대한 법륜 스님의 답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야말로 누구나 공감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책은 어렵게 짬을 낸 휴가철에 몸을 푹 쉬어주고, 마음까지 푹 쉬어 줄 수 있어서 생활을 생생하고 의욕적으로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정토출판 대표 법륜

읽지 않아도 느껴보면 되는 책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틱낫한 지음, 서보경 옮김, 8천5백원)

몸에는 휴식, 마음에는 양식을 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손을 놓고 휴식을 취하며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으로 틱낫한 스님의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를 권하고 싶다.

이 책에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작은 지혜가 가득하다. 가만히 의식적인 호흡을 한다거나 미소를 지어본다거나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는 것이다. 이 책은 읽는 책이 아니라 느껴보는 책이라고 하고 싶다. 들어오는 호흡, 내쉬는 호흡을 느껴보거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연습,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으로 얻는 평화 등 자신이 책을 보고 따라 느끼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알았다고 내 것일 수 없듯이 이 책의 내용 한 줄만이라도 내 것으로 소화하고 느껴 본다면 당신은 어느새 저 깨달음의 언덕에 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언제 어디서나 숨쉬기를 하며 호흡을 알아차리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음식을 먹으며, 설거지를 하며, 걸으며, 운전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여러 명상법을 통해 누구든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혜의나무 대표 이의성

부처님이 수행했던 그대로…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옮김, 5천원)

부처님께서는 어떤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부처님의 성도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긴 삿짜까경>의 주석서는 부처님께서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出入息念)을 통해서 증득한 초선이 깨달음을 얻는 길이라고 판단하셨다' 고 언급하고 있다. 그 만큼 이 공부는 불교 수행에서 각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60쪽의 문고판으로 제작된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는 이 공부법에 관한 초기경들 세 가지와 특히 이 주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청정도론> 제8장의 해당 부분을 모두 번역하여 옮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책 한권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수행하셨고 많은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가르치신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를 정확하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이번 여름에 산사를 찾거나 피서지를 찾는 사람들은 이 자그마한 책자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차근차근 읽어볼 것을 권한다. 아울러 아침저녁 10분씩만 시간을 내어 본서에서 설명하는 방법대로 참선을 해볼 것을 적극 권장한다.

초기불전연구원 원장 대림

선사들의 우렁찬 법문과 게송



숨길 수 없는 말
(함현 스님 엮음, 1만3천원)

현재 봉암사에서 가행정진하고 있는 함현 스님이 엮은 <숨길 수 없는 말>은 수행자들과 참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책이다. 중국 선종에 뿌리를 둔 오가칠종(五家七宗)의 선지식 60명의 법문과 게송 117편을 우리말로 풀이했다. <전등록>, <조당집>, <오등회원> 등에서 가려 뽑은 법문을 오가칠종으로 분류한 뒤 시대 순에 따라 나누어 원문을 함께 실었다.

인도 벵갈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위를 잇지 않고 출가한 아티샤(982~1054)스님을 비롯해 마조도일, 백장회해, 임제의현, 대혜종고, 나옹혜근, 경허성우 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이 종이위의 활자로 되살아났다.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함께 실어 대조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 놓아 참선공부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함현 스님은 "깨달은 이들이 우리를 향해, 순간순간 불타고 있는 현재라는 아름다운 삶을 함께 누리기를 열망한다"면서 "꽁꽁 얼어붙은 삶을 포근히 안아 주는 열망은 가지가지 방편을 피워내고, 이것이 바로 밝고 따뜻한 깨달음의 말씀"이라고 선지식들의 '말'을 수행정진의 지침으로 삼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초롱 대표 양동진

현대인을 위한 불교 길잡이



현대인의 불교
(정병조 지음, 9천원)

정병조 교수의 <현대인의 불교>는 어리석음에 대한 진실, 살아가며 배우는 진리, 지혜의 빛으로 나누는 삶 등 총 3부로 구성된 불교 수필집이다. 다소 어렵고 관념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불교적 진리를 편안하고 쉬운 필치로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지은이는 우리의 일상사 하나하나가 불교적 진리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가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일깨워 주고 있다. 불교에 관심은 있으나 직접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길잡이 역할도 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기영 박사의 <내 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는 지은이의 구도자적 삶과 불교적 사색의 편린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편집한 유고집이다. 이기영 박사는 생전에 한국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학자로 널리 알려졌던 불교학자로, 특히 원효 연구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 결과 우리의 원효는 세계적 사상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모아 놓은 글들은 수필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결코 가볍게만 읽을 수 없는 묵직한 울림을 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무더운 여름에 책읽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 모두 더욱 행복해지시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정병조

복잡한 인생살이 극복의 길



보왕삼매론 강의
(김현준 엮음, 5천원)

<보왕삼매론>은 매우 짧은 글이지만 마음공부와 마장극복, 일의 성취, 참사랑의 원리, 인연 다스리기, 공덕 쌓는 법 등 누구나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간결하게 설하여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책이다.

이 책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각종 역경과 순경의 파도들을 잠재우는 방법과 지혜롭게 살아가는 처세법 등이 오롯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인생의 장애가 되는 일들을 원리에 입각하여 되돌아봄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절한 일화들을 많이 삽입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엮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교만에 빠져 불행의 씨앗을 심고 있고, 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몰라 괴로움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왕삼매론 강의>는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장애를 향상의 기회로, 고난을 해탈의 원동력으로 바꾸어 주는 흘륭한 신행서이자 지침서가 될 것이다.

효림 대표 김현준

가장 오래된 부처님 말씀



숫타니파타
(전재성 옮김, 3만원)

<숫타니파타>는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아직 승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거친 사바세계를 항해하는 고독한 은둔자, 치열한 구도자로서의 경험과 인간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이 책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를 충격적인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또한 <숫타니파타>는 이미 불교라는 종교적 테두리를 떠나 종교와 상관없는 세계의 고전으로 인간의 위대한 영혼의 양식이 되었고,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찬연하게 비추고 있다.

퇴현 전재성 박사가 <숫타니파타>의 빠알리어 원문을 대조하고, 지금까지 나온 세계의 모든 번역서를 참조하고, 2500여개의 많은 주석을 달아 새롭게 펴냈다. 많은 주석에도 불구하고 <숫타니파타>의 높은 문학성 덕분에 휴가철에서도 한번 읽기에 적합한 책으로, 이 책을 통해 비로소 부처님의 가장 오래된 말씀의 참다운 면모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 도법

참선 속에 웰빙이 다 들었네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방경일 글/ 김장열 그림, 1만원)

요즘 우리 사회에 '웰빙(Well Being)' 바람이 불고 있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간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에 비례해서 커지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다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풍조에 반대해 생겨난 웰빙의 핵심은 '욕망을 줄이고 만족을 늘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욕망 제로'와 '무한 만족'을 느끼는 불교의 선사(禪師)들이야말로 최고의 웰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마음시리즈 제2권으로 나온 이 책은 만화와 상식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만화부분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선사들 60명이 즐가하여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이어지는 상식부분에서는 그들의 깨달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선문답(禪問答) 즉, 화두(話頭)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화두에 대해 해석을 하면서 화두를 필요 이상으로 신성시한 결과 생긴 선(禪)과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메워보려고 노력한다.

솔바람 대표 동출

시인과 선승 설악에서 만나다



열흘간의 만남

(신경림 외 지음, 9천6백원)

한여름의 찌는 듯한 더위와 꽉 찬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느긋한 휴식과 일탈에 대한 유혹이 남달라지는 이맘때, 이 책 한 권을 권한다.

시인과 스님의 열흘 간의 특별한 만남!

우리 시대 최고 시인인 신경림 시인과 설악산 선승 오현 스님이 만나 인생과 자연, 사랑과 세상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눈다. 시와 선, 승과 속을 넘나들며 진행되는 두 분의 이야기는 맑고 시원한 설악산 계곡의 흐르는 물처럼, 혼탁한 세상을 씻어내는 청량제와도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셔 준다. 게다가 시인의 짝사랑과 스님 행자시절의 웃지못할 에피소드들, 그리고 문학 보다 더 문학 같은 삶을 살아오신 두 분의 인생역정을 엿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스님과 시인은 수행과 문학의 고수(高手)지만 책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자' '남의 눈을 의식하는 발언을 피하자'는 약속 덕분에 일반인들이 읽기에도 부담이 없다. 급한 마음 불들어매고 천천히 두 분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서 반짝이는 지혜를 만나게 된다.

조계종출판사 대표 도영

행복은 먼곳에 있지 않아요



행복하게 사는 법 행복하게 죽는 법

(정재 스님 지음, 8천원)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려면 먼저 지혜로움을 기르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 행복하게 죽는 법>은 1964년 출가 이후 제방선원에서 화두를 참구하고 정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재 스님의 '지혜'가 녹아있는 책이다. 스님이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내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것이다.

행복하게 되기 위한 행동변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스님은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는 '버리기'이며, 두 번째 단계는 '더하기'다. "행복하려면 먼저 버려야 합니다. 일상에 젖어있는 잘못된 작은 습관부터 버려야죠. 그러면 '몸의 살'만이 아니라 '마음의 짐'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습관과 욕망을 '다이어트'하는 길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버리기'의 핵심이다. 두 번째 단계인 '더하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남을 배려하고 감싸 안으며 더불어 사는 것을 더하기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나에 대한 버리기와 남에 대한 더하기가 함께 할 때 완성된다.

여래 대표 정찬진

삶은 고가 아니다

(혜원 스님 엮음, 9천원)

'진실'에서 퍼져 나오는 지혜

"한번 입을 열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이 우주 법계에 속속들이 메아리치는 말 한마디, 그런 말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들어야 한다."

<삶은 고가 아니다>는 경전에 갇힌 불교가 아닌 살아 숨쉬는 생활불교를 주창하며 중생교화에 진력하고 있는 대행 스님(한마음선원 장)의 법어집이다. 책에서 스님은 불교가 어렵고 특별한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이치, 생활의 이치를 통해 자연스레 드러나는 진리'임을 보여준다. 이 책은 불법의 세계에 처음 들어온 입문자는 물론 삶의 고난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법을 중심으로 여러 비유를 들어 자상하게 풀어 쓴 법문이다. 따라서 어렵다거나 딱딱하다는 느낌보다는 손에 잡힐 듯이 가깝고 쉽다는 느낌을 준다.

스님의 법어는 사람들이 막연히 불교는 어렵고 현상적 삶의 가치들을 하찮게 여긴다고 오해하고 있는 관념을 없애준다. 불교는 결코 어렵지 않은 종교로 조금만 눈을 돌려 배워볼 생각을 한다면 불교처럼 쉽고 분명하여 배우는 가르침이 따로 없음을 느끼게 해준다.

이 책을 통해 진실로부터 절로 터져 나오는 스님의 법어로 재가불자나 일반 생활인들에게까지 참지혜의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여시아문

노교수의 고지식·순수한 삶



고지식과 외골수의 대화

(정희돈 지음, 1만원)

법륜불자교수회장을 역임하고 불교사회복지회 경산자활후견기관장 소임을 맡고 있는 대구 영남대학교 정희돈 교수가 수상집을 펴냈다.

<고지식과 외골수의 대화>란 제목의 이 수상집은 노교수의 인생관과 철학, 세계관과 불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자기 앞 뒤도 잴 줄 모르는 고지식한 사람과 오직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외곬이 서로 대화한들 무슨 결론이 날 것인가"라며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고, 또 그 생각이 순수하다"고 적고 있다.

이 책은 평생을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와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하며 느낀 감상, 가족과의 따뜻한 감정들, 세상사 이야기 등이 담겨 있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책 구성은 전체를 '고지식의 미덕', '약초와 잡초', '날마다 좋은 날', '찬물에 얼굴을 씻고'의 4부로 나눴다.

책장마다 황보순희, 최성환, 남학호 화가의 삽화가 컬러로 실려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우리출판사 대표 무구

고려인의 염원과 신앙 보기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품다

(김영재 지음, 2만원)

불화는 예술작품이기 이전에 종교적 필요에 의해 그려진 종교적 도상이다. 때문에 예술품에 대한 기본적 안목 이외에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미술과 불교라는 균형잡힌 잣대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 책은 고려불화를 비롯하여 독자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림들을 충분히 담아내면서도 한편으로 탄탄한 불교이론을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예술품으로서의 고려불화, 종교 도상으로서의 고려불화가 함께 보인다.

고려불화는 아름답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찬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아름다움에 새겨진 상징과 은유, 그 속에 감추어진 사상과 역사, 그 속에 스며 있는 우리 전통문화와 외래문화, 화공들의 솜씨와 제작기법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려불화에 담긴 고려인의 염원과 신앙,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려불화에 대한 종횡무진의 해체와 종합의 과정을 거쳐 고려불화라는 문화적 코드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를 가능케 한다.

운주사 대표 김시열

삶에서 느끼고 실천하는 경전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

(틱낫한 지음, 양미성 외 옮김, 8천5백원)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은 선종 전통을 잇는 한국불교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 <금강경>을 틱낫한 스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풀어낸 책이다.

틱낫한 스님은 한평생 수행과 평화를 위한 기도로 살아온 베트남의 선승이다. 그는 기존 한문본들의 다소 딱딱하고 경직된 해설에서 벗어나, <금강경>의 구절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내고 있다. 인간은 물론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사물을 바라보는 스님의 시선은 따스하고 넉넉하며, 동시에 2천5백년 전의 부처님 말씀이 현재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지녔다. <금강경>은 이제 '경전'이라는 틀에 갇힌 가르침이 아닌, '나의 삶 속'에서 느끼고 실천해 갈 가르침이 된다.

"금강경을 받들어 지니고 실천해 나가는 방법 중의 한가지가 바로 경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경을 읽는 것은 우리 마음의 땅 깊숙한 곳에 묻혀있는 깨달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천천히, 한 편의 시를 감상하듯 이 책을 읽어 나가라고 권하고 싶다. 어느새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붓다의 울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장경각 대표 원택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1
현각 스님 지음/ 열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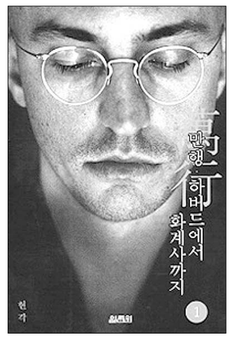
"미국의 엘리트 청년이 한국 와서 출가한 뜻은?"

보성 스님(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미국인 현각 스님이 쓴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책이 일반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미국의 명문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원을 나온 엘리트 청년이 우연히 숭산 스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 부모도 사랑하는 여인도 다버리고 스님으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이웃 종교인과 일반인들이 불교와 선(禪)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각 스님처럼 가진 것을 모두 내던지고 출가해 참선을 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을 배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숭산 스님 질문에 삶의 방향 바꾼 현각 스님의 수행기



'당신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폭설이 펴붓던 1989년 12월 어느 날, 미국 하버드대의 한 대형 강의실에 울려퍼진 이 한마디. 키가 작고 퉁퉁한 한국인 스님의 서툰 영어 목소리였다. 이도발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질문에 숨이 막혀버린 미국 젊은이가 있었다. '당신은 누구인가'라니. 충격, 당혹감, 환희…. 즉비로 등줄기를 후려치는 듯한 전율이나 다름없었다.

그 한국인 스님은 숭산 스님(서울 화계사 조실)이었고, 젊은이는 진리를 갈구하던 가톨릭 신자이자 하버드대 대학원생이었던 스물다섯의 폴 뮌첸이었다. 그날 밤 젊은이의 머릿속은 온통 숭산, 숭산 스님뿐이었다.

한국에서 온 숭산 선사는 대체 누구이고 한국의 선불교는 과연 무엇인가. 한 젊은이의 운명은 그렇게 바뀌어갔다. 바로 현각 스님(화계사 국제선원장)이다.

TV다큐멘터리 '만행'의 주인공으로, 잔잔한 감동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벽안(碧眼)의 스님. 이 책은 현각 스님의 구도기(求道記)이다. 어린 시절부터 숭산 큰스님을 만나 스님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한국과 불교에 관한 느낌 등. 동양인도 아닌 미국인이 출가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그것은 낯선 용기였다.

숭산 스님의 강연에 충격을 받은 1년 뒤. 그는 가슴 설렘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국을 찾았다. 90일간의 동안거(冬安居)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내뱉은 말, '아, 스님이 되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번뇌의 연속.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손짓할수록 선 수행에 매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안개가 걷히고 의심과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길이 명확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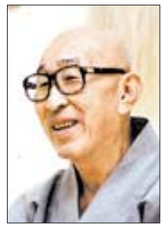
'그래, 출가하는 거야.' 그때가 92년 가을. 그리고 다시 찾은 한국땅….

책의 전체적 분위기는 차분하고 담담하다. 하지만 행간엔 번뇌를 물리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흔적이 숨어 있다. 번뇌를 다스리고 구도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한 감동과 깊은 여운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삶을 비우면서 삶을 채워온 젊은 스님 현각. 그는 서구사상에 물든 우리 시개 젊은이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선가귀감
박재양, 배규범 옮김/예문서원

"선의 진수 알고 싶을때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수산 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선가귀감(禪家龜鑑)>은 청허당(淸虛堂) 서산 대사가 지은 책으로 말 그대로 선가에서 거울로 삼을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참선 공부인의 필독서라 할 수 있는 <선가귀감>은 선의 진수와 불교를 배우고 수행하는 사람에게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결제철에 스님들은 선방에서 정진하고 있는 만큼, 재가 불자들은 <선가귀감>을 읽고 생활 속에서 참선할 수 있는 기연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불법과 우주의 이치, 수행자의 자세를 옛 경전과 어록을 들어 설파하고 있는 <선가귀감>은 시대를 뛰어넘어 불자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선과 교 둘 아님 밝힌 수행의 '거울' 서산 대사 50여 경론·어록서 발췌



유가귀감, 도가귀감과 더불어 3가귀감 중의 하나로 불리는 <선가귀감>은 한국불교 선종의 지침서다. 당시 스님들이 세간의 서적에 빠져 본분을 잃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과 방대한 대장경을 요약해 그 요체를 밝혔으며, 입문자들을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하는 책이다.

이 책은 선(禪)과 교(敎)가 둘이 아님을 밝히는 동시에 간화선(看話禪)을 지침으로 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선가에서만 요긴한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수행 길라잡이이기도 하다.

최근 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선종의 아류가 아닌 우리 만의 독특한 가풍을 맛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선가귀감>은 적합한 책이다. 중국에 <육조단경>이 있다면 한국에는 <선귀귀감>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세속적 현실에 매몰되거나 수행이라는 관념적 울타리에 갇힌 사람들은 서산 대사의 이 말씀을 들어보라. "현실만 따르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 같고, 마음만을 붙잡으려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유가귀감, 도가귀감과 더불어 3가귀감 중의 하나로 불리는 <선가귀감>은 한국불교 선종의 지침서다. 당시 스님들이 세간의 서적에 빠져 본분을 잃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과 방대한 대장경을 요약해 그 요체를 밝혔으며, 입문자들을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하는 책이다.

이 책은 선(禪)과 교(敎)가 둘이 아님을 밝히는 동시에 간화선(看話禪)을 지침으로 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선가에서만 요긴한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수행 길라잡이이기도 하다.

최근 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선종의 아류가 아닌 우리 만의 독특한 가풍을 맛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선가귀감>은 적합한 책이다. 중국에 <육조단경>이 있다면 한국에는 <선귀귀감>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세속적 현실에 매몰되거나 수행이라는 관념적 울타리에 갇힌 사람들은 서산 대사의 이 말씀을 들어보라. "현실만 따르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 같고, 마음만을 붙잡으려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보현행원품

무비 스님 옮김/우리출판사

보현 보살의 10대 행원 삶의 질 향상시키는 힘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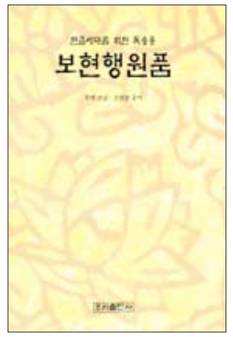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아름다운 경문으로 전하는 <보현행원품>은 중생의 생명을 발전시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발전이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생의 삶이란 중생이라는 말에서부터 나타나듯이, 공동의 삶으로 서로의 공영이 보장되도록 살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생의 삶을 살아 모든 중생 전체가 조화롭게 평화로움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이와함께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과 대승십계를 설한 <범망경>을 같이 읽을 것을 권합니다.

선재동자의 구법여행 통해 수행의 구체적 방법·목표 제시



<보현행원품>은 궤빈국 삼장법사 반야가 왕명을 받고 번역한 경전이다. 본래 명칭은 <대방광불 화엄경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으로 <보현행원품>은 반야삼장 역의 40화엄에 들어 있다.

주인공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에 의해 보리심을 발하여 53선지식을 찾아가 법을 묻는데, 그 질문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느냐'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보살행을 묻기 위해 선재는 53선지식을 찾아간다.

보살행은 불교의 수행을 대승적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 보살행을 간단히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선재 동자는 마지막으로 만난 보현보살로부터 보살행 완성의 법문을 듣는다. 보현보살은 10가지 행원을 설하여 그것으로 인해 부처님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고 선재 동자에게 말한다.

이른바 보현의 10종 광대 행원은 불교의 수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는가를 가장 쉽고도 심도있게 설해 놓은 법문이다.

과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현보살의 행원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 방대한 <화엄경>에서 따로 분리시켰다. 그것의 한 품을 별도로 간행·유포하여 불자들로 하여금 수지독송케 했다. 이는 대승불교의 근본정신인 보살정신의 극치를 보현행원을 통해 보여주고, 이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이 보현행원품은 불교의 신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구체적이고도 쉽게 밝히면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교리적 이론보다 실천적이고 극진한 신행의 마음이 어떻게 우러나는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화엄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내려온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화엄종지의 선양차원에서 이 보현행원의 실천을 특별히 중요시했다.

선종에서는 이 참회문을 외우며, 매일 저녁 108배의 참회절을 하는 것을 일과로 삼기도 했다. 보현행원의 참뜻은 자비와 대비의 마음으로 남을 대하고, 이 마음에 입각해 적극적으로 행(行)을 실천할 때, 성숙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보현행원에 나타난 주된 정신이다.

또한 '관세음보살보문품'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원하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행을 설하고 있으며, <범망경>도 생명계의 무상규범 48가지가 보석처럼 제시돼 있다.

禪의 황금시대

오경웅 지음, 류시화 옮김/경서원

당 선종5가 선사들의 체험과 가르침 생생해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 책은 <The Golden Age of Zen>(1967)의 완역본으로 보리달마의 출현 이후 주로 당나라 시대에 살았던 선종 5가의 위대한 선사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온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가르쳤던 삶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 저자의 학문적 양심과 노장사상, 그리고 신학을 포괄한 선의 진수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역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삶의 도처에 항상하는 진리와 하나됨으로써 작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얻어 저마다 자신이 스스로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구지성 선불교 눈뜨게 한 책 50여 선승들 공안과 수행 소개



선(禪)에 관한 얘기들이 수없이 오가고 이런저런 책들이 꾸준히 나오고는 있지만 일반 독자는 그 대부분을 읽어보아도 이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독자 자신이 선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는 얼떨떨 하기만 할 뿐이다. <선의 황금시대>에 나오는 비논리적인 유우머의 홍수, 여러 가지 터무니 없는 행동들, 모순, 헛갈림, 횡설수설 등등. 이 모든 것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중국의 선은 남북조시대 남조 양나라 무제 때 달마대사로부터 혜가, 승찬 등을 거쳐 육조혜능에 이른다. 혜능은 이책의 저자 오경웅이 공자, 노자등과 함께 중국 최고의 천재로 꼽는 인물이다. 혜능은 선의 핵심인 사상을 만들었다. 흔히 달마의 사구게로 알려진 '교외별전,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게송은 실상 혜능의 사상을 집약한 것이다. 혜능의 뒤를 이어 마조, 석두, 종념 등이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당 무종의 혹독한 불교탄압을 선종만이 극복할 수 있도록 터를 잡은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백장이다.

그는 승려 지원자에게 주는 5가지 계와 승려(비구)가 지켜야할 5가지 계를 주었다. '때가 아닌 간식을 먹지 말 것', '몸에 향을 바르지 말 것'등인 백장청규이다. 혁명적 사상가인 그는 승려의 남세를 주장했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一日不食)'를 좌우명으로 삼았다.

노동을 강조한 결과 시주에만 의존하던 불교의 다른 종파가 무종의 탄압으로 거의 붕괴되었음에도 선불교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이외에도 당대 선불교의 꽃을 활짝 피워 선학의 황금시대를 맞게 한 선종오가의 운문, 동산, 위산, 임제, 법안을 비롯한 선승 50여 명의 공안을 비롯, 몽둥이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도를 깨치는 수행법 그리고 당대 선맥계보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만 최고의 지성으로 추앙받는 오경웅이 67년에 영문으로 쓴 것을 번역한 것으로 서구 지성들이 읽고 선불교에 눈을 떴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80년대말 젊은 시인들이 선적 상상력으로 현대문명을 비판하는 시를 쓰는 경향이 일어났을 때 이 책을 통해 선에 입문했다.

물론 이 책의 저자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도 선불교 문헌중 가장 뛰어난 목록의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백두대간에서 깨달음으로…



산은 사람을 기른다

(윤제학 지음, 손재석 사진, 1만2천원)

이 책은 우리 국토의 등줄기를 어루만지며 시종일관 명상과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거기다가 사진은 풍광의 갈피마다에 숨어 있는 애틋한 존재의 노래들을 오롯이 포착해 내고 있다. <산은 사람을 기른다>의 출간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문학예술의 차원으로 고양된 백두대간 종주기를 갖게 된 것이다. -심산의 글에서

여름휴가를 맞이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땅의 등줄기를 우러러 보는 것도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이 한 권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번 여름휴가의 보람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기쁨은 또 있다. 사람이 어려울수록 마음이 차분해져야 한다.

삶이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다면 금방 떨치고 일어설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들의 힘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줄 것이다. 거기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생각이 새로워진다면 이 어찌 기쁨이 아니겠는가!

도피안사 대표 송암

법정 스님이 들려주는 지혜



참 좋은 이야기, 참 맑은 이야기

(법정 스님 지음, 7천5백원)

<참 좋은 이야기>와 <참 맑은 이야기>는 법정 스님이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야기 모음이다.

두 권의 책에는 그 동안 법정 스님이 살면서 보았거나 들었거나 책에서 읽은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물론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도 여러 편 들어 있다.

여기에 실린 이야기들은 저마다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자비, 봉사와 희생, 맑은 가난과 베푸는 마음 등 훈훈한 메시지가 담겨있어 읽는 이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그 감동으로 무더운 여름을 나는 것은 삶의 지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정 스님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평화와 나눔의 정신으로 이웃과 더불어 선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권한다.

휴가 중 틈틈이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맑고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동쪽나라 대표 김형균

'인생은 무엇인가' 해답담아



번뇌 업 고통

(정승석 지음, 8천5백원)

<번뇌 업 고통>은 인도 철학을 전공한 교수가 평소에 자신이 느낀 인생에 관한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그것들을 솔직하고 평범한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가는 책이다. 이를테면 '끊임없이 발동하는 속마음 번뇌, 생사 윤회의 질긴 끈 업, 극복해야 할 삶의 진상 고통'에 관한 주제들을 인간으로서 느낀 감정과 인도 철학자로서 느낀 학문적 단상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밝히고 있어서 공감을 주고 생활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요즘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우리는 흔히들 번뇌니 업이니 고통이니 하는 말을 가끔씩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주제들이 모두 마음의 문제로 귀결된다고는 하지만 마음의 실상을 안다고 인생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문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계기를 마련해 준다.

민족사 대표 윤창화



바로 이번 생에

(우빤디따 스님 지음, 조미라 옮김, 9천원)

내면의 평화 찾는길 안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스스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이 책은 좌선과 경행에 대한 기본 지침에서부터, 명상 중에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룰 것인가를 포함하여, 수행의 각 단계 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최상의 명상 안내서요, 지침서다.

빠알리 경전에 실린 부처님의 말씀과 더불어 펼쳐지는 우빤디따 스님의 가르침을 읽다 보면 순간 순간 마음의 탐색 행로가 열리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상 수행자가 되고, 명상 수행에 확신을 갖게 된다.

특히 스님 스스로 체험한 깨달음의 실제 여정과 심오한 앎의 이론적 모델 모두를 자세히 기술, 부처님께서 밟으신 대 자유의 길이 결코 꿈이 아님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바로 이번 생'에 해탈이 가능하다는 유쾌한 확신을 갖게 하고, 조건지어진 마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면의 능력을 깨닫게 도와주고 있는 이 책은 초심자는 물론이고 연륜이 깊은 명상 수행자,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불광출판사 대표 지홍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뭐지?



천수경과 기도법

(윤영해 지음, 7천5백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한두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문구일 것이다. 이 말은 입으로 지은 죄, 즉 말로 지은 죄를 깨끗이 하자는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으로 <천수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천수경>은 대다수 불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관음신앙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책이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설하는 경전이고, 관세음보살이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는 말씀이다. '나무관세음보살'이라는 일곱 자를 외우는 데서도 가피를 입는데 하물며 <천수경>을 독송, 외우는 데에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음신앙의 성격과 염불의 공덕, 예수재, 백중기도 등 기도법도 함께 실어 현실적인 오늘날의 기도에 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마음과 위대한 주문을 담고 있는 <천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르침대로 실천한다면 오늘도 새로움으로 가득 찬 희망을 일굴 수 있을 것이다.

불교시대사 대표 김병무

'수심결'에 담긴 지혜



마음 닦는 길

(강건기 엮음, 1만원)

무더위와 기약 없이 내리는 장맛비로 사람들은 짜증스런 여름을 맞고 있다. '세상일도 짜증나는데, 날씨마저…' 하면서 말이다. 이런 짜증내는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과연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지눌 스님에 의하면 이런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고 한다. 성내고 짜증내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으로서 버려야 될 것인데, 왜 부처의 마음과 같다고 했을까? 강건기 교수(전북대학교 철학과)가 지눌 스님의 <수심결>을 풀어 쓴 <마음 닦는 길>은 그 의문에 명쾌한 답을 보여준다.

지눌 스님의 <수심결>은 말 그대로 마음 닦는 바른 길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오늘날 자기상실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고통과 상실에 빠져있는 그 마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자기상실의 병을 극복하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주고 있다. 특히 강 교수는 실존적 입장에서 인간회복의 길을 쉽고 자상히 설명하고 있다.

불일출판사 대표 윤정수

애들아! '법구경' 읽어봐!



어린이 법구경

(향봉 엮음, 8천원)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꾸준히 인기를 누리는 것을 보면 어른들에게 쉽고 간단한 문체가 안식과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듯하다. 그러나 단순해 보인다는 것이 단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봉 스님이 엮은 <어린이 법구경>은 어린이를 위한 불교 도서지만 책에 실린 부처님 말씀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읽고 깨우쳐야할 소중한 덕목들이다. 그리고 복잡한 사회에서 벗어나 가끔은 단조로운 동화를 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편안함과 깨달음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에 어른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다.

<법구경>은 간단명료하면서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어, 예로부터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애송되어 온 불교 교훈집이다. 부처님 말씀은 세상 때문은 성인들에게 위안이 되고 등대가 된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보고 듣고 배우며 경험했던 일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가슴에 여러 가지 색깔로 남게 된다. 따라서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법구경에 담긴 가르침을 전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밀알 대표 이경용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과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Hot!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불교의 기초부터, 선지식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과 만나십시오

"여시아문 책방은 불교책으로 장엄된 장경각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넓은 공간으로 책 구하기가 편리하고 모든 정보가 전산처리 되어 편리하지요. 특히 장서의 진열도 출간연대별로 구분돼 있어 나온 지 오래된 희귀본도 만날 수 있더라구요."
불교TV 큰스님과의 대담 프로그램 '뜰앞의 잣나무' 진행자였던 중진 판화가 황남채씨는 여시아문을 사랑하는 단골 고객의 한 사람이다.
교계 신문에 나온 '불서 베스트 셀러' 집계를 참고로 여시아문 매장에서 직접 책을 보면서 고르고 있다는 황씨는 불서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미술, 여행, 건강 분야의 책들도 즐겨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황남채씨 (판화가)

불교 서적 전문서점인 '여시아문'은 1994년 8월 24일 전문매장을 오픈하였으며 첨단시대에 발맞추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온라인 여시아문**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약 30,000여 종의 불교서적 타이틀 약 80,000여 권을 구비하여 불자님들이 필요로 하는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현대불교신문사의 출판부와 불교서적센터를 운영하여 도서출판 및 도서관리 그리고 도서유통까지 통합업무 운영을 통해 올바른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책방 여시아문 약도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법공양 상담합니다>

'진리의 말씀-법구경'
법정 스님 옮김/나무심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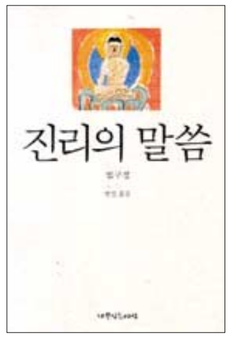
짧지만 긴 가르침
불자들 애송 잠언시집

현해 스님(동국대 이사장)



<법구경>은 경전이라기 보다는 전세계 불자들이 가장 많이 즐겨 읽는 불교 잠언 시집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읽기 보다는 삶속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때마다 펼쳐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기에 안성마춤입니다.
국내에는 <법구경>을 번역해 놓은 책들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법정 스님이 옮긴 <진리의 말씀-법구경>을 권합니다. 쉽고 간결한 문체로 <법구경>의 특성을 잘 살려놓아 읽기에 편합니다.
번뜩이는 지혜로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법구경>으로 더운 여름을 지혜롭게 보내십시오.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나?
산뜻한 삶의 지혜 던져줘



"가르침에 친해지는 자는 잠자리가 평안해진다. 마음은 즐겁고 밝아진다. 부처가 말씀하는 가르침 속에 지혜의 눈은 저절로 열려진다."
"각자가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각자가 마음을 아껴 밖에서 스승을 구하지 말라. 각자가 마음을 스승으로 삼으면 진정한 지혜의 법을 얻을 것이다."

이 좋은 명구들은 모두 <법구경>에서 인용한 것이다.
<법구경>은 인도의 법구(法救) 스님이 인생에 지침이 될 만큼 좋은 시구(詩句)들을 모아 엮은 경전이다. 후대의 대승경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명쾌한 구성과 해학이 섞인 법문(法門)으로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경지를 설파하고 있으며, 내용도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경전의 성립사적(成立史的)인 측면에서 보면 <출요경(出曜經)> <법집요송경(法集要頌經)> 등과 같은 계통의 것으로 많은 비유와 암시를 통하여 불법을 홍포(弘布)하는 일종의 비유문학적인 경전이다.
팔리어(語) 원문인 <Dhammapda>가 현존하고 있으며, 동본이기(同本異記)로는 법거(法炬) · 법립(法立) 공역의 4권으로 된 <법구비유경(法句譬喩經)>이 있다. 비록 말은 짧고 표현도 소박하지만 구구절절이 경구(警句)로 된 감로(甘露)의 법서(法書)로 알려져 있다.
이 경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교리상의 문제나 계율적인 쟁점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구경>의 요지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출가수행자나 재가 신도를 막론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드는 일의 근본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닦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스스로 밝은 지혜를 얻어야만 한다는 <법구경>의 말씀들은, 왜 <법구경>이 가장 널리 읽히는 대중적인 경전으로 자리잡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것이다.
<법구경> 만큼 예로부터 불교도들에게 애송된 경전도 드물고, 또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는 경전은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불교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 책 만큼은 별다른 저항감 없이 접한다는 사실은, 바로 <법구경>만이 가진 깊은 지혜의 보편성 때문이다.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키 매켄지 지음, 세등 스님 옮김/김영사

여성불교 운동의 대모
텐진빠모 스님 이야기

명성 스님(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운문승가대학장)



여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여성을 위해 성불의 길을 밝힌 부처님의 진리에 주목하기를 권합니다.
특히 이 책의 주인공 텐진 빠모 스님은 현재 티베트에서 여성불교학교를 운영하면서 인도 북부에서 비구니 교육을 위한 사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천가라는 점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이 외국서적이기에 번역의 중요함을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세등 스님의 번역이 이 책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서구여성 첫 티베트 수도원 수행
완전한 깨달음 이루겠다 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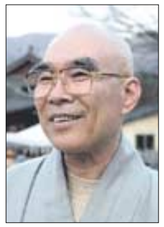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는 제목에 이미 여성과 성불(붓다)이라는 주제어를 통해 이 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남성, 여성이라는 분별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책의 주인공 텐진 빠모 스님은 1943년 런던에서 상인의 딸로 태어났다. 가난하지만 종교성이 풍부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빠모 스님은 고독한 삶과 동양, 완전성을 동경하며 성장했다. 십대 때 불교를 접하고, 스무 살 때는 내면의 소리를 찾아 인도행 배에 몸을 실었다. 그곳에서 영적 스승 캄트룰 린포체를 만났고 그의 유일한 비구니 제자가 되었다. 서구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수백 년 동안 여성에게 금지된 영역으로 알려졌던 티벳의 수도원 제도 속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빠모 스님은 보다 높은 영적 차원으로 오르고 싶어하는 열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년 동안 다른 남자 수도승들과 수행은 물론 일상적인 활동조차 함께 할 수 없었을 정도의 극심한 차별을 경험했다.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의 풍조는 이제 갓 불교에 입문한 빠모 스님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빠모 스님은 아무리 많은 생애를 거치더라도 반드시 여성의 몸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마침내 인도 최북단에 있는 타욜 곰파로 떠났다. 타욜 곰파는 선택된 장소라는 뜻의 티베트어가 말해주듯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쌓인 눈과 얼음 장벽, 일 년 중 8개월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이다. 거기서 빠모 스님은 동굴 수행 12년을 포함한 총 18년간의 은거 수행을 해낸 것이다.
빠모 스님은 진정한 깨달음은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자신을 긍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같은 빠모 스님의 믿음은 이제 다른 여성 출가자 및 불자들과 나아가 종교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 서양 여성의 치열하고 경이로운 수행여정을 담은 이 책은 과거 한국, 인도, 중국 선사들의 선 수행담에 손색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다. 화석화된 옛날 얘기가 아닌 동시대인의 기록인 데다 참선, 요가 등 동양적 수행문화에서 멀찍이 벗어나 있는 서양, 그것도 여성의 구도 기록이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끈다.

백일법문

장경각편집부 편/장경각

“불교 요체 중도로 수렴 참선하는 이유 알게돼”

고우 스님(각화사 선원장)



저는 공부에 도움을 주는 책으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자주 추천하곤 합니다. 이 책에서 성철 스님께서 <백일법문>에서 숱한 경전과 조사(祖師) 어록을 살피며 제시한 불교의 요체가 중도(中道)로 수렴됩니다.

이 책 앞부분의 유식(唯識)관련 부분만 5~8번만 읽어보아도 왜 참선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불자님들이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등 중요한 경전만 공부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철스님 100일간 법문한 내용 수행자·불자들에 귀중한 지침



성철 스님이 1967년에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추대되면서 백일 동안 한 법문을 정리하여 두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 <백일법문>이다. 불교 전반에 걸쳐 두루 밝히고 있는 이 설법은 오랫동안 많은 수행자와 불자들의 귀중한 지침이 되어 왔다. 상권에서는 근본불교, 곧 아함경과 남전대장경에 나타난 원시불교의 온갖 이론을 대승의 입장에서 풀이하고, 또 대승의 제반사상인 중관과 유식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하권에서는 천태와 화엄 등에 이르는 다양한 사상의 요점과 선사상의 핵심인 선종의 근본이 돈오에 있음을 여러 조사의 어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백일법문>은 단순한 법문집을 넘어 현대인들의 구도열과 지식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매력을 갖고 있다. 법문하면 으레 영험담이나 신화적 내용이겠거니 하지만 의외로 합리적이다. 과학적 사실만을 맹신하며 이성적 오만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적절한 소재를 담고 있는 것이다. 스님의 법문에는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불변의 법칙과 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이것을 반야심경의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원리와 접목해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전의설법(轉意說法)을 하셨듯이 스님은 과학적 사실을 설법의 방편으로 활용하셨다. 온통 서구적인 것, 과학적인 것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던 중생들의 마음을 스님은 읽고 계셨던 것이다.

스님의 설법에는 신심에서 뿜어나는 힘이 있으며, 대중들과 호흡을 함께 나누는 생생한 분위기도 담겨져 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기획되고, 논리적 문장으로 서술된 책과는 느낌이 다르다. 불자들은 이 책을 통해 불교에 대한 생각을 전환해, 매일 독송하지만 그 가치를 몰랐던 반야심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철 스님 생시에 제자들의 노력으로 육성법문을 정리해서 출간된 <백일법문>은 서구적 가치의 언저리에 개인의 행복과 인류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주기에 손색이 없다. 대 선지식께서 눈 밝은 납자들을 향해 내린 자비의 법문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무려 100일이라는 근대 한국불교사에서 보기 드문 대작 불사를 통해 탄생한 장광설이 아니든가. 게다가 <백일법문>에는 옛날 조사 스님들이 따라오지 못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한글로 쓰여진 법문집이라는 것이다.

예수는 없다

오강남 지음/현암사

“성숙한 믿음의 길 안내 종교의 책무 알게하죠”

혜국 스님(석종사 선원장)



저는 책읽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불교관련 서적이라면 거의 모두 읽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따라 신도에게 책을 보내주면서 읽기를 권합니다. 불자들은 먼저 부처님 말씀인 경전을 바탕으로 수행의 좌표를 설정한 뒤 ‘부처님의 마음’인 선(禪) 수행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관련 시비가 그 어느 때 보다 무성한 올 여름, 오강남 교수의 <예수는 없다>를 진지하게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유아적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또한 배타주의에서 다원주의로 지향해야하는 종교의 모습을 제시한 이 책을 통해 종교의 책무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 보기를 바랍니다.

열린사회 위해 ‘독선’ 청산돼야 선명한 주제의식 공감대 넓혀



제목으로 얼핏 보면 불경스럽기까지 한 <예수는 없다>를 이해하기 위해 저자의 약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 오강남 교수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교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은 ‘화엄의 법계연기 사상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맥매스터대, 마이애미대, 앨버타대, 서울대, 브리티쉬 컬럼비아대 등에서 객원교수를 지낸 바 있고, 현재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교수로 있다. 미국종교학회 한국종교분과 공동의장, 북미한국대학 학장 등의 일도 맡고 있다.

저자는 예수의 믿음을 믿는다는 것,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전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부활하는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전도열, 교리의 절대화, 획일적인 행동강령, 무조건적인 복종, 철통같은 소속감과 헌신 등을 특징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 교회는 사람의 지적 · 도덕적 · 영적 성장을 가로막을 뿐이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오만과 독선을 가진 사람이 너무도 많다. 자기가 채택한 믿음만을 진리라고 굳게 믿는 근본주의자들은 비단 종교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눈에 띈다.

아직도 가정의 중심은 남성이어야 한다고 믿는 남성 근본주의자, 아직도 냉전시대의 논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이념 근본주의자, 세상은 오직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시장 근본주의자 등 수많은 근본주의자가 있다. 좀 더 열린 사회가 되려면 우리는 이러한 근본주의적 독선부터 청산해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동 · 서양 종교에 해박한 저자의 글답게 평이하면서도 선명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어렵고 딱딱한 문제를 우화와 비유를 적절히 활용해 어렵지 않게 풀어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게 한다.

특히 퇴행에 다름없는 배타주의 풍토 속에 갇혀 있는 기독교의 답답한 상황을 비유해 종교계에 던진 성숙한 제안이다.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전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부활하는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범우사 창립 38주년 기념 2000만원 현상《

범우 제19회 독후감 공모

진리와 자유를 위하여, 새 시대의 새 지식을 위하여— 범우사에서는 창립 38주년을 기념하여 독자 여러분의 독후감을 공모합니다. 그동안 좋은 책 만들기에 전력해온 범우사의 이번 독후감 공모 행사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구분 :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응모요령 : 대상도서를 읽고서 200자 원고지에 중·고등부는 12매 내외, 대학·일반부는 16매 내외로 독후감을 적어 본사 독후감 공모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곳 : (121-130)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범우사 독후감 공모 담당자 앞, 또는 E-mail bumwoosa@cho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겉봉에 '독후감 응모작' 이라 쓰고 응모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응모 분야(중 고등부, 대학·일반부)를 꼭 적어 보내 주세요.
》응모기간 : 2004년 6월 4일~8월 25일까지(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시상일자 : 2004년 9월 24일(금) 오후 3시
》발 표 : 2004년 9월 10일(범우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단체상은 개별통지)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문 의 : 범우사 (031)955-6903 (편집부 김혜연)
》주 최 : 종합출판 범우사(www.bumwoosa.co.kr)

대상도서 ▸▸ 중·고등부

백범일지 김 구
목민심서 정약용/이민수
호질·양반전·허생전(외) 박지원(외)/이민수
열하일기 박지원/전규태
홍길동전·전우치전·임진록 허균(외)/전규태
이야기 이미륵/정규화
태평천하 채만식
빈처(외) 현진건
수난이대(외) 하근찬
한시가 있는 에세이 정진권
채근담 홍자성/최현
주홍글씨 N.호손/이성량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외) L.톨스토이/김진욱
그리스 로마 신화 T.볼핀치/최혁순
위대한 개츠비 S.피츠제럴드/송관식
수필 피천득 지음
바다의 침묵 베르코르/조규철 이정림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모래톱 이야기 김정한
손자병법 손무/황병국
소설 알렉산드리아 이병주
유정의 집 최인호
복편초 오정희
무소유(양장본) 법정
바보 되어주기 글 안슬해/그림 양은숙

대상도서 ▸▸ 대학·일반부

유토피아 T.모어/황문수
햄든 H.소로/양병석
국부론(상·하) A.스미스/정해동
그리스·로마 신화 T.볼핀치/최혁순
세익스피어 4대 비극 세익스피어/이태주
일리아스 호메로스/유영
오디세이아 호메로스/유영
젊은 예술가의 초상 J. 조이스/진종건
신곡(상·하) A.단테/최현
오만과 편견 J.오스틴/오화신
변신 유럽지에서 F.카프카/박환덕
일리나에게 보내는 편지 F.카프카/박환덕
동물농장 1984년 G.오웰/김회진
인목김은 흐른다 이미륵/정규화
돈 끼호떼 세르반테스/김현창
원본 삼국지(1~5권) 나관중/황병국
어머니 M.고리키/김현택
세일즈맨의 죽음 A.밀러/오화섭
예구우스 P.세퍼/신정옥
인형의 집 H.입센/김진욱
근원수필 김용준
두진기행 김승옥
아리바먼나이트(1~10권) 리처드 버턴/김병철
초한지(1~5권) 정비석
유림신화 채글린 심슨/이석연

2000만원 시상

▸중·고등부
금 상(1명) | 문화상품권(30만원), 비평판 세계문학 1질(144권), 상장
은 상(3명) | 문화상품권(20만원), 사르비아 총서 1질(105권), 상장
동 상(5명) | 문화상품권(10만원), 범우문고 50권, 상장
장려상(10명) | 삼국지 1질, 전자수첩, 상장

▸대학·일반부
금 상(1명) | 문화상품권(50만원), 비평판 세계문학 1질(144권), 상장
은 상(3명) | 문화상품권(30만원), 범우문고 1질(201권), 상장
동 상(5명) | 문화상품권(10만원), 책과인생 1년 정기구독, 상장
장려상(10명) | 플루타크 영웅전 1질, 전자수첩, 상장

▸단체상
중등부(1개교) | 상금 40만원+사르비아총서 1질(105권)=총 100만원 상당
고등부(1개교) | 상금 60만원+비평판세계문학 1질(144권)=총 200만원 상당

●협찬사 에이원프로



스테디 셀러!!

무소유

법정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김수환 추기경

잔지스 칸가의 모래알 수의 잔지스 강들에 가득한 모래알만큼의 칠보(七寶) 공덕이 못 미치는 지혜, 법정 스님의 영언(靈言)을 빌어 설파되는 무소유의 지혜. —도올 김용옥

무소유는 공동 소유의 다른 이름이다. 나눔과 실천의 바탕은 무소유에 있다.
나는 한 그루 베어 내어 아깝지 않은 책 으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겠다. —문구병

신46판 | 양장본 | 값 6,000원

중국역사박물관

중국사학회 엮음 | 강영매 옮김

● 중국을 알려면 먼저 역사부터 알자
● 일반인과 청소년을 위한 중국 역사 쉽게 따라잡기
● 백과사전 식 편집, 2천5백 개의 방대한 컬러 도판!

전10권

(중국 역사 박물관)은 모두 10편으로 이뤄진 중국 통사로 역사 이래인 중국의 원시 시회부터 중국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가 멸망하기까지의 역사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알기 쉬운 이해 서술과 2천5백 개의 풍부한 그림 자료를 통해 중국 역사 속의 중대 사건 및 중요 인물 · 과학 기술 · 문화 등 다채로운 성과를 역사 진보의 순서에 따라 생동감 있고 사실적이게, 깊은 차이고도 전면적으로 푸었다. 따라서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쉽게 계발한 중국 역사 지식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 1권 - 역사 이전 하(夏) · 상(商) · 서주(西周)
● 2권 - 춘추시대 전국시대 진(秦)
● 3권 - 서한 동한 삼국시대
● 4권 - 서진(西晉) 동진(5국 십육국 남북조 수(隋)
● 5권 - 당(唐)
● 6권 - 5대 십국(十國) 북송 · 금송

근간
● 7권 - 요(遼) · 서하 · 금(金)
● 8권 - 원(元)
● 9권 - 명(明)
● 10권 - 청(淸)

4×6배판 | 올컬러 | 양장본
각권 값 12,000원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21세기를! 범우사 www.bumwoosa.co.kr TEL.02)717-2121 FAX.02)717-0429

웰빙 열기 속 '명상 서적' 후끈

몸과 마음의 안녕을 추구하는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음챙김의 화두를 쥐어준 '명상'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틱낫한 스님, 달라이 라마 등의 수행과 삶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며 명상서적도 국내 베스트셀러 반열에 잇따라 등극하고 있다.



참선 전문 모임인 수선회의 정진 모습.

틱낫한·달라이 라마 책 베스트셀러에

▮열풍 주도·수행 실천 안내서 역할



틱낫한 스님의 명상서는 이 같은 열풍 한가운데에 있다. 스님의 명상서는 다양한 제목과 내용으로 수십 권 이상 번역·소개됐다. 그러나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책의 대다수가 스님을 음유 시인이나 무종파 영성지도자로 포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아!붓다>(틱낫한 스님, 반디미디어)는 이 같은 평가에 살짝 비켜서 있다. 이 책은 사성제와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 등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 되는 교리를 틱낫한 스님 특유의 평범하면서도 서정적인 문체로 풀어낸 '불교해설서'이자, 일상에서 걷기와 호흡을 통해 수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행안내서'다. 틱낫한 스님은 "내 안에 있는 부처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쬠 저하게 접합으로써 고통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수행의 방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행복 주제로 한 삶의 지침서



서점에 즐비한 달라이 라마 관련 서적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의 삶과 강연을 다룬 수십 종의 서적 가운데서도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류시화 옮김, 김영사)이 단연 눈길을 끈다. 이 책은 달라이 라마의 책이지만 단순한 불교서적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 하워드 커틀러와 달라이 라마가 '행복'이라는 주제로 대화한 것을 묶은 행복 지침서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워드 커틀러는 달라이 라마에게 도발적으로 묻는다. "당신은 행복한가?" 그러자 나라를 잃고 아직도 수많은 난민들과 함께 살고 있는 달라이 라마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또 달라이 라마는 "외롭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혀 외롭지 않다"고 답한다. 그 자신은 매순간 모든 인간 존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며, 늘 나와 공통된 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근원적 물음 천착



인도 성자의 목소리와 가르침을 담은 명상서들도 많이 있다. 라마나 마하리쉬의 <나는 누구인가>(청하)는 종교를 떠나 존재에 관련한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에 천착한 책이다. 마하리쉬는 "비어있는 그 자체의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곧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며 내가 세상이 되는 것"이라 말한다. 그에 따르면 깨달음이란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 다시는 마음의 세계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다.

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 속에 다른 생각들을 모두 끊고,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마저 끊어지면 깨달음이 드러난다고 했다. 그 상태를 진아, 신, 깨달음, 가슴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티베트 불교를 알기 쉽게 설명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 스승으로 꼽히는 소갈 린포체의 <티베트의 지혜>(민음사) 역시 달라이 라마와 함께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을 소리없이 전하고 있다. 이 책은 티베트 불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파드마 삼바바의 <티베트 사자의 서>를 알기 쉽게 설명함은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잔잔하게 풀어낸다. 책 속에는 인간이 죽은 후 거치게 된다는 바르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임사(臨死) 체험에 관한 보고, 일상 생활에서 마음 닦는 수행법까지 담겨 있다.

▮새로움을 위한 자각의 필요성 강조



크리슈나무르띠의 <명상>(중명출판사)은 현대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크리슈나무르띠의 사상과 가르침을 압축적으로 담았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슬픔과 고통, 격정, 분노 같은 감정은 당사자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비로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 단지 신을 찾거나 환상, 오락을 갖기 위해 명상에 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집착이요, 삶의 사슬임을 저자는 일러준다. 그저 자기 자신을 비우기 위해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면 새로운 영적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명상은 세계로부터 도피하거나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며 목표에 이르는 수단도 아니다.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이제껏 스승들이나 구세주 그리고 대가들의 권위에 의존해 왔다. 만약에 명상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모든 권위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 자각을 강조하는 크리슈나무르띠의 가르침이다.

▮실생활 적용 가능한 명상법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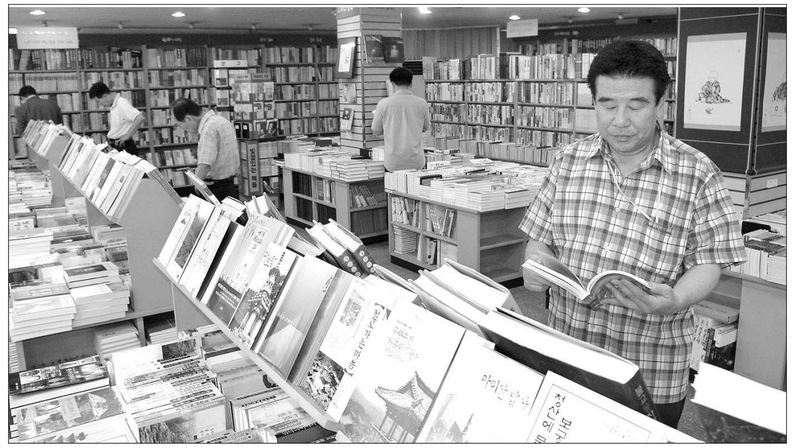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명상법을 담은 책도 있다. 혜봉 법사의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불광출판부)은 지은이가 1990년 故서암 스님에게서 '무(無)'자 화두를 받은 후 전국의 제방선원을 비롯해 동남아 불교국가를 만행하며 얻어낸 수행의 기록이다.

이 책은 '관법명상','진언명상','절명상','염불명상','화두명상' 등 5가지 명상법으로 분류돼 있다. 저자는 '관법명상'에 대해 생각을 그치고 분별에서 벗어나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일념이 되도록 소리에 집중하라는 '진언명상'. '절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이 비워짐을 느낀다는 '절명상', 오직 염불소리만 남을 때까지 쉬지 않고 염송해야 깨달음이 전해진다는 '염불명상'이 소개돼 있다.

문학의 법당엔 서늘한 감동이…

생활의 무게와 타오르는 더위가 '꺼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는 여름. 그래도 그 한가운데에 휴가가 있어 여름날의 '고(苦)'는 고가 아니다. 여유로운 여름 휴가 기간에 불교문학을 가까이 하며 현실과 허구, 그리고 불교를 오가는 특별한 체험에 몰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에서 불교문학서적을 고르며 더위를 식히는 불자들.











경전, 문학으로 형상화

경전의 깊이와 문학의 상상력을 함께 가져가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 고은의 소설 **<화엄경>**(민음사)을 권한다. 불교경전은 문학의 무한한 보고로 전해지고 있지만, 방대하고 난해한 경전의 세계가 문학적 형상화를 거쳐 작품으로 피어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화엄경>은 어린 선재의 구도기를 다룬 <화엄경> 입법계품을 문학적으로 일궈낸 역작으로 꼽힌다.

선재는 보리심을 일으켜 보살행을 구족하기 위해 남인도 여행에 나서 53인의 스승을 만난다. 문수보살에서부터 마지막 보현보살에 이르기까지 선재는 많은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는 불법과는 상관없는 바라문, 장사꾼, 뱃사공, 소녀와 창녀, 신들까지 포함돼 있다. <화엄경>이 갖는 구도자체의 본질성은 문학이 지향하는 존재의 근원 탐구, 그리고 작가의 서정과 의식, 고전적 어조와 맞닿아 불교문학사의 한 획으로 남아 있다.

경허선사의 진면목

불교의 역사를 빛나는 상상력으로 되살린 작품도 있다. 최인호의 소설 **<길없는 길>**(샘터)은 인도에서 시작된 이후 중국을 거쳐 해동에서 다시 점화된 선불교의 종지를 찾아나선 불교소설이다. 이 작품은 두 개의 이야기 얼개로 되어 있다. 그 얼개의 하나는 대학에서 해직된 영문학자 '강빈'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서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경허 스님의 일대기이다. 작가는 두 이야기 줄기 속에 선의 종지에 관한 풍성한 일화들을 소리없이 녹여냄으로써 선불교의 높고 깊은 향취를 전하고 있다.

작품에서 '길'은 자신의 법기를 가늠해줄 스승도 없는 지금의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1300여 년에 걸친 화두들을 부여잡고 깨달음을 위해 용맹정진하는 경허선사의 수행의 의미는 남다르게 전해진다. "길은 항시 어데나 있고, 길은 결국 아무데도 없다"는 미당 서정주 싯구의 화두가 불꽃처럼 되살아난다.

다선삼매로 깨친 선승

한승원의 **<초의>**(김영사)는 '호남 칠고봉'으로 추앙받던 뛰어난 선승 초의(1786~1866) 스님에 대한 소설이다. <다신전>, <동다송> 등을 저술해 차문화를 보급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는 글씨와 그림에 모두 능한데다 범패, 탱화, 단청, 바라춤에 이르기까지 팔방미인이라고 불릴 만큼 다재다능했다. 그러나 작품에서 주목되고 있는 스님은 다선삼매로 깨달음을 이룬 선승의 모습이다.

작가는 초의 스님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위해 수많은 일화와 허구를 대담하게 직조하여 영화처럼 속도감있는 전개를 보이고 있다. 스님은 깨달은 마음을 암자의 올타리 안에 가두지 않고 차와 선을 통하여 저잣거리에 회향하려 했고, 어떤 때는 범패를 부르고 바라춤을 추면서 존재의 빛과 그림자를 다독이며 거친 세상의 다리를 흘연히 건넜다. "초의 스님을 알고 난 지금, 나는 세상이 훨씬 아름답고 향기롭고 넓어보이고, 세상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작가의 서문이 낯설게 들리지 않는다.

법정 스님 대표 에세이

장중한 이야기를 소화하기 부담스럽다면 가벼운 터치로 삼보의 향훈을 전하는 에세이를 택하는 것도 좋다. 맑고 향기로운 문체로 불자들은 물론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법정 스님의 오랜 베스트셀러 **<무소유>**(범어사)를 읽어보자.

법정 스님은 벗으로부터 난초를 선물 받은 이후 어쩔 수 없는 집착에 젖어든다. 외출 중에도 난을 들였는지 내었는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가 일쑤고, 밖에 내어둔 난을 안으로 들이기 위해 발길을 되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스님은 난초를 친구에게 건네면서 그 같은 집착과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아무 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무소유의 지혜'를 소리없이 전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기 위해 발버둥치는 세상, 소유물에 대한 집착으로 진정한 평안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케 한다.

스님이 본 스님들의 일상사

지묵·설곡·효림 등 15명의 스님들이 쓴 **<스님이야기>**(여시아문)는 스님들의 청정수행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돋보이는 에세이집이다.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스님들의 수행과 일상사가 담담한 어조로 녹아있는 책은 스님의 눈으로 읽어낸 스님의 이야기들이 독자들의 흥미를 돋운다.

20여년 가까이 장좌불와(長坐不臥)와 오후불식(午後不食)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과 금산 스님, 결제때는 물론 해제때마저 기도처를 찾아다니는 법현 스님, 해제와 결제가 따로 없이 늘 정진하는 일선 스님 등 스님들의 다양한 삶의 향취가 묻어난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8월 6일까지 3년 여에 걸쳐 현대불교신문에 소개됐던 연재물 중 85명의 스님이야기를 선별해 엮은 책이다.

엄마 불교가 뭐예요?

호기심이 한창일 나이의 아이에게 '불교'를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자녀를 불자로 만들고 싶다면, 서점의 불서코너를 유심히 살펴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감동과 재미를 곁들여 전하는 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하 그렇구나!

저학년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그림에 신경을 써서 책을 고르는 것이 좋다.

최근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 정채봉 씨의 동화 '오세암'을 만화로 엮은 **<오세암>**(유병윤 그림, 파랑새어린이)이나 동승이 절에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담은 **<동승과 노스님>**(안태성 글/그림, 동아일보사),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정수일 글/그림, 운주사) 등은 그림만으로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스님의 일대기를 만화로 엮은 책도 여러 권 출간되어 있다. 성철 스님의 삶과 수행을 그린 **<성철 큰스님>**(임기준 글/그림, 불교만화사)이나 편양 언기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왕눈이 스님>**(정수일 글/그림, 운주사) 등이 권할만하다. **<달라이 라마>**(김영만 글/조은숙 그림/꿈동산)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일생과 철학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린 책이다. 달라이 라마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망명정부의 지도자로서 티베트 해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걸어온 생애를 담고 있다.



<엄마랑 아빠랑 절에 갔어요>(홍주연 엮음, 가교)는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사찰안내서'다.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안의 벽화에 이르기까지 절의 여러 건물과 탑, 범종, 석등, 풍경의 유래와 기능 등을 쉬운 말로 안내하고 있다. 절의 건물과 불구 그리고 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등 불교와 절에 관한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고학년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불생경>, <자타카> 등 경전 속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이 많이 출간되어 있다. **<아름다운 우리 사찰 13가지 숨은 이야기>**(이규성 글/그림, 운주사)나 **<부처님이 들려주는 108가지 이야기>** 등은 만화로 엮은 에피소드와 함께 도움말이 들어 있어 이해를 돕는다. 순천대 만화예술학과 교수인 윤승운 화백이 그린 **<향기로운 부처님 나라>**와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도 불교 설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에 좋다. <향기로운 부처님 나라>는 인도, 중국편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 제자들과의 일화를 소개한다. <아름다운 부처님나라>에서는 자장 율사와 진표 율사의 이야기를 비롯해 갑사와 내소사 법당, 전등사 은행나무에 얽힌 설화를 만날 수 있다.



경전으로는 **<어린이 천수경>**(김호성 지음, 이정문 그림, 불광출판부)과 **<만화로 보는 부모은중경>**(오거서불경만화기획연구팀 엮음, 오거서) 등이 쉽게 읽힌다. <어린이 천수경>은 <천수경>의 내용과 진언을 외우는 까닭을 여러 일화를 들어 설명하는 책으로, 재미있는 우화에 이정문 씨의 삽화가 함께 엮어져 어린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읽으며 천수경을 익힐 수 있다.

<불교EQ>(우학 스님 지음, 좋은인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으며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에 좋다. 수년간 어린이 법회를 지도했던 대구 관음사 주지 우학 스님이 어린이들에게 받았던 질문과 그 답을 간추려 놓은 책으로, '부처님은 왜 황금색인가요' '고기를 먹으면 안되나요' 등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준다.



부처님이 정말 좋아요

1318 '심성과 지혜' 가꿔봐

청소년기의 책읽기는 정서적 안정을 취하며 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지적 소양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이다. 정서적으로 민감해지는 사춘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대학입시 또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방학을 맞아 불서를 통해 인성과 지성을 동시에 가꾸는 시간을 가져보자.



영주 봉황산 중턱에 자리잡은 부석사. 소백산맥과 무량수전의 조화가 절경을 이룬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문화재 가치 알고싶다

방학숙제를 위해서라도 문화유산답사가 필수인 계절. 이왕이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책을 통해서나마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고 가보면 어떨까.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최순우 지음, 학고재)는 이제는 문화유산 해설서의 고전이 된 책이다. 저자의 심미안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전통미학의 입문서라 할 만하다. 수려한 문체가 멋스러운 책이다.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김현준 지음, 효림)는 사찰의 크고 작은 조형물의 상징적 의미를 파헤친 책이다. 저자는 사찰을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라는 관점에서 사찰과 상징을 바라보고 있다. 1991년에 첫 출간돼 세련된 디자인이나 칼라사진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교리에 기초한 설명이 충실하고 도면도 적절하게 곁들여져 사찰의 상징물들을 설명해주는 책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하다.

박물관에 갈 계획이라면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이원복 지음, 효형출판)가 도움 된다. 유물과 현대의 시간적 간극을 뛰어넘는 '시간여행의 비결'이 소개돼있는 책이다. 그 비결은 바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유물을 읽어내고,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다. 이 책은 '함초롱함' '자연스러움' '담백함' '올곧음' 같은 67가지 주제어를 선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유물들을 찾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마음을 닦아 보자

마음을 닦는 데는 경전이나 명상서적이 좋겠다. 다만 경전은 어려울 수 있으니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다시 쓴 것들로 골라보자.

<물, 뱀이 마시면 독, 소가 마시면 우유>(손승현 외 지음, 조계종출판사)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엮은 본연부의 경전 가운데 새겨볼 만한 가르침들을 가려 뽑은 것이다.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들의 삶과 관련해 설명하며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은 경전 한 구절을 소개하며 현대인들의 삶과 관련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포교 일선에서 청소년들과 부대끼며 얻은 교법사들의 경험과 안목이 담겨 있어 보다 친근하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벽 틈으로 바람 들어오듯 마음 틈으로 욕심 들어온다>(이욱태 외 지음, 시공사)도 청소년용 불서로 적합하다. <아함경>에서 가려 뽑은 97개의 짧은 이야기로, '나를 알기 위하여' '욕심 없이 살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등으로 구성됐다.

<365일 부처님 말씀>(윤창화 엮음, 동승동)은 <아함경> <법구경> <화엄경> <숫타니파타> <열반경> <사십이장경> <불본행경> 등의 경전에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문구를 뽑아 추린 책이다. 1월에는 '자비와 보시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가짐', 2월에는 '선행과 악행', 3월에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과 같이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제만을 분류하고, 그에 어울리는 경구들을 하루에 하나씩 읽을 수 있도록 날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며 교훈도 얻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우화 1·2>(이용범 지음, 수희재)는 <백유경> <본생경> <아함경> <현우경> 등 다양한 경전에서 뽑아낸 우화 266편을 엮은 것이다. 간결한 형식 속에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어 우화는 지혜의 보고라 불린다. 우화라 하면 흔히 이솝우화를 떠올리지만, 불교경전에도 그에 못지않은 질과 양의 우화가 전해지고 있다.

'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라는 부제가 붙은 1권에는 생활에서의 지혜를, '복 밭에 씨를 뿌려라'라는 부제의 2권에는 불교적 지혜를 주로 담았다.

<악마, 부처님을 유혹하다>(윤창화 엮음, 민족사)는 <아함경>에서 부처님과 악마의 대화 장면을 묶은 것이다. 악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번뇌 망상과 이별하고자 하는 수행자라고, 한글대장경을 바탕으로 교훈적이거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장면들을 읽기 쉽게 일화 형식으로 구성해 놓아 재미와 감동이 쏠쏠하다.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라면 **<학교로 간 붓다>**(최시선 지음, 시공사)를 읽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 책은 학교를 배경으로 부처님이 아이들 생활을 살피며 전해주는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그려본 것이다. 가출을 하더라도 가출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산에도 올라보고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주위를 보는 시선을 기르라고 말한다. 또 인터넷 서핑을 해도 그냥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필요한 정보도 얻고 재미를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저자는 너무나 사소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관심과 조언일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나아가게 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